



6

1983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3. 6호

(루게 428)



◇◇◇◇◇◇◇◇◇◇

## 차례

◇◇◇◇◇◇◇◇◇◇

|  |    |
|--|----|
| 봄날의 이야기 .....                              | 4  |
| 동방에 솟아오른 혜성 .....                          | 5  |
| 축복의 인사 올리네 .....                           | 5  |
| 아, 가림천아 .....                              | 6  |
| 위대한 수령 <b>김일성</b> 동지께서 찬란히 빛내여주신 우리의       |    |
| 주체적문학은 세계혁명적문학의 본보기 .....                  | 7  |
| 나가자 조선청년들 .....                            | 11 |
| 길이 빛나라, 주체사상탑이여 .....                      | 12 |
| 백두의 행군길 .....                              | 13 |
| 보천보 밤하늘밑을 걸으며 .....                        | 13 |
| 신념은 기발이 되어 .....                           | 14 |
| 주체형의 당일군의 참된 풍모와 자질을 감명깊게 형상한 기념비적작품 ..... | 15 |
| 곤장덕에서 .....                                | 20 |
| 숙영지의 접동새 .....                             | 20 |
| 은혜 .....                                   | 21 |

|                        |    |
|------------------------|----|
| 영생 .....               | 28 |
| 한생의 한시간 .....          | 39 |
| 5월 1일(외 1편).....       | 51 |
| 봄의 편지 .....            | 51 |
| 꽃다발에 대한 답시 (외 1편)..... | 52 |
| 오수고원에 물오리떼 내린다.....    | 52 |
| 흑물결 금물결 .....          | 53 |
| 처녀의 회답 .....           | 54 |
| 백양나무 .....             | 64 |
| 월미도의 포성이 들려온다.....     | 76 |
| 맹세에 대한 생각 .....        | 78 |

# 봄날의 이야기

윤두만

움트는 정원의 나무숲에  
첫 봄비내리는 아침  
수령님께선 기쁘신 마음으로  
새 청년발전소의 설계도를 보고계시었네

무수한 점과 선... 짙어가시며  
고심어린 탐구의 자취 헤아리실 때마다  
환희에 넘친 설계가의 가슴에도  
기쁨의 밤비가 속삭이며 내리는듯

아, 이제 결론만 내리시면  
저 점들은 청춘언제로 솟아오르고  
저 선들은 푸른 물길이 되고...  
푸른 꿈이 실린 설계가의 얼굴엔  
저절로 웃음이 벅그는데

웬일이신가?  
도면우의 한점에 손길을 멈추신 수령님  
문득 물으시었네  
-여기가 버들풀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쭉- 바다가 생깁니다.

한껏 가슴부푼 설계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나신 어버이수령님  
이윽도록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혼자 말씀이신듯  
-바다라...  
큰 호수가 생긴단말이지,

연연 수백리 굴을 지나  
하나로 흘러들 세찬 강물들  
푸른 산발이 돌레돌레 호심에 비길  
그날의 수려한 경치를 그려보시는가  
아니면 언제에서 떨어지는 물  
흘러흘러 내려 다시 수백리

아득한 서해 간석지논을 적실  
빛나는 그 전망을 더듬어보시는가

고요한 정적이 깃든 방안엔  
봄비 내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깊은 사색에서 깨어나신 그이의 손길  
도면우의 한 지점을 힘있게 짙으시여라

-다시 찍읍시다 이 한점을  
이대로 하면 여기 발이랑과 문화주택마을이  
다 물에 잠기게 될거요 .  
그러면 농장도 자리를 떠야 하고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소 이고장사람들이...

그이께서 오래도록  
오래도록 손을 떼지 못하시는  
설계도우의 한점!  
아, 생각이나 했던가 그 한점을 찍을 때  
거기에 실릴 어버이사랑  
이렇듯 깊고깊을줄

설계가는 머리 희도록  
이날까지 무수한 점 찍어왔건만  
그는 보았네. 난생처음  
대양의 물방울과도 같은  
그 한점에 비낀 숭고한 수령님의 뜻  
헤아릴수 없는 인간사랑의 세계를!

순간  
설계도에 다시 그려넣을 바다보다 먼저  
그의 가슴에선 출렁이였네  
물속에 잠긴 문화주택 추녀들과 발이랑들을  
안아올린 위대한 사랑의 바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사랑의 바다가  
걱정의 파도를 일으키며 끝없이 출렁이였네

# 동방에 솟아오른 혜성

그워스 작고

세상에는 수많은 지도자들 있건만  
그렇듯 탁월한 지도자를 몰랐노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현세기에  
동녘에 솟아오르는 태양과도 같이  
또 한분의 지도자를 맞이하였거니  
그이는 주체조선에서 태어나신 향도의 별  
그이는 주체사상의 완벽한 체현자이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후계자이신  
**김정일** 동지이시여라

아 **김정일 김정일**

그이는 진정 인류해방의 영원한 상징  
압박받는 인민들의 진정한 행복의 상징  
**김정일** 그이는 백두의 정기를 한몸에 안으시고  
조선에 솟아오른 향도의 해발로  
인류의 삶과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시니  
그이는 정녕 인류가 낳은 향도성이시여라

그이의 탄생은  
영광스러운 주체위업과  
인류해방위업의 승리를 상징하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하거늘  
인민들은 그이를 경모하여  
인류의 탁월한 지도자로 높이 모시고 칭송하고  
있어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를 모시여 주체위업의 승리가 있고  
인류의 영원한 행복 있거니  
세계피압박인민들  
향기그윽한 꽃뭉치 흔들며  
그이의 탄생일을 경축하노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  
하노라  
(필자는 까메룬 야운데종합대학법학부 학생임)

# 축복의 인사 올리네

두마 도미니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여  
당신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의 미래를 안으시고 탄생하시었어라  
찬란한 태양으로

당신은  
주체사상이 승리하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품모를  
한몸에 고스란히 체현하시며  
만민의 축복속에 성장하신

영명한 지도자  
당신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시려는  
충성의 일념을 안으시고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나니  
당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어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내놓으시었어라

당신은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고  
대담하고 비상한 전개력으로 당과 인민을 이끄시여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시었나니  
당신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영재이시여라

당신은 인민들의 살림을  
더 유족하고 문명하게 꽃피워주시려고  
세상만복을 다 안겨주고계시나니  
정녕 당신은 인민의 자애로운 지도자이시여라

아, **김정일**  
당신은 사상리론의 천재  
당신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  
당신은 인민의 자애로운 지도자  
당신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명한 지도자동지를 모시였기에  
조선은 빛나고 그 미래는 휘황찬란하며  
세계는 조선을 우러러 따르어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당신은 공산주의의 태양  
당신은 세계의 앞길 밝혀주시는 붉은태양

조선인민은 당신의 탄생 40돐을  
최대의 민족적경사로 기념하노라  
전세계는 당신의 탄생 40돐을 국제적명절로  
경축하노라  
온 인류가 우러러 축복의 인사를 올리며  
당신께서 억만년 장수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노라

(필자는 가봉예술인)

## 가사

# 아, 가림천아

오상홍

가림천아 내가 왔다 한 가슴에 안아보자  
이역땅 하늘아래 그림던 너로구나  
어둡던 그 세월에 장군님 모신 강아  
조국 찾아 행복 넘친 날 반겨 흘러다오

아 가림천아 장군님 받든 강아  
조국 찾아 행복 넘친 날 반겨 흘러다오  
가림천아 들려다오 그날밤의 만세소리

세월은 흘러가도 네 어이 잊을소냐  
조선은 살아있다 그 음성 간직한 강아  
장군님을 노래하며 영원히 흘러다오

아 가림천아 그 음성 간직한 강아  
장군님을 노래하며 영원히 흘러다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찬란히 빛내여주신 우리의 주체적문학은 세계혁명적문학의 본보기

방연승

오늘 우리 주체적문학이 세계혁명적문학의 본보기로 공산주의인간학의 상상봉에 높이 솟아 그 찬란한 위용을 누리에 떨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되며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되었습니다.》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의 유일적령도와 지도가 없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으며 빨리 발전할수 없다. .

그것은 로동계급의 문학이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는 사상적무기이기때문이다.

우리 주체적문학은 처음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태여났고 아버지수령님의 령도와 배려속에서 곧바른 주체와 궤도를 따라 발전하였으며

오늘은 자기 발전의 일대전성기를 맞이하고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주체적문학은 공산주의인간학의 본보기로서 세계혁명적문학을 이끌어어나가는 선도적사명을 빛나게 다하고있으며 우리 주체예술의 전반적발전을 담보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믿음직하게 다하고있으며 사람들에게 혁명적량식을 공급하는 사상적무기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주체적문학이 세계혁명적문학의 본보기로 높이 솟아올라 자기의 사명을 빛나게 다할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시대와 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우리 문학에 빛나게 구현하도록 이끌어주시였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은 인류사상사의 최고 발전단계를 의미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최고절정을 의미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문예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있기때문에 인류문학과 로동계급문학의 최고발전단계에 올라서게 되었

으며 자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었다.

우리 주체적문학이 세계혁명적문학의 본보기로 그 위용을 떨치게 한 요인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문학의 만년초석이며 뿌리인 혁명전통을 손수 마련해주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신 혁명연극, 혁명가극, 혁명가요 등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으로써 주체적인 혁명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문학을 주체의 궤도를 따라 영원히 개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근본바탕이며 주체의 혈통을 이어주고 순결하게 정화시켜주는 영원한 심장이다.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세계혁명적문학의 본보기로 되게 한 요인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끝없는 배려를 받고있는데 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문학대렬을 손수 꾸려주시고 애지중지 키워주시였을뿐아니라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우리 문학이 나아가야 할 앞길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고 그 수행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해방직후에 우리 작가들을 저택에 부르시여 밤을 새워가시며 항일무장투쟁사를 들려주시며 문학창작문제를 손잡아 가르쳐주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7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과 빛나는 령도의력사를 여기에 다 말할수 없다.

그것은 끝없는 경탄과 흠모, 불멸의 예지와 사랑의 서사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태어나 그이의 휘황한 빛발을 받아안고 자라난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은 1970년대에 이르러 자기 발전의 대전성기에 들어섰으며 오늘 1980년대에도 끊임없이 룡성번영하고있다.

로동계급의 문학이 계속 건전하고 옹바르게 나가며 당의 문학으로서의 면모를 고수하고 계속 빛내이며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켜 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것은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당이 이 부문 사업을 어떻게 지

도하는가에 중요하게 달려있다.

그것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은 그를 구현해나가는 당에 의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되며 더욱 발전풍부화되고 전면적으로 완성되어 나가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우리 문학을 철저히 주체사상화하는 데서 나서는 목표와 임무와 수행방도를 밝히고 현명하게 이끌으로써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대로 주체의 공산주의인간학의 본보기로 되었으며 세계혁명적문학을 선도하는 본보기로 그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다.

우리 주체적문학이 세계혁명적문학의 본보기로 되는 징표는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문예방침이 가르치는대로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고 꼭 참으로써 주체시대 근로인민의 혁명적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주체가 선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된 데 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고 꼭 들어차야 문학이 주체시대와 인민의 혁명적요구와 리해관계를 구현한 주체가 선 혁명적문학으로서의 성격과 풍격을 전면적으로 옳바르게 갖추출 수 있다.

그것은 우선 문학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야 근로인민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하며 사는 주체가 선 인간형상을 창조할수 있으며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신념으로, 의리로 간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혁명적양식을 공급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야 문학이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며 자기 나라의 민족적바탕에 튼튼히 서서 자기 인민의 사상감정과 비위에 맞는 민족적풍격이 뚜렷한 인민적인 문학으로 되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야 부르조아적이며 봉건주의적이며 수정주의적인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에 물젖지 않는 가장 건전한 혁명적문학으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은 오직 하나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고 꼭 참으로써 사람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는 혁명적양식으로 되었으며 우리 혁명과 인민의 요구와 사상감정에 맞는 주체가 선 사회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 민족문학으로 되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보편적인 작용력을 가진 가장 혁명적인 문학의 본보기로 되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사상정신적양식을 격동적인 심장의 충격으로 안겨주

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을 비롯한 《새봄》, 《생명수》, 《평양시간》들의 장편소설들,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영화문학을 비롯하여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월미도》, 《군당책임비서》, 《이 세상 끝까지》, 《열네번째 겨울》, 《청춘의 심장》 등의 영화문학들에서 보는 예리하고 심각한 문제성, 높은 사상성과 철학적심오성은 바로 우리 사회발전의본질을 주체사상의 높이에서 깊이 그려냄으로써 얻어진 빛나는 예술적전취물이다.

우리 주체적문학이 세계혁명적문학의 본보기로 되는 징표는 둘째로 우리 당의 문예방침이 가르치는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는 우리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의지, 그 세계적인 사상정신적조류를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문학이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요구를 구현한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점화로 된 데서 표현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전세계를 자주화하는 데서 주체적문학은 커다란 역할을 맡고있다.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높이 모신 수령형상작품은 중추적이며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바로 그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온 사회와 세계를 창조하는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문학이 수령형상작품을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참작하는 단계로 발전하여야 자기의 혁명적풍격을 전면적으로 갖추게 되며 자기의 문학적보물고의 중심을 가지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아직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의 중추를 가지지 못한 일면적인 단계에 머물러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수령형상작품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의 가장 귀중한 재부로 되며 역사문헌적인 견인력과 인간학적인 감화력을 겸비한 공산주의인간학의 정화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과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높이 모신 영화문학들의 기념비적성과가 그것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과 혁명영화문학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인간학의 상상봉에 올라선 정화로 되게 한 요인은 무엇보다먼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 그이의 탁월한 령도의 현명성을 폭넓고 깊이 감동적으로 밝힘으로써 주체시대 혁명발전의 본질을 심원하게 그려낸 빛나는 혁명적대작으로 된 데 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주체의 공산주의인간애와 혁명적동지애, 고매한 인품



과 덕성을 격조높이 감명깊게 그려냄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따라배우게 하는 영원한 예술적기념비로 된 데 있다.

장편소설들인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 《고난의 행군》, 《근거지의 봄》, 《1932년》 등이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로 키워내는 혁명적량식을 주는 금보다 더 귀중한 재부로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숭고한 높이에서 모신 기념비적성과가 우리 주체적문학으로 하여금 세계혁명적문학의 본보기로 되게 한 가장 규정적인 징표로 된다.

우리 주체적문학이 세계혁명적문학의 본보기로 되게 한 징표는 셋째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문예방침이 가르치는 대로 주체시대 주인공문제 즉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문제를 전면적으로 빛나게 해결한 데 있다.

문학이 시대와 혁명, 인민의 요구를 옹계 구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주인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우리 주체적인 문학은 주체의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이론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주체시대의 주인공문제를 높은 경지에서 빛나게 해결하였다.

그것은 우리 문학이 주제사상과 그에 기초한 공산주의인간학이론의 요구대로 력사의 주체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과 그 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의 혁명의 주인다운 사상감정을 발전과정에서 진실하게 깊이 그려낸 데서 표현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성격의 진수와 투철한 수령관에 기초한 동지적인 인간관계를 깊이 감동적으로 그려낸 데서 표현되고 있다.

공산주의자의 성격의 규정성을 무엇으로 보고 그리는가 하는 문제는 공산주의자의 혁명가적풍모의 진수를 무엇으로 보고 그리는가 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공산주의자의 성격적풍모의 다양한 속성을 관통하는 질적규정성을 무엇으로 보고 그리는가 하는 문제이다.

바로 우리 당에 의하여 공산주의자를 공산주의자로 되게 하는 기본품성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있으며 그 충실성의 네가지원칙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문학은 공산주의자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그 최고표현의 경지에서 깊이 그려낸 공산주의인간학의 정화로 되었으며 공산주의자의 다양한 성격적풍모를 새로운 질적높이에서 깊이 그려낸 혁명적문학의 본보기로 되었다.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드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는 수령관이 밝혀지고 수령관에 기초한 참된 혁명적동지관계, 서로 믿고 아끼고 도와주

는 참된 사랑관계가 밝혀짐으로써 우리 문학은 수령관을 진수로 하는 참된 인생관과 참된 동지관계를 가장 높은 경지에서 깊이 밝혀낸 주체의 공산주의인간학의 본보기로 되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의 오중훈의 형상,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리경준의 형상, 영화문학 《조선의 별》(1, 2부)의 김혁, 차광수의 형상,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의 정순의 형상, 《군당책임비서》의 차석빈의 형상, 《월미도》의 리태운의 형상, 《열네번째 겨울》의 설경이의 형상, 장편소설 《축원》의 한증녀의 형상, 장편소설 《병사의 고향》의 오태삼의 형상, 이 모든 빛나는 인간형상들은 공산주의적혁명가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하는가 등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높이 밝힌 인간형상들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한 신념으로, 숭고한 의리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하나의 지향아래 서로 아끼고 믿고 뭉치는 동지적관계, 사랑관계를 맺고 살며 일하는 것이 가장 참된 인간의 삶을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감동적으로 그리고있는 이 충격적인 인간형상들은 인류의 혁명적문학이 이처럼 지향하던 이상적주인공의 본보기형상들이며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회관계의 원리를 구현하고있는 공산주의적인간의 본보기형상들이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삶의 신조와 의지를 격조높은 철학적인 주정으로 고도로 양양된 극치의 경지에서 노래한 명가사들인 《동지애의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우리의 신념은 하나》, 《못 잊을 삼일포의 메아리》, 《내 삶이 꽃피어난곳》,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실례가 또한 그것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이 세계혁명적문학의 본보기로 되는 징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문예방침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문학의 모든 부문, 모든 형태들이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고르게 높이 개화발전하고있는데 있다.

주체적문예이론이 밝혀준대로 문학이 온갖 낡은 것을 떨어버리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이며 시대적인 미감에 맞는 혁명적풍격을 갖추자면 내용에서 낡은 요소를 철저히 가셔버려야 할뿐아니라 형식에서 온갖 낡고 진부한 요소와 틀을 마사버리고 시대와 인민의 미감에 맞는 현대적인 풍격을 높이 갖추어야 한다.

우리 문학은 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키며 문학의 모든 형태들을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그 형태적특성을 올바르게 살릴데 대한 주체적인 문예

리론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모든 부분에 걸쳐 자기 발전의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문학은 모든 예술의 기초이다. 문학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예술의 모든 부문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미학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다.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가장 폭넓고 깊이 들어갈수 있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진 소설문학과 영화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을 시대와 혁명의 요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의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적적요구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대로 우리 소설문학과 영화문학은 인간의 혁명화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그리는 문학으로 됨으로써 자기 발전의 룡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그것은 우선 우리 나라에서 장편소설이 일대번영기를 맞이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그것은 장편소설이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주체시대의 영웅서사시적현실을 가장 폭넓고 깊이 반영할수 있고 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정, 혁명화과정을 조건성이 거의 없이 생활그대로 깊이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런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우리 소설문학이 사람들의 혁명화과정을 생활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주는 문학으로, 주인공의 뒤생활과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진실하게 그리는 문학으로 된것으로 하여 성격과 생활의 전모를 깊이 이해할수있는 가장 통속적이면서도 철학적으로 심오한 감동깊은 예술형태로 되었다.

영화가 극도로 상품화되고 흥미본위와 기교본위주의로 흐르고있는것으로 하여 영화문학이 독자적인 문학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문학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똑똑히 차지하지 못하고있는것이 세계적인 실례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적인 문예리론이 밝혀준대로 영화가 인간교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우리 식의 주체적인 영화로 발전하고 전반적인 예술발전을 추진하는 인간적인 예술로 높이 올라섬으로써 영화문학이 문학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형태로 주체가 선 우리 식 영화문학으로 류례없이 개화발전하고있다.

이것은 영화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키며 영화의 사상예술성을 담보하는 독자적인 문학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의 구현으로서 영화문학이 차지해야 할 지위와 역할을 밝혀준 빛나는 본보기로 되며 사회주의적영화문학이 나아가야 할

앞길을 열어준 귀감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명곡이 쏟아져나오고있는것도 가사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키며 명가사를 창작할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

리 가사문학이 자기 발전의 전성기에 들어선 사정과 관련된다.

《피바다식》혁명가극과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창작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가극문학과 희곡문학은 사회주의적가극문학과 희곡문학이 나아가야 할 앞길을 밝혀주는 고무적인 본보기로 되었다.

서정시도 산문화를 극복하고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구현함으로써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현실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일관된 정수적인 주정을 함축된 운물적인 시어로 간결하게 노래하는 심장의 충격적인 불꽃으로, 시대정신의 메아리로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아동문학도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함으로써 아동소설과 아동시를 비롯하여 동화, 우화 등 모든 형태에 걸쳐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서 개화발전하고있다.

이처럼 우리 문학은 모든 분야에 걸쳐 시대와 혁명, 인민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이며 현대적인 풍격을 높이 갖추으로써 혁명적문학의 본보기로 빛나고있다.

우리 주체적인 문학이 세계혁명적문학의 본보기로 되는 징표는 다섯째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문예방침이 가르치는데로 사상성과 예술성이 가장 높은 경지에서 조화롭게 결합된데 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준대로 우리 문학은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 현실을 민족적형식에 진실하게 담음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사회주의문학의 본보기로 되었다.

우리 문학이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을 가진 혁명적문학으로 높이 솟아올라 자기의 사상예술적 향기로 온 누리를 진동하게 하고있는것은 당정책에 맞게 형상으로 꽃피울수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서의 종자를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생활적으로 꽃피우고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현실에서 독창적으로 잡아온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는 작품의 높은 문제성과 철학적인 무게를 담보할뿐아니라 작품의 고상한 예술성을 담보한다.

우리 문학은 종자리론의 요구를 구현함으로써 사상적으로 높을뿐아니라 예술적으로 풍만한 철학적인 문학으로 되었다.

주체적인 문예리론에 의하여 처음으로 철학성에 관한 문예학적범주가 정립되고 그 구현방도가 밝혀짐으로써 우리 문학은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우리 문학의 고상한 예술성은 또한 전형화에 의하여 실현된 높은 진실성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진실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내용과 형식의 통일적인 관계에서 규정하고있는 주체적인 문예리론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문학은 인간생활의 본질, 합법칙성을 담고있는 내용에서 진실할뿐아니라 형식이 가지는 생활그대로의 모습에서 또한 진실한것으로 하여 사상성과 예술성의 확고한 통일이 담보되고있다.

우리 문학의 높은 사상성을 실현하고있는 고상한 예술성은 또한 감정조직을 극조직의 기본으로 하고있는 형상방법론과 생활의 본색을 뚜렷이 드러내는 형상의 정서적색갈로서의 양상을 잘 할데 대한 형상방법론, 생활을 성격중심으로 전체와 축적이 있게 그리며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 생활형상방법론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주체적인 형상방법론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문학은 성격중심의 생활문학으로 사상예술적감화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우리 문학의 높은 사상성을 빛나게 실현하고있는 고상한 예술성은 또한 당정책에 기초하고 집체적지혜와 결합되고있는 작가의 창발성으로서의 참다운 창작적개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고있는 그 독창성과 비반복성과 다양성으로 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을 바라던 인류는 우리의 주체적문학에서 그 본모기를 보게 되었으며 그 가장 높은 표현을 보게 되었다.

눈물없이 읽을수 없는 혁명적대작품인 《준엄한 전구》와 《백두산기슭》의 뛰어난 예술적성과 사람들의 심장을 불꽃튀게 격발시키는 명작 《동지애의 노래》와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서정시 《나의 조국》의 비상한 예술적감화력, 투

철하게 진실하고 극성으로 충만되고 예술적으로 세련된 대작 《열네번째 겨울》, 《월미도》의 획기적인 성과만 상기하여도 우리 문학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늠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주체적인 문학이 이처럼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으로서의 풍격을 전면적으로 깊이 갖춘 공산주의인간학의 정화로, 본모기로 빛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끝없는 보살핌을 받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와 끝없는 보살핌은 비범한 예지와 친어버이사랑 일관된 구체적인 지도이며 세심하고도 따뜻한 육친적인 보살핌이다.

작가와 작품을 아꼈데 대한 위대한 사랑-이것은 세상에 다시없는 전무후무한것이며 우리 작가들과 우리 문학에 대한 어버이수령님과 그이의 높이신 뜻을 받든 우리 당의 더없는 신임이며 사랑이다.

소설 한편, 가사 한편, 영화문학 한편을 두고 그 종자와 줄거리로부터 대사 한마디 세부 하나에 이르기까지 작품담으로 깊이 료해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지도와 사랑은 그대로 우리 문학을 주체의 공산주의인간학의 정화로 되게 한 생명력이다.

당과 수령의 어버이사랑과 비범한 예지속에서 태어나 빛을 뿌리는 여기에 우리 문학의 더없는 위력과 자량이 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대를 이어 충성다함으로써 공산주의인간학의 정화로 꽃피여 난 우리 문학의 본모기면모와 풍격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 가사

# 나가자 조선청년들

## 리광선

티.티의 기발 높이 날리며  
우리는 혁명의 첫걸음 떼었다  
수령님 따라 투쟁의 길에서  
우리는 혁명의 진리를 배웠다  
나가자 청년들 조선청년들  
주체위업 승리 위해 앞으로 앞으로

시련을 이기며 위훈떨치며  
우리는 혁명의 심장을 지녔다  
당중앙 따라 영광찬 길에서

우리는 혁명의 담을 키운다  
나가자 청년들 조선청년들  
주체위업 승리 위해 앞으로 앞으로

떠나온 기슭도 갈길도 하나  
해외 별만 따르는 청년전위다  
주체의 기치 따라 공산주의 끝까지  
온 세계를 떨치며 우리 가리라  
나가자 청년들 조선청년들  
주체위업 승리 위해 앞으로 앞으로

# 길이 빛나라, 주체사상탑이여

조허림

력사의 장강  
대동강 푸른 물결을 굽어보며  
창공높이 솟아오른 탑이여  
누리에 떨치는 그 기상  
승엄하야라!

쫓고 다듬어 백옥같이 흰돌  
한층 또 한층 쌓아올린  
아슬한 그 높이  
장중한 그 무게  
가늠할 길 없으랴

저 탑머리에 지펴올린 봉화는  
천만길 솟구쳐오른 지심의 불길인가  
세월의 눈비에도  
시들줄 모르는 영원의 꽃이런가!

그렇다,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휘황한 진리의 해불  
눈보라 만리 불길 만리 이어간 그 사상  
영생불멸할 혁명의 불꽃이여라

인민을 아끼시고  
민족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이 수령님의 하늘같은 그 사랑  
인류에게 안겨준 새삶의 궁지여, 행복이여!

혈전의 고비고비-  
백두의 설한풍 휘몰아치는  
사령부 귀틀집에서,  
은하수 기우는 우등불가에서  
지새우신 사색의 밤은 그 얼마이시랴

유구한 인류력사가 처음으로 모신  
강철의 령장 그이께서 창시하신  
백전백승의 그 사상-  
주체의 새시대는 밝아왔거니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되었으랴

아, 따사로운 수령님의 한품속에서  
짓밟혔던 인민의 존엄은 소생해  
꽃피고 무성하는 새삶의 기쁨이여!

그 기쁨, 그 희망 안고  
전세계 수억만 인민들도  
불굴의 힘과 용맹은 솟구쳐  
썩고 병들은 력사의 오물을 쓸어버리며  
자주의 한길로 달음쳐간다

얼마나 창창한가!  
인류의 리상세계 공산주의기슭으로  
거창한 력사의 닳은 올랐거니  
향로를 열어가는 우리의 미래는...

말로는 못다할 그 사랑  
노래로도 못다부릴 그 은정  
여기에 눈부시게 아로새겨  
거연히 일떠세운 영원한 기념비  
오. 주체사상탑 누리의 등대여!

바라볼수록 깊어지는 생각-  
인류사상의 보물고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그 위업 천추만대에 전하려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높은 뜻  
새롭게 안겨와라

승고한 그 뜻을 담아  
락원의 강기슭에 높이 솟은 탑  
그래서 저렇듯  
밤이나 낮이나 불타는 해불  
구만리창공에 치솟는것이 아니냐

길이 빛나라!  
만민의 축원속에 영원할  
은혜로운 사랑의 탑, 승리의 탑이여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 백두의 행군길

장문필

가도가도 끝없는  
밀림의 바다  
걸음걸음 뜨거운  
답사대의 길...

5호물동 꽃숲에 물든 마음을  
청봉의 달빛에 함뻑 적시며  
우리는 간다  
수령님 열어주신 백두의 길  
백두산이 굽어보는 혁명의 길...

웁기는 자옥마다  
웃는 저 꽃은  
이 길에 삶을 바친  
꽃다운 청춘들의 지지 않는 웃음이나  
목이 메누나  
죽어서도 이 기슭에 묻히고싶다던  
그네들의 뜨거운 숨결이  
우리의 발걸음을 떠밀고 가나부다

고산초의 향기속에

떠흐르는 그 숨결  
락엽에 파묻힌 오솔길에도  
눈에 삼삼 어리는 피어린 자옥...  
아하 조국의 한줄 흙과 바꿀 목숨 아니거든  
이 땅에 사노라고 말하지 말자  
삼가 디디는 걸음조차 황송하다

가자  
삶이 아름다와 죽음도 빛나는  
백두산의 행군길 투사들의 길  
수령님 따라 조선이 오고  
당을 받들어 조선이 가는 길  
충성의 만대가 이어지는 길

마음은 언제나 이 길에 있어  
우리 이 세상 끝까지  
가다가다 쓰러져도  
하늘땅 한끝에 쓰러져도  
백두산기슭에 영원할 전사의 삶을 지니련다!  
아, 백두의 행군길이어!

## 보천보 밤하늘밧을 걸으며

문기창

하늘에서 땅으로  
별들이 속삭이며 내리는가  
걸음걸음 높은뜻 새겨주는  
혁명의 성지  
보천보의 밤거리에...

그 밤이었다  
별빛마저 잃었던 저 하늘  
짓눌린 이 땅 이 거리에  
원한의 신음소리, 겨레의 통곡소리  
그칠줄 모르던 밤

그밤  
캄캄한 장막을 가르시며  
민족재생의 려명을 안고오신

만고의 려장 **김일성** 장군님

물소리 높은 가림천기슭  
여기 황철나무아래서  
번쩍 권총을 높이 드시여  
한방의 충성 높이 울리셨나니

아, 잠든 조선을 깨우며 세차게 울린  
한방의 그 충성따라  
원썬들에게 섬멸의 불벼락 안기며  
어두운 밤하늘에 타오른 화불이어

장군님 높이 쳐드신  
그 위대한 손길 우러러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조선의 심장은 고동치고있음을  
겨레의 가슴에 안겨주며  
타오르고 타오르던 보천보의 해불이어

병이 든 가슴마다  
재생의 빛발로 타오르던  
그날의 해불 추억만 그 불꽃들이  
저 밤하늘에 별들로 새겨졌는가

그 빛발 비껴  
조선의 하늘은 동터왔고  
그 빛발 안고  
광복의 새날은 밝아왔나니

이 밤  
나는 듣는다  
결을수록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그날의 그 이야기를  
보천보 밤하늘의 빛나는 별  
그 별빛 삶의 빛으로 받아안으며

아, 별, 별  
너는 언제나  
조국의 하늘에 반짝이며  
세월의 한끝까지 빛발쳐가리라  
영원히 아름답게...

## 신념은 기발이 되어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문성락

우러르면  
하늘가득  
장엄하게 솟아 펴려이누나  
붉은기발이어

쳐다보면  
따라서는 천만대오  
한길우에 드림없이 세우며  
진군으로 부르는 혁명의 기치

눈보라 불구름 헤치며  
쓰러진 전사의 어깨를 넘고넘어  
성스러운 혁명의 언덕을 향해  
쉬임없이 내려쳐온 길 몇천몇만리나

저 기발  
대오앞에 높이 날리시며  
위대한 수령님 압록강을 건너오신  
아, 잊지 못할 력사의 그 밤

가슴마다 소생의 환희를 안겨주며  
거세차게 타오른 해불  
이 땅에 덮인 어둠을 불태우며  
보천보의 밤하늘에 화광은 비졌나니

수령님 화전에 지피신 한점의 불꽃  
눈보라 만리 안고오신 그 불빛이  
보천보의 밤하늘에 해불로 솟아올라  
그날의 밤노율이 기발로 펼쳐졌는가

저 기발아래

변치 않을 맹세를 다지고  
사령부를 보위하며  
광복의 봄을 그리며  
죽어서도 기폭에 안기여간 력사들 그 얼마라

아, 붉은기  
너는 백두의 산발타고  
밀림의 바다를 헤쳐온 신념의 등대  
쓰러지면서도 숨지면서도  
목숨바쳐 안아지킨 혁명의 기치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세대는 바뀌어도  
붉은기 휘날리며 우리 가리라  
당중앙 받들어  
혁명의 행군길 한끝까지

저 기발 그 한끝이 물들어  
온 나라 아이들 가슴마다에  
희망의 넥타이 붉게 타오르고  
저 기폭에 타는 열정  
세 폭의 기발에도 붉게 어려  
대건설의 진군길에 나뭇기여라

아아, 붉은기 붉은기  
나도 그 대오의 전사  
한목숨 다 바쳐 길이 받들어가리  
혁명의 기발 교수하는 내 심장  
신념의 넋을 불태우며  
영생의 삶을 꽃피우며

## 주체형의 당일군의 참된 품모와 자질을 감명깊게 형상한 기념비적작품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를 보고)

백영철

우리의 혁명적영화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를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주체적문학예술발전력사에 또하나의 자랑스런 기록을 남기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는 주체적영화예술이 우리 시대 당일군의 전형창조에서 이룩한 혁신적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기념비적작품이다.

영화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 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주체형의 당일군은 어떤 품모와 자질을 갖추고 어떻게 일하며 생활해야 하는가를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 있다.

영화는 한 당일군의 형상을 통하여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간직하여야 하는가, 사람과의 사업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군중로선은 어떻게 관철하여야 하는가, 사업작풍은 어떻게 가져야 하며 가정혁명화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비롯한 여러가지문제들에 명백한 해답을 주었다.

참으로 영화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사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한 자랑스런 송가이며 우리 당일군들과 지도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참다운 교과서, 당사업독본이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가 이룩한 혁신적성과는 무엇보다도 주체형의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품모와 자질을 감명깊게 보여준것이다.

문학예술에서 당일군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자면 그에 맞는 사상미학적요구와 형상방도들을 깊이 연구파악하고 잘 구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창조에서 중요한 문제는 당일군으로서 가져야 할 숭고한 품모와 자질을 성격발전의 전과정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혀내는 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투쟁의 기수로서의 당일군의 사상정신적품모와 자질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간부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서》 112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당일군들의 마땅한 혁명적본분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을 강화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는 주인공 차석빈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주체형의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첫째가는 품모는 당과 수령에 대한 한없는 충실성이라는것을 생동하고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

군당책임비서 차석빈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밖에 모르며 오직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당과 수령님을 받들어나가며 언제나 당과 수령님의 은덕을 가슴깊이 새기고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에서 의도하는 문제라면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데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는 당일군의 전형이다.

차석빈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같이 하고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진짜배기 당일군이다.

군당책임비서인 차석빈이 군중우에 자기를 올려놓고 당도 안중에 없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발전소기사장 박우필을 보고 제 하나의 리의를 위해

서는 순간에 간신으로 변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장면은 당을 따르는 그 길우에 충신이 있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속에 간신이 있다는것을 깨우쳐주는 인상깊은 화폭의 하나이다.

《우리 당에는 동무와 같은 사람이 필요없소. 필요없단말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일신의 출세나 개인의 향락을 다 버리고 당과 운명을 같이할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당중앙을 따라서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영원히 한길을 따라갈 사람만이 필요한것이요!》

이 대사는 자신의 사색과 활동의 전부를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바치는 주인공 차석빈과 같은 일군들만이 할수 있는 대사이다.

당이 있어 자기가 있고 영원히 당을 따르는 그 한길에서만 일생을 충신으로 보람있게 살수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자각한 차석빈이었기에 그는 당이 아파하면 자기도 아파하고 자나깨나 당의 요구가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를 생각하며 룡산탄광 로동계급이 2천톤의 석탄을 증산하고 발전소로동계급이 점화로를 성공시켰을 때는 그것이 너무도 기뻐 《이제는 당에서 한시름 놓게 됐구나. 당에서...》라고 뜨겁게 말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차석빈의 뜨거운 충성심은 언제나 수령님과 당의 은덕을 가슴깊게 새기고 그에 보답하려는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기초하고있다.

차석빈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천대속에 살아온 지난날을 잊지 않고 자신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과 참된 삶을 안겨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전사의 의리를 다하려는 깨끗한 마음을 뜨겁게 안고 살아가는 참된 당일군이다.

차석빈은 열두살 어린 나이에 랑부모를 다 여의고 거지가 되어 버림을 받아오다가 해방후에야 비로소 인간의 참된 권리와 존엄을 찾고 당에 입당한 로당원이다. 하기에 그는 우리 당이야말로 자기 어머니이고 아버지이며 또 친형제라는것을 깊이 깨달았으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당을 더 잘 받들어야겠다는 한마음으로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것이다.

주인공 차석빈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덕속에 자신의 행복만을 찾으려는 자기의 딸 수영이를 준절히 타이르는 장면은 자기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오직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수령님과 당의 은덕에 대한 혁명전사의 의리를 그대로 펼쳐보이는 의의있는 화폭이다.

《자신보다 먼저 당을 생각하구 일을 할 때두 길을 걸을 때두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을 가슴에 새길줄 아는 사람만이 새시대의 청년이구 참된 인간이다.

...수영아! 넌 군당책임비서의 딸이다.

...책임비서가 인민에게 하는 소리가 다르구 제집안에서 하는 소리가 달라서는 안된다.》

의리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듯한 사람의 한품에 안아 어엿한 일군으로 키워준 아버지수령님과 당의 은덕에 보답하는 혁명전사의 의리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차석빈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녔기에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당이 바라는 문제라면 그것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다.

영화는 주인공 차석빈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해나가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차석빈은 기사장이 당에서 이미 정해준 탄광에서가 아니라 립접군의 다른 탄광에서 2천톤의 석탄을 받아오려고 하였을 때에도 《옥천강발전소의 석탄을 룡산탄광이 보장하라는것은 당의 방침이요. 그 누구도 이 방침을 어길수 없소. 오직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집행하는 길밖에 다른 그 어떤것이란 있을수 없단말이요.》라고 엄하게 비판하면서 당의 방침을 견결히 옹호한다.

주인공 차석빈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견결히 옹호할뿐아니라 불굴의 혁명정신과 완강한 투지, 불같은 정열을 가지고 온갖 난관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간다.

차석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푸는데 모든것을 집중하며 당이 아파하고 풀자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누워서도 잠을 자지 못하며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것처럼 느낀다.

그러기에 차석빈은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전력생산을 늘이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이고 당의 요구이라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새기고 정력적인 투쟁으로 석탄과 전력문제를 풀어나간다.

석탄문제를 풀기 위한 차석빈의 정력적인 투쟁 하나만을 놓고보더라도 그렇다.

차석빈은 석탄문제를 풀기 위하여 끝끝한 제대군인청년들을 탄광에 보내주고 사회적운동을 힘있게 벌려 소공구도 마련해주며 자기의 외동딸까



지도 탄부들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탄광마을에 떠나보낸다. 그리고 추가적인 로력과 설비를 요구하는 탄광지배인에게 생산의 예비는 바로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있다고 호소하는 한편 탄부들속에 직접 들어가 그들의 가슴마다에 충성의 열정과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심어주고 자신이 직접 착암기를 역세게 틀어잡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탄부들을 투쟁에 불러일으킴으로써 현존능력을 가지고도 2천톤의 석탄증산과제를 기어이 해결하도록 한다.

주인공 차석빈의 형상이 주체형의 혁명가, 충성의 전위로서의 전형적성격으로 친근하고 진실하게 안겨오는것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훌륭히 구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관철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해나가는 훌륭한 당일군으로 그려진것과도 관련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이 옳게 세워진 다음 사업의 성과적수행여부는 전적으로 일군들의 실지 사업방법여하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지각을 가지게 하며 그들의 지혜와 창조력을 남김없이 동원할수있게 하는 가장 힘있는 사업방법이다.

군당책임비서 차석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당이 아파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생산자대중이 일하는 아래에 깊이 침투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며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미더운 당일군이다.

25만키로와트의 전력생산문제를 풀어나가는 그의 사업방법과 일본새 하나만을 놓고 보기로 하자,

차석빈은 전력문제를 풀기 위하여 현장로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친숙하게 한데 어울리면서 실태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해결방도도 진지하게 찾아낸다.

그는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생활하는 과정에 수십년을 함께 일해오면서 충실한 사람으로만 여겨오던 기사장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어가고있다는것을 알고 그를 인내성있게 바로잡아주게 되며 태성목이 실은 들뜨고 《말썽》만을 부리는 청년이 아니라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 성실한 청년이라는것을 알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그의 창안을 성공하게 해준다.

차석빈은 생산자대중과 침식을 같이하며 생활할뿐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허심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해결해주며 그 과정에 자기자신의 혁명화도 다그쳐나간다. 주인공이 탄부들의 의견을 허심하게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심각히 뉘우치면서 그들의 제기를 끝까지 해결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장면들은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좋은 방도도 찾아내고 자기자신의 혁명화도 잘해나갈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준다.

차석빈은 또한 아래일군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해나가도록 인내성있게 이끌어주며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통산탄광지배인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우는 소리만 하고있을 때에도 차석빈이 행정을 가로타는것이 아니라 갱막장안에 들어가서 제대군인 청년들속에서 그들의 뜨거운 충성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지배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심각히 뉘우치고 개진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영화는 이처럼 주인공 차석빈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받드는 립장과 자세, 당정책을 관철하는 기풍과 일본새, 대중을 이끌어어나가는 방법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보여주면서 그가 지닌 어머니당의 당일군다운 품성과 겸손하고 소탈한 품모를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어머니당의 당일군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다시말하여 당성이다. 그러나 당일군은 말그대로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직업적인 혁명가인것만큼 당성과 함께 인간성도 있어야 하며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일군의 품모와 자질을 훌륭히 형상하자면 그들이 지닌 인간성과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주체형의 당일군이 지닌 중요한 품성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문제일뿐아니라 긍정적주인공의 전형창조에서 나서는 일반적요구이기도 하다.

군당책임비서 차석빈은 언제나 군중속에서 살면서 그들과 간격이 없이 소탈하게 지내며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줄뿐아니라 사람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참다운 당일군이다.

차석빈이 박우필의 독단과 편견으로 하여 깊은 고민에 싸여 자기의 창안을 포기하고 발전소를 뜨려고까지 한 태성목이를 대오의 앞장에서 나가는 적극분자로,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혁신

자로 이끌어준 감명깊은 장면들은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어머니다운 품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로 된다.

차석빈이 기사장 박우필에 의하여 공장에서 나간 최관배로인의 문제를 두고 것처럼 가슴아파하면서 기사장의 처사에 분격하며 로인을 찾아가 사죄까지 하는 장면 역시 일군들이 군중이 아파하는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뜨겁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감명깊게 가르쳐주는 의의깊은 하나의 예술적화폭으로 된다.

특히 차석빈이가 노동자들과 직접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 전력생산을 늘일데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는 장면과 차석빈이와 최관배로인 사이에 벌어지는 생활적인 대사들은 당일군으로서의 겸손성과 소박성, 소탈한 품성을 감명깊게 보여준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이처럼 당일군들이 지닌 어머니다운 품성, 인간성과 소박성, 겸손성 등을 다양한 인간관계속에서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진심으로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는 우리 시대 당일군, 진짜배기 당일군의 참다운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줄수 있다.

그런데 당일군의 인간성과 소박성, 겸손성을 보여준다고 하여 그 인물을 그저 《호인》적으로 형상해서도 안된다.

우리 시대 당일군들이 지닌 높은 인간성과 소박성, 겸손성 등 고상한 품모는 어디까지나 당적원칙에 확고히 의거하고 혁명적원칙성과 결합된것으로 하여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것으로 된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는 이러한 관점과 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 시대 당일군들이 지닌 숭고한 품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차석빈이 발전소기사장 박우필이가 당적원칙과 어긋나게 행동하였을 때 눈먼 우정에 빠지지 않고 원칙적립장에서 투쟁을 벌리는 장면들은 매우 인상적이다.

차석빈은 박우필이와 전쟁시기부터 한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옛전우이며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이지만 그가 탄광에 진출한 자기 조카를 빼돌리려 하고 최관배로인을 제멋대로 해임시키며 당의 방침과는 어긋나게 중유를 더 받아와야 25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수 있다고 할 때 그에게 원칙적인 동지적비판을 준다.

차석빈이 기사장 박우필을 보고 자기의 리익에 조금만 저촉되어도 언제든지 쉽게 변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준절하게 타이르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참으로 당적원칙에 기초한 혁명적동지애란

얼마나 고결한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혁명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는 뜨겁기때문에 더욱 원칙적으로 대하여야 하며 원칙적인 방조를 주고받기때문에 보다 뜨겁게 결합되는 그러한 동지적관계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가슴깊이 느끼게 된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가 이처럼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는것은 또한 이 영화가 심오한 사상정치적내용을 높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보여준 사정과도 관련된다.

영화는 주체형의 당,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선 우리 당의 건설과 당사업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환의 내용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전당이 하나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주체의 혈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순결하게 이어나가는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갖추게 되었다.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어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품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당일군들이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전진하는 과정에 수많은 당일군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났으며 그들이 일하는곳마다에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맥박치고 사람들은 모두다 당의 부름따라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다.

영화는 우리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일어난 바로 이러한 전환의 내용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영화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그것을 높은 정책적안목으로 깊이있게 풀어나갔으며 우리의 현실을 왜소화하거나 미화분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가 이룩한 훌륭한 성과는 창작적대담성과도 관련되어있다.

창작은 말그대로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인 사업인것만큼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대담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우유부단한 창작태도를 가지고서는 우

리의 위대한 현실에 대한 확고하고도 옳은 판단을 내릴수 없으며 소심한 사고로써는 창작을 통이 크게 독창적으로 벌어나갈수 없다.

영화에 담겨진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이 왜소화되거나 미화분식되지 않고 진실하고 생동하게 안겨오는 까닭은 창작가가 당일군의 전형창조에서 대담성을 발휘한데도 있다.

영화는 또한 주인공 차석빈을 비롯하여 최관배로인, 기능공 태성목, 3대혁명소조원, 제대군인탄부 등 긍정인물들과 발전소 기사장과 탄광지배인 등 보수주의자, 소극분자들사이의 첨예한 사상투쟁, 예리한 갈등을 통하여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속에 투쟁이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 이와 함께 영화는 정치생활, 당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가정생활 등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면서도 형상을 집약화, 집중화함으로써 대작으로서의 품격을 훌륭히 갖추고있다.

영화는 대사형상에서도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뜻이 깊고 생활적이며 인간성격을 특징짓는 대사는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다시한번 입속으로 뇌이고싶고 그럴수록 그 깊은 뜻이 안겨오는 대사는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그대로 담보하여주며 주인공들의 성격적특징을 그만큼 더 깊이있게 보여준다.

영화에는 당의 정책적요구들이 옳게 반영되고 철학적인 의미가 깊이있게 반영된 명대사들이 적지않게 담겨져 있다.

차석빈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과 한가정을 이루게 될 원철이를 처음 만났을 때 석탄과 전력생산을 보장하지 못하는것이 마음에 걸려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것 같구...자리에 누워도 잠을 못자네.》라고 한 대사, 탄광지배인이 석탄증산과제를 애당초 타산없이 받는데 문제가 있는것처럼 생각하면서 《당앞에 할수 없는것을 하겠다고 한것은 비당적이지요?》라고 하였을 때 차석빈이 《할수 있는것을 못하겠다고 하는건 반당적이지요.》라고 한 대사들을 비롯하여 영화에 담겨진 대사들은 자주적인 인간의 정치적생명을 더욱 빛내어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있으며 생활의 심오한 진리를 함축되고 세련된 말로 표현한 명대사들이다.

영화는 특징적인 생활세부가 가지고있는 표현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데서도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생활세부들에 깊이 파고들어가 인물들의 성격적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줄수 있는 특징적인것, 전형적인것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것을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예술적효과를 나타내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에 설정된 세부들은 생활세부들을 그리는데서 나서는 미학적요구들을 훌륭히 실현한 생동한 세부들이다.

차석빈이가 기쁨때가 반질거리는 최관배로인의 모자를 보자 홀로 사는 로인의 모습이 더욱 가깝해보여 자기의 모자를 넘겨주는 세부,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 오른 태성목의 두툼한 공책, 차석빈이 그 공책에만 정신이 팔려 자기 딸이 차잔을 들고 들어와 권하는것도 모르고있다가 미분탄화실 착화제로 중유대신에 갈탄으로 쓸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너무도 기쁜김에 책상을 치다가 차잔을 엎질러놓는 세부와 태성목이 차석빈을 공중 들어올리며 그렇게도 기뻐하는 세부 등은 생활의 본질과 인물들의 개성적특징을 생동하게 드러내는 표현성이 강한 세부들이다.

특히 태성목의 100가지 기술적창안이 적혀있는 학습장은 특징적이며 표현성이 강한 생활세부를 설정하고 그리는것이 작품의 사상예술적품위를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미치는가 하는것을 실증해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 생활세부에는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관철하는것을 자신의 신조로, 사업에서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고있는 차석빈의 참된 모습이 비껴있을뿐아니라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는 생산자대중이 얼마나 지혜롭고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생활의 진리가 번득이고있다. 또한 이 세부는 기사장 박우필이와 같이 일군들이 군중을 무시하고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우지 않으며 자기의 지식과 기술에 자만도취하고 자고자대한다면 개인영웅주의와 소충명이 생기고 공명심이 썩트게 되어 나중에는 당도 몰라보게 된다는것을 깊이 뉘우치게 하는 뜻의 깊은 세부이다.

작품에 주어진 생활세부는 이처럼 하나에서 백을 보여주고 백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를 골라 잡고 집중적으로 그릴때만이 그것이 가지고있는 표현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할수 있다.

참으로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우리 당의 건설과 당사업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환의 내용을 차석빈을 비롯한 주인공들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준 기념비적대작이다.

작가들은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가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에 토대하여 80년대의 김혁, 차광수들인 우리 당일군들의 참된 풍모를 격조높이 노래한 작품을 더 많이 내놓음으로써 우리문학의 인식교양자적, 사회동원자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할것이다.

## 곤장덕에서

김병만

어떤 땅에  
내 태어났는가  
어떤 조국에  
내 살고있는것인가

아노라하면서  
다는 몰랐었구나  
네앞에 고백하노니  
곤장덕이여

늘쌍 밟는 땅  
만날 보는 산천이래서  
무심히 밟은적은 얼마  
무심히 본적은 또 얼마?

그날의 항일투사들  
이 풀숲에 마구 덩굴은 마음  
한줌 흙  
가슴속에 소중히 품고 떠난  
그 사랑

이 땅에 태를 묻고  
이 강산에 살아숨쉬는 목숨  
그것을 잇는다면  
오호, 순간이나마  
잇었다면...

가사

곤장덕  
아, 곤장덕  
우리 수령님 대오를 이끄시고  
잠시 머무시였던곳에서  
한생을 돌이켜보노니

기쁘다 하기에는  
깨달음이 늦었고  
아프다 하기에는  
깨달은것 너무 커

다만  
풀숲에 덩굴은 그 마음  
한줌 흙 품고 떠난 그 사랑  
뜨겁게 새겨안노니

삶의 순간순간에  
무심한 시내물과  
말못하는 숲에조차  
그 마음 그 사랑 쏟으며  
언제나 조국에  
불을 비비며 살리라  
다잡는 마음  
가슴속에 불타올라라  
아, 불타올라라!

## 숙영지의 접동새

안정기

은하수도 기우는 숙영의 한밤  
녀전사는 사령부 안녕 지키네  
장군님 조국안고 잠못드신다  
접동접동 접동새야 울지를 말아

이슬내린 밀림에 밤은 깊어도  
광복의 그 불빛 꺼지지 않네

장군님 회살표들 그어가신다  
접동접동 접동새야 울지를 말아

교대없는 보초로 사령부 지켜  
녀전사 지낸 밤 그 얼마더냐  
장군님 모시고 조국에 가자  
접동접동 접동새야 동이 터온다

## 은혜

오창수

입김이 풀풀 날리는 겨울날이었다.  
상점에 물고기가 왔다. 쫘쫘 언 동태와 가재미가 앞마당에 무드기 쌓였다. 그것을 가운데 두고 어린아이들 몇이 숨박꼭질을 했다. 어른들은 부산스럽다고 그 애들을 쫓아버렸다.

물고기는 곧 세대별로 나누어주었다, 집집마다 소발구와 손달구지, 썰매 그리고 가마니와 마대, 버치 같은 그릇들을 가지고 나와서 물고기를 받아갔다.

상점책임자 주진옥은 책상을 하나 내다놓고 전표를 떼고 판매원 리순임은 얇은 저울에 물고기를 달아주었다.

순임이는 물고기를 담아주고 달아주고 맞들어주며 섯돌아치느라고 그 추운 날씨에도 얼굴이 화끈달아 익은 복숭아처럼 붉어졌으며 이마에서는 더운 김이 서렸다.

그의 손에 낀 장갑은 물고기를 다루느라고 꺼매지고 평 젖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벗어놓았다.

한 녀인이 《에-맨손으로 어떻게?》 하고 그를 걱정했다. 순임이는 《일없어요.》 하고 흰 이를 반짝 빛내며 웃음을 띠웠다. 그리고는 《아이, 숨웃두 벗어야겠다. 둔하고 거치장스러워서 도무지.》 하고 명랑하게 말하며 다우다직숨저고리를 벗어놓았다.

《저런, 감기 걸릴라구》, 《일없어, 건강체인데 뭐.》 이런 말과 함께 여럿의 유쾌한 웃음이 일었다. 순임이도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같이 웃었다. 모든 사람들이 더한층 다정하고 친근한 감정에 젖어들며 그를 여겨보았다.

유별나게 길게 휘여오른 속눈썹, 귀밑의 맑은 살결, 해사한 얼굴생김에 비해 손이 크고 팔과 다리, 온몸이 실했다. 그런데도 몸놀림은 가벼워 그가 신은 편리화는 신이 아니라 무용카바처럼 가든가든해보였다.

그의 맑은 목소리와 가벼운 동작, 그것은 말그대로 노래하고 춤추는것 같았다.

주진옥은 몹시 추워했다. 그는 산모처럼 삼각털수건으로 눈과 코, 입만 보일 정도로 머리를 둘러매고있었다. 순임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활기에 넘쳐있는데 그만은 얼굴이 파르스름해서 웃음은 물론 군말도 없었다.

물고기를 담을 때 일부 손님들은 될수록 크고 알배고 상하지 않은것만을 골라담으려고 했다. 그래서 순임이는 이렇게 말했다.

《고르지 말고 담자요. 나중엔 부러진 대가리와 꼬리로막만 남겠어요. 누구넨 좋은것을 가져가고 누구넨 나쁜것이 차례지고... 그래선 되겠어요?》

누구든 물고기를 고르는 눈치가 보이면 순임이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일러주곤했다. 그것이 주진옥에게는 좋았다. 자기가 직접 물고기를 달아주는 경우에 잘 알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기가 얼마나 박절해보일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리당비서의 안해 리옥분이 인민반학생인 막내아들 성철이와 함께 썰매를 끌고 왔다. 그러자 주진옥은 오래간만에 웃음을 띠웠다. 성철이는 히죽히죽 웃으며 주진옥이 가까이 다가갔다. 주진옥은 《이너석 장난꾸러기》 하고 아래입술을 깨물어 우정 무서운 표정을 지어보이며 성철이의 귀를 잡아당겼다. 자기를 고와한다는것을 잘 아는 성철이는 싱긋 웃고 주먹을 들어 휘두르며 주진옥에게 지분거렸다.

리옥분은 아들애에게 눈을 흘겼다.

《또 또! 버릇없이!》

주진옥에게 접어들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던 성철이는 누군가 찾는 소리에 뒤로 돌아보았다. 눈부시게 환한 처녀 계춘화가 마대를 들고 가까이 다가서면서 그를 부르는것이였다. 춘화는 성철이의 머리우에 손을 얹고 소리없이 방긋 웃는것으로, 성철이는 목을 움츠리며 춘화의 손가락을 잡아비트는것으로 서로 반겼다. 춘화는 주진옥에게 그리고 리옥분에게 눈웃음을 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물기젖은 눈, 작은 입술, 약간 알릴듯 말듯한 군턱 그 모든것이 아릿다웠다. 어깨와 등뒤에 굵실굵실 드리워진 머리칼은 아무렇게나 그냥 내버려둔것 같은데 아주 자연스러웠다. 워낙 생김새도 고왔지만 멋을 낼줄도 아는 처녀였다. 주진옥이도 그를 바라보았다. 평시에 그만을 따로 볼 때에는 몰랐는데 맞대 놓고보니 순임이보다 훨씬 더 환했다.

춘화의 손을 잡고 그의 몸에 기대고있던 성철이

는 갑자기 그에게서 떨어져서 뛰어가며 《삼촌》하고 소리쳤다. 낮모를 청년이 마주오며 그의 손을 잡았다.

《왜? 물고기 날라가자구? 내 가져가잖으리.》

리옥분이 이렇게 말하자 청년은 말없이 웃음을 띠었다. 모두 그에게 눈길을 보냈다.

눈, 코, 입 그리고 키 무엇이나 큼직큼직하고 잘 생긴 남자였다.

주진옥은 전표를 쓰던 손을 멈추고 낮은 소리로 물었다,

《동생이나?》

리옥분은 머리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다.

《휴가받구 왔어.》

《생김새가 비슷해 언니하구, 어디 있게?》

《멀어. 저-기 함남도 바다가 중학교 교원.》

《좋은데 있구만, 아직 미혼이라지?》

《좀 소개하겠지.》

《여기 촌처녀들을 웬걸 보거나...》

《아니 안그래.》

두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여러 사람이 들으면서 웃음을 짓고 선망의 눈으로 청년을 보았다.

청년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어색한 립장을 면하느라고 성철이의 팔을 잡아 자기 주위로 한바퀴 빙그르 돌리었다.

주진옥은 리옥분에게 전표를 떼주었다.

곧 물고기를 담기 시작했다. 리옥분은 물고기를 고르지 않고 한쪽에서부터 손에 잡히는대로 담았다. 순임이도 그렇게 했다.

춘화가 그들의 일을 도와나섰다. 리옥분이 그더러 공연히 손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이르자 춘화는 방긋 웃었다.

《일없어요. 손이야 씻으면 되구, 아무래무 이따 또 만지겠는데요뉘.》

춘화는 삼태기에 담기는 물고기를 보다가 《아이 이런걸 다...》 하고는 토막난것들과 부스러져 너슬너슬한것들을 골라냈다.

이때 순임이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춘화, 그렇게 자주 골라내면 어떻게 하니.》

춘화는 순임이를 쌀쌀하게 흘겨보고는 방긋이 웃으며 주진옥과 청년, 리옥분을 번갈아보았다. 주진옥은 마주 웃고 청년은 외면하고 리옥분은 정색해졌다.

춘화의 소행과 순임이의 립장을 알아챈 리옥분은 《그렇게 하면 안되지뉘.》하고 이미 골라낸것들을 다시 주어담았다.

이때 주진옥이 한마디 했다.

《성철이 엄마, 그걸 뭐 또 담나, 내놔요, 내놓으라니까.》

《일없어. 손질만 좀 하면 돼. 아무래두 다 토막

을 내야 하겠는데뉘.》

리옥분은 이렇게 듣기 좋게 말하며 웃었다.

리옥분네 일행이 가고 춘화도 물고기를 타간후 사람들이 좀 뜸해졌을 때 주진옥은 순임이에게 언지시 편찬을 했다.

《야- 넌 어찌면 그렇게 눈치없이...》

《뭘요?》

《아까말야. 성철네 왔을 때.》

《뭐 어쨌나요? ...》

주진옥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일을 그르친 어린애를 보듯이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말없이 순임이의 발치를 내려다보았다.

순임이는 의아한 눈길로 주진옥을 보았다.

주진옥은 무슨 말을 더 할듯하다가 외면하고 말았다.

이때 주진옥의 머리속에 떠오른것은 2년전의 일이었다. 이곳 상점판매원이 이웃농장으로 시집을 갔다. 군상업관리소에서 판매원을 할 알맞춤한 대상을 리에서 골라보라고 하였다. 처녀들은 많지만 맞춤형 사람을 고르기가 조런치 않았다. 주진옥은 여러모로 보아 계춘화가 그중 낫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잘하고 인물도 환하지만 인정이 있고 삼삼해서 좋겠다고 그는 말했다. 관리위원장과 기사장, 리사무장도 그에 동의해나섰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로 된것은 도에 강습을 간 리당비서가 이 일을 모르는것이였다. 그래서 리당비서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보름후에 리당비서가 왔는데 그 리에서 이미 초보적으로 점찍어놓은 판매원대상자를 그리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자기로서 적임자로 보는 사람을 짚었다. 리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있는 처녀 리순임이였다. 이미 판매원대상자 선정에 관여했던 사람들 특히 주진옥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여러 사람을 꼽아보았지만 순임이만은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리당비서는 순임이가 일도 잘하고 조직생활면에서 누구보다 모범이 되는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어딘가 성실한데가 있단말이요. 성실한데가.》

그렇게 성실한 우점이 있다는것을 주진옥은 그 후에 느꼈다. 그러나 때로는 지내 고지식한 성미(이것을 주진옥은 좋게 보게 되지 않았다.)가 있으며 인정사정도 모르는 사람같이 무뚝뚝한 약점이 있다는것도 보게 되였다.

주진옥은 처음에 춘화가 판매원이 되지 못하는데 대하여 저으기 섭섭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일단 순임이가 판매원으로 났으니만큼 그와 손을 맞잡아 일을 잘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속을 주고싶고 정을 나누고싶어졌다. 그런 나머지 그는

순임이가 판매원이 되기까지의 사실을 본인에게 그만 다 터쳐놓을번도 했다. 그러나 그런 말은 본인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내돌리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채실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는 이렇게 한마디 비쳤다.

《순임이 넌 모르지? 자기가 어떻게 판매원이 됐는지. 리당비서동진 널 아주 좋게 보고 있더라.》

주진옥은 그때 자기가 한 말을 순임이가 새겨들었는지 흘려버리고말았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이제와서 그런 내용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싶지는 않았다 순임이가 그런것을 아직 모르고 있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눈치가 무더서일까? 아니면 거만해져서일까?)

주진옥은 더욱더 의문스러웠다.

이틀후 마을에 새 영화가 왔다. 관람자들이 많았다. 회관에는 빈자리가 없을뿐아니라 뒤에는 더러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주진옥, 순임이네가 앉은데로부터 앞으로 세번째줄, 리당비서와 관리위원장이 앉은 긴 의자는 한사람쯤 더 들어앉을 자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자리에 끼우자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얼마후에 그 의자옆에 순임이 아버지가 와서 《위원장동무, 안으로 좀 조임시다래.》 하고 서슴없이 말했다. 맨 옆자리에 앉아있던 관리위원장이 리당비서쪽으로 조여앉았다. 그런데 리당비서는 반대로 관리위원장의 옆구리를 떠밀어 자기옆에 빈자리를 냈다.

《이리 들어오슈다. 내 그렇지 않아도 한번... 어서 여기루.》

순임이 아버지는 관리위원장의 무릎을 심하게 건드리며 그의 앞을 지나서 리당비서옆에 풍덩 들어앉았다.

영화상영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다. 남자들의 굵은 목소리와 너털웃음, 처녀들의 조심스러운 말소리와 맑은 웃음소리, 아이들의 싸부랑대는 소리가 뒤섞인가운데 리당비서와 순임이 아버지가 주고받는 말소리가 주진옥, 순임이들에게까지 들려 왔다.

처음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얼마나 가져갔는가, 그걸 언제 다 먹겠는가, 해마다 이렇게 물고기를 들이밀어주니 얼마나 좋은가 하는 말들이 오고갔다.

《옛날 해방전에야 어디 이 산골에서 물고기 구경이나 제대로 했소.》

《구경이 다 뭐요.》

《참, 내 그렇지 않아도 옛그제 옛날 생각이 납니다. 순임이가 물고기 나눠주느라구 팔소맬 건어붙이고 돌아가는걸 보니.》

《.....》

《생각나시우?》 하고 리당비서는 물었다. 《아 이때 지주령감태기한테서... 대통으로... 머리를 딱! 하고 얻어맞던...》

《언제요?》

순임이아버지는 웃음을 거두었다.

《웬걸 생각이 나겠소. 그게 바로...해방되기 전에... 아니 전전해졌수다.》

《아니 그럼 비서동무가 어떻게? 누가 그러니까?》

《누가 그런 소릴 하겠소. 내가 본 얘기지.》

《아-니 그럼, 비서동무가 그때... 아하 옳수다!》 순임이 아버지는 리당비서의 무릎을 소리가 나게 탁 쳤다. 《비서동무가 그 집에서 머슴을 살았지.》

가까운 자리에 앉은 사람들 특히 주진옥, 순임이는 두사람의 말에 귀를 강구였다.

《벌써 몇십년전 일인데두.》 리당비서의 말이였다. 《엇그제 상점에서 물고기 나눠주는걸 보니 피득 그 생각이 나드라니까. 저 애 아버지는 물고기장사군이 지주네 집에 와서 대문앞에 광주리를 내려놓고 흥정을 할 때 하두 신기해서 염조기 꼬리를 한번 다쳤다가 지주령감태기한테 대통으로 얻어맞고 피가 터졌는데 저 애는 오늘 산더미처럼 물고기를 쌓아놓고 체손으로 맘대루 만지누나... 하고 생각하니 그만 눈물이 쑥 나오구 별생각이 다듭니다.》

《허허허.》

순임이 아버지는 다시금 리당비서의 무릎을 치며 꺾꺾 웃었다.

그다음 어째선지 두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쓰라린 과거생활을 더듬는가싶었다.

《참 그때, 어떻게나 미안한지...》 하고 리당비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조기 굵는 냄새에 나갔던 머느리도 다시 온다는데...그 냄새는 왜 그리 요란한지... 온 골안에 짹 차는데 구경도 제대로 못한 동네 사람들에게 참 어떻게나 미안하고 죄스러운지...》

《그래 비서동문 구운 조기를 좀 맛봤소?》

《하- 맛이 다 뭐요. 나 역시 코에만 풍년이였지.》

《그러면서 뭘?》

《그때 그 집 아버지가 되게 앓고있지 않았소.》

《기억두 좋수다!》

《그때 말 들으니까 입맛이 없어서 죽물두 한술 뜨는동안하신다구 하더구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두 잊지 않구?!》

《잊을수가 있소, 조기를 다문 한마리라도 갖다 주었으면 하고 속을 태우던 일인데...》

《거 생각이 고맙수다.》

《허허, 고마우니 뭘하오. 생각뿐이었지. 맘뿐이었다니까.》

두사람은 마주 웃었다.

얼마후에 리당비서는 순임이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했다. 순임이아버지는 자기 주머니에 손을 찔렀다.

《나두 있수다.》

《자- 내걸 좀... 이걸 다르다니까.》

리당비서는 담배 든 손을 더 내밀었다.

《어디?》하고 순임이아버지는 웃으며 담배를 받아서 들여다보았다. 《뭘 비서동무두 내 수준이나 갈구만뭘.》

《그래두 다르지요. 내가, 내가 권하는거니까. 그전엔 내 아무것두 주지 못했어두...》

《하긴...》

순임이 아버지는 감개무량한듯 담배를 든채 리당비서를 쳐다보며 웃음지었다. 그는 곧 담배를 입에 붙였다. 리당비서는 제격 불을 켜댔다. 순임이아버지는 한모금 들이켜서 길게 내뿜고 그 담배연기속에 그 무엇이 아득히 보이는듯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쳐다보았다. 리당비서도 그렇게 했다. 리당비서는 또한번 깊이 들이빨다가 《아차!》하고 몸을 흠칠했다. 《장내에서 이거!》

《그렇구만!》

두사람은 담배불을 켜다.

영화가 끝난 다음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면서 영화의 내용과 배우의 연기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들에 대해서 말했지만 순임이와 주진옥은 그들과는 다른 말을 했다.

《순임이, 난 많은걸 느꼈어. 리당비서동진 어려서부터 동네사람들, 더구나 너희 아버지, 너희네 집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했더구나. 정말 인정있는 분이야. 순임이두 그걸 느꼈지?》

순임이 역시 깊이 생각에 잠기는듯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비서동지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걸 느꼈어. 특히 나는...》

《그럼! 너야 또 나보다...》하고 주진옥은 순임이의 생각을 더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서둘러 받아넘겼다. 《나보다두 가슴쓰겁게... 느끼겠지. 리당비서동지가 얼마나 고맙니. 옛날에두 또 지금에두... 근데 순임인... 그런걸 별로 느끼지 못하는것 같애... 그렇지 않아?》

《나요? ... 그런데 난 사실...》

순임이는 떠듬거렸다.

《그런덴 무슨 그런데야? ...》

주진옥은 툭 쏘았다.

순임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미처 대꾸를 못했다. 주진옥이네 집쪽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서서 두사람은 곧 헤어지게 되었던것이다.

어느날 저녁 퇴근하는길에 순임이는 주진옥을 자기네 집으로 끌었다. 그날은 순임이의 생일날이었다. 밤늦게 돌아가는 주진옥을 순임이는 멀리까지 배려해주었는데 그들은 나직이 혹은 크게 웃으면서 생활상의 세세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순임이, 이런 저 좀 생각해봤어?》하고 주진옥은 불쑥 물었다. 《만약 손님이 상점에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걸로 골라준다고 하자. 이때 네가 옆에 있다가 <그렇게 골라주지 말라요.> 하고 나더러 한마디 쏘아준다면. 이런 때 그 손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너를 어떻게 볼것 같애?》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순임이는 대답했다.

《언니두 참, 문제를 과연 별나게 보네. 내가 그랬다고 해서 좋잖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진옥은 수수께끼문제와도 같은 자기 질문의 뜻을 순임이가 재빨리 알아챘다는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생각한바를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물론 원칙적으로 네 태도가 옳아. 옳지만 생활이란 그렇게 단순친 않아. 사람들은 흔히 자기한테 좋게 구는 사람은 좋다고 하기 마련이니까.》

《글쎄 더러 그렇기는 하지만.》하고 순임이는 지체없이 대꾸하였다. 《리당비서동지넌 그렇지 않아요. 요먼저 리당비서동지가 길에서 만나 어떤 상품이든지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줘야 한다구 이르기엔 명심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 물고기도 골고루 분배했다고.》

《그래?》주진옥은 걸음을 멈추었다. 《뭘 어떻게 말했게?》

《더러 좋은것만 고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길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지요 뭘.》

《뭘?! 그럼 네가 그때 이야기를 다 말했니?》

《그렇게까지야 뭘...》

《글쎄, 그렇다면 몰라도.》주진옥은 안심했다. 그는 다시 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던?》

《자기도 이미 얘기 들었는데 그게 바로 당적이고 인민적인 봉사일군의 태도라고 하지요뭘. 어께가 막 떨어지는줄 알았어요. <잘했소. 참 잘했소!> 하고 말이예요.》

순임이는 리당비서가 하던대로 주진옥의 어깨를 소리가 나게 탁탁 쳤다. 그리고는 유쾌하게 웃었다. 주진옥이도 따라 웃었다.

《언닌 진짜 잘못 생각해요.》하고 순임이는 다시 입을 열었다, 생각해볼수록 어이가 없는 모양이었다.

《글쎄... 내 생각이 너무 지나치나...》



《우리 비서동지네가 우선 그럴 사람이 아니고,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런데 발라맞추고 눈치를 보느라고 비원칙적으로 일해서 되겠나요!》

《그건 그래...》

주진옥은 집에 돌아가서 곧 자리에 누웠으나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는 생각했다.

(옳아, 누구에게나 팔고루... 그건 옳아.)

주진옥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순임이에게 무엇인가 그릇된 것이 있으며 그래서 그에게 무엇인가 일러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다.

어느날 주진옥은 길에서 리옥분을 만났다.

《동생문제말이야. 요먼저 내 말했지.》하고 리옥분은 불쑥 말을 꺼냈다. 《어드래? 난 순임이를 생각해봤는데...》

주진옥은 리옥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인차 알아챘다. 그의 동생이 상점에 나왔을 때 얼핏 한마디 비쳤던 것을 그후 좀더 깊이 의논했었다. 그때

리옥분은 순임이가 어떻겠는가 하는 의향을 내놓았으나 주진옥은 순임이도 괜찮지만 그보다 계층화가 인물도 좀 낮고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서 더 합당할 것 같다는 뜻을 내놓았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주진옥은 어쩔선지 그때와는 달리 자기 역시 순임이가 그 청년에게 짝지지 않는 훌륭한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까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가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내놓았다.

《순임이가 괜찮지요 뭐.》

《그만한 처녀없지. 리적으로.》

리옥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주진옥과 초보적으로 생각의 일치를 보자 자기 속심의 말을 다 꺼냈다. 동생이 순임이를 은근히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 며칠전엔 상점에 나갔던 그때 순임이와 춘화를 동시에 보았는데 순임이에게 더 마음이 끌렸다는 것, 남자들은 인물을 많이 본다는데 참 눈도 별나다는 것, 우리는 그 애들의 맘이랑 속내를 다 잘 알기때문에 그렇다쳐도 한번 본 것이 그리하니 참 신통도 하다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주뭇주뭇하다가 주진옥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야-참, 그런데 속상해 죽겠네.》

《왜요?》

《저희 매부가 반대하지 않나.》

《비서동지가요? 왜요?》

《모르지 뭐, 이전엔 늘 순임이 칭찬해왔는데 요즘 혼사문제가 나서니까 그러잖나. 특별한 리유도 내놓지 않구 그저 한마디 <꼭 그 자리밖에 없겠소?> 이러잖나.》

《그래요? 그 집에선 우선 비서동지가 응해나서

야 순임이네쪽에 두 말을 비쳐보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사날 후에 동생은 가겠다는데, 휴가기일 두 다 끝나가니까.》

이렇게 말하며 리옥분은 한숨까지 쉬었다. 그는 동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이거나 한 것처럼 그렇게 절절히, 애타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주진옥은 처음 그것이 우습게도 생각되었지만 그 심정이 그대로 자기에게 옮겨져 은연중 그 자신의 일처럼 마음을 쓰게 되었다.

리옥분은 자기는 갈수록 순임이가 마음에 드는데 성철이 아버지는 반대니 도저히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며 주진옥의 눈치를 살폈다. 주진옥은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순임이 정말 착실한 처녀인데...》

《글썸말이야.》

《비서동지한테 순임이 칭찬을 좀 하라고.》

《했지. 판매원을 하기전 얘기, 판매원된 다음에 일 잘하는 얘기...》

주진옥은 지난날을 더듬어보았다. 상품공급이나 기타 사업과 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밖에도 그가 모르는 일들이 더 있었을 것이었다.

(글썸 그럴테지. 그런 것들을 걸로, 사업상으로는 좋게 평가하겠지만 속으로, 감정상으로는 고깝게 여길 수 있지. 리당비서동지 두 역시 인간이니까.)

사흘후였다. 군상업도매소에서 전화가 왔다. 텔레비존수상기와 데트론천, 솜신발이며 버치와 남비 등 늑제품이며 여러가지 상품들을 실어가라는 것이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농기계작업반에 가서 차를 받아서 실어오라고 했다. 화물자동차는 탁아소, 유치원에 땔나무운반을 위해서 이미 나갔었다.

순임이와 주진옥은 땔나무를 나르고 있는 자동차를 앞질러 만났다. 읍에 가서 상품을 실어오자는 말을 듣고 운전사는 매우 난감해했다. 차는 지령된 일은 끝났지만 이제 리당비서네 집에 땔나무를 실어다주려는 참이라는 것이었다. 순임이는 운전사에게 나무는 매일 싣고 우선 상품부터 가져오자고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운전사는 문을 닫았다.

순임이는 자동차에 오르려고 문을 열었다. 주진옥이 뒤에서 그의 옷을 잡아당겼다. 그러거나 말거나 순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운전사는 순임이의 손을 탁 쳐놓고 문을 닫았다.

부르릉! 하고 사람을 와뜰 놀래우는 발동소리와 함께 차가 막 움직이려 했다. 순임이는 문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면서 발디디개를 찾아 한발을 짚고 냉큼 올라섰다. 차가 급히 멎더니 운전사의 머리와 함께 성난 목소리가 창밖으로 튀어나왔

다.

《죽자구 그러우?》

《살자구 그래요!》순임이의 목소리도 그에 못지 않았다. 《잘살자구 그래요, 온 동네 사람 다!》

《하 이거 참...》

운전사는 씩웃었다.

순임이도 흰이를 반짝 빛내며 방긋 웃었다. 그리고 사정했다.

《야-좀 갔다오자요.》

순임이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웅상그리고 들어가서 자리를 비집고 앉았다.

《리당비서동지넌 뭘나무가 떨어졌단말이요.》하고 운전사가 소리쳤다.

《하루이틀 뭘나무는 있어요. 내 알아요. 래일 실어다주도록 하자요. 가자요.》

이때 주진옥이 자동차에 매달리며 리당비서동지가 자기 집 나무실을 차라는것을 아는가고 물었다. 비서동지가 아침에 부탁하였다고 운전사는 대답했다. 그러자 주진옥은 차에서 물리서며 순임이에게 내리라고 손질했다. 순임이는 문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왜요?》

《글쎄 다른 차 구하자. 다른 차.》

《이제 어디 가서 다른 차를 잡아요?》

《순임이, 이 차는 글쎄 안돼!》하고 주진옥은 단호하게 소리쳤다.

《일없어요. 비서동지에게 내가 말해요. 가자요!》

부르릉! 발동소리가 높아지고 차는 움직였다.

《야-참!》하고 주진옥은 나이와 체면에 어울리지 않게 발까지 동동 굴렀다.

얼마후에 주진옥은 길에서 리당비서를 만났다. 그는 마치 큰 죄를 진것처럼 미안해했다. 차이 야기를 어떻게 꺼낼것인가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순임이보다 자기가 먼저 나서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곧 입을 열었다. 그가 말을 꺼내기바쁘게 리당비서는 큰소리로 대꾸했다.

《알고있소. 아까 차를 만났소. 순임이가 말하더구만, 제가 차를 돌려다고.》

《예-예?! 그건 사실...》

주진옥은 이 순간 갑자르기만 할뿐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야 순임이의 처사가 못마땅하게 여겨졌다.

언제나 바쁜 걸음을 하는 리당비서는 벌써 멀리 갔던것이다,

(야참, 순임이는 언제나 봐야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일을 하거던, 날마다 걸음마다 새록새록 하는 노릇이.)

순임이에 대하여 주진옥은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물론 매사에 그의 립장과 태도는

원칙적이며 백번 옳다는것이 의심할바 없었다. 그러나 역시 어딘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갈라들었다.

(아무리 원칙이 그렇다 해도 그렇지. 지난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 와서 리당비서동지가 얼마나 각근히 생각해주고있게? ... 그렇다면 순임이 너로서는 응당 지켜야 할 의리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다지나 야박하게 굴건 뭐람.)

...주진옥은 며칠전 순임이의 말을 듣고 공감은 하면서도 무엇이나 일깨워주고싶은, 딱히 말할수 없었던것이 바로 이것이였구나 하고 속으로 웅쳤다.

《난 그전에말이야.》하고 주진옥은 다음날 순임이와 함께 퇴근하는 길에서 말을 꺼냈다. 《내 잘나서 판매원을 하는것처럼 우쭐해졌댔다.》

그는 결코 이전에 자기에게 그런 결함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임이가 바로 그렇다고 보게 된 그는 그에게 이렇게 에둘러서라도 자극을 주자는것이였다. 그는 계속하며 이렇게 말했다.

《물론 판매원이라는건 뭐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두 중요하거던, 술한 상품을 직접 다루지, 돈두 다루지... 그런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수 있어? 그러잖아? ...》

순임이는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입가에, 미소를 띠운채 말없이 듣기만 했다. 헤어질때까지 순임이는 말 한마디 없었다.

다음날 출근길에서 순임이는 주진옥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니, 난 우리 일이 얼마나 영예롭고 책임적인 사업인가 하는걸 날이 갈수록 느껴요. 우리가 술한 상품이나 다루고 돈이나 다룬다고 중요한가요.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우리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가 담긴 상품들을 제때에 골고루 나누어주는 열이니까 중요하지요.》

주진옥은 자기가 잊지억에 한 말을 순임이가 반박한다는것을 알아챘다.

《그전에 난》하고 순임이는 또 말했다. 《난 미처 알지 못했던것이 있어요. 우리 리당비서동진 리안의 사업을 당적으로 책임지고 해나가면서 모든 세대들과 매개인들의 생활상문제까지 관심하고있지요.》

《그럼!》주진옥은 순임이가 하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자신이 먼저 꺼내는것에 놀랐다. 눈치빠른 순임이가 그것을 알아채고 상대방이 말하기전에 앞질러서 자기비판을 하려는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난 우리 리당비서동지가 그저 체일이라고 생각했었지요뭐.》

《건 또 무슨 소리야.》

주진옥은 의아한 눈길로 순임이를 보았다. 순임이는 잠깐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옛날 여기 이 산골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생활을 했나요. 그 쓰라린 과거와 행복한 오늘이 땅과 하늘같은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 다 말할수 있겠나요. 단 한가지 실례로 물고기같은걸 봐두 옛날엔 맘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우린 어때요. 리당비서동지도 그때 우리집에 염조기를 다문 한마리라도 가져다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는지 않아요. 왜 그랬나요?》

자기도 역시 냄새만 맡을수밖에 없던 처지였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의 잘못을 반성하는것으로 시작된 순임이의 말은 묻고 따지는것처럼 끝났다. 주진옥은 순임이를 흘끔 쳐다보았다.

《나나 언니,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주는 리당비서동지까지 포함해서 우리 인민모두를 담당한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 우리가 무슨 판매원이며 책임자며 리당비서겠어요. 학교, 진료소, 자동차, 트랙토르, 버스... 이런 것들이 차례지겠어요? 이 산골에 물고기가 또 그렇게 흔하겠어요?》

순임이는 그만 목구멍이 말라드는데 두어번 기침을 하고 침을 넘겼다. 그러더니 더욱 갈린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우리 인민모두를 다같이 잘살게 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충성을 바치지 않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 잘 보이자고 하겠어요.》

순임이는 금시 울음을 터칠것 같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듯했다.

이날 아침에 순임이가 한 말은 주진옥의 머리에 서 하루종일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이었다. 상점앞마당에서는 읍에서 내려왔던 버스에 손님들이 타고있었다. 주진옥은 리옥분의 동생이 버스를 타려고 나온것을 보았다. 리옥분과 성철이도 나왔었다.

청년에게서는 별로 느낄수 없으나 리옥분의 기분은 좋지 않다는것이 알렸다. 그것이 동생을 보내는 작별의 섭섭함이었는가? 그렇게만 볼수 없었다. 그가 느끼기에는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 있는듯싶었다.

주진옥은 순임이의 눈치를 보았다. 순임이는 매일과 같이 버스가 왔다가 가는 레상사로 여길뿐 별다른 생각이 없는듯했다. 그러나 주진옥은 이날에 버스의 출발이 저오기 마음에 췌었다. 순임이에 대한 청년의 선망은 여전한지, 리당비서의 립장이 계속 그렇게 완고한지 알고싶었다.

어느 작업반에 갔다가 늦은듯 리당비서는 차가 떠날 림박에야 작업복차림으로 나타났다.

이윽고 차는 떠나고 차타는 사람을 바래우러 나왔던 사람들도 흩어져갈 때까지 리옥분은 손수건으로 눈굽을 문지르며 서있었다. 그는 일이 바쁜듯 자리를 뜨려는 리당비서에게 푸념을 들이댔다.

《아니 그래, 이젠 떠났으니, 말 좀 해봐요. 왜 반대했어요? 리유도 따끔히 내놓지 않고.》

누구든지 이 말의 뜻을 도저히 리해할수 없을것이나 주진옥은 즉시에 알아챘다. 그는 귀를 강구었다.

리당비서는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주진옥은 귀를 더 바짝 기울이는 한편 순임이를 결눈질해보았다. 순임이는 손님이 보자는 물건을 내어주며 웃고있었다. 그에게 있어서도 결코 무심할수 없는 이 《운명적인 순간》(주진옥은 자꾸만 이렇게 생각되었다.) 순임이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있는지 상점에 온 손님들만을 대상해서 웃고있는것이 아닌가.

《그 앤 아까와! 놓아주기 아까와!》

리당비서의대답이었다.

《뭐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반대했수?!》

리옥분의 놀람소리가 울렸다.

《아, 그래서?! 그래서?!》하고 주진옥이도 부지중 중얼거렸다.

《그게 무슨 인정이우?!》하고 리옥분은 다시금 부르짖었다. 《아깝다구 처남 주기가 싫다구요?! 그게 무슨 인정이우! 아이참, 어찌면...》

《나도 모르겠소!》머리를 푹 떨구는것 같은 꺼져드는 말소리, 《아무튼 보낼수 없소!》 다시 고개를 번쩍 쳐드는것 같은 목청. 《그만한 사람을 나는 놓아주기 아깝단말이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무슨 힘으로 일하겠소! 우리 이 산골에도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해!》

주진옥은 눈을 감았다. 그는 입속으로 뇌였다.

(나도 그래, 아까와, 나도 아까와!)

그는 한참후에 눈을 떴으며 얼굴을 돌려 순임이를 보았다. 앞마당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퍼그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미소를 담은채 손님들과 명랑하게 인사를 나누고 친절히 이야기도 하며 그들에게 상품을 내어주느라고 여념이 없었던것이다.

빛살처럼 뻗은 속눈썹은 자주 오르내리고 얇은 입술사이에 희디흰 이가 드러났다. 그 모든 생기와 매력을 안은채 매대의 저쪽 혹은 이쪽으로 켄걸음을 하는 순임이.

주진옥은 그를 실례가 될 정도로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눈을 습벽이며 그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순임이두 참...》

## 영생

석유균

《아버지!

저를 위해 이곳에 와보겠다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저는 서둘러 펜을 들게 됩니다. 졸업작품을 창작하겠다고 영산리에 내려온 저를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 모르는바 아니지만 지금 저에게는 고마움보다 새로운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오늘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줄 알면 아버지는 저에 대한 기대보다도 책망이 더 커지실겁니다.

…화관을 메고 처음 영산리에 내려가선 봄바람에 취해 처녀생각만 하더니 이번엔 또 무슨 바람이 들어 들렸는지 하고요.

저 역시 엇그제만 해도 생각이 이렇게 뒤바뀌어 지리라고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소정된 창작기일이 달포나 지나갔는데 아직 화가를 세우지 못한 제 마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런줄 알면 아버지는 더 노하실겁니다.

사내녀석이 변명은… 인생의 첫걸음을 크게 내디더야 할 운명적인 때에 제멋에 겨워 들떠다니다니 대학공부를 헛시켰군… 하실겁니다.

허나 아버지도 이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부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달포전에 제가 처음으로 행장을 꾸민 이 영산리에서 봄순동무를 사귀게 된것이 잔잔하던 저의 생활에 것처럼 큰 파문을 일으키리라고 그때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리해가 깊어질수록 그에게 끌리우는 나의 마음은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현숙한 성품과 아릿다운 용모에 현혹되었기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본의 아니게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아신다면 껍 놀라실겁니다…》

진수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스출판사 부사장으로 틀진 유형빈은 편지를 읽어갈수록 생각이 깊어졌다. 마치 문제성있는 원고를 펼쳐놓았을 때처럼 그는 담배부터 찾았다. 파르스름히 피어오르는 담배연기속에 형빈의 생각은 어느덧 한달전 바로 이 서재에서 있었던 일로 이어졌다.

…졸업작품의 주제선택을 위해 보름동안 영산리에 나가있던 진수는 초안을 토의하러 대학에 올라왔었다. 강좌와 담당교원의 합의를 보기전에 진수는 아버지의 의견을 먼저 들으려고 했다.(자

기 작품에 언제나 엄격한 비평가인 아버지의 의견을 중시하는 그였다.)

8절지에 채색화로 그려진 초안에 형빈은 한동안 시선을 모두었다.

동터오는 무연한 들판을 배경으로 구도의 중심에 선 프락포르, 새벽안개 피어오르는 정가로운 시내, 곱게 퍼져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로동의 희열이 함뿍 어린 미소를 짓는 처녀운전수, 새싹이 움트는 두렁에 아침참을 쟁겨놓는 소박한 어머니…

《선야의 서정》이라고 제목을 단 초안에는 진수의 기발한 착상의 농도가 미미하였다. 화가적인 재능이 조선화의 고유한 화법을 특색있게 살려나가는데서뿐아니라 전형적인 생활탐구의 깊이에서 엿보인다고 선망의 대상으로 되어온 진수라고 생각할 때 대학기간에 그가 경주해온 진지한 노력의 결실이 초안에서 무르익지 못했음을 형빈은 대번에 찾아보았다.

더우기 현실을 서정적으로 감수하기에 앞서 작품에 시대의 열정과 기백을 구가해야 할 젊음이라고 생각할 때 진수에 대한 형빈의 기대는 어그러졌다. 말없는 아버지의 깊은 한숨속에서 자기의 실책을 깨닫게 된 진수는 마치 변명이나 하려는듯 봄을 맞이한 농촌생활을 활달한 필치로 형상하려고 한 몇점의 속사품을 내놓았다.

《이게 다냐?》

또다시 아버지의 불만에 주체하지 못한 진수는 마지못해 인물소묘들까지 열결에 내놓았다. 처녀 프락포르운전수들을 그린 여러장의 소묘에 눈을 주며 한장한장 번져가던 형빈의 손은 멎어섰다. 섬세하게 그린 한 처녀의 소묘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며 그것만은 따로 보관했어야 할것이였다고 진수는 후회했다. 젊은 심장의 박동을 처음 들으며 야릇하고 애뜻한 정으로 이 그림을 그리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진수의 가슴속에는 감미로운 런던의 정이 봄별처럼 녹아내렸기때문이다.

진수는 아버지를 잘 안다. 그림속에 채색된 자기의 심혼뿐아니라 미묘한 정서적색채까지 헤아려본다는것을…

하기에 처녀의 소묘에서 아버지가 자기의 투명

한 마음을 들여다보는것만 같아 슬며시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형빈에게는 진수에 대하여 개의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림을 본 첫 순간부터 그가 왜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지, 질은 운무속에 묻힌 추억의 오솔길을 뚫아가는지 아직 그 누구도 몰랐다. 볼수록 형빈에게는 낮이 익은 얼굴이다.

시원하게 넓으면서 리지가 돋보이는 이마와 긴속눈썹에 드리운 음영으로 더 깊어보이는 사려깊은 눈은 명상을 즐기는듯싶지만 오뚝한 코날과 도도룩한 입술은 분별을 처녀의 미덕으로 여기며 제생각을 쉽사리 내비칠상싶지 않았다.

형빈은 60이 가까와오는 인생행로의 어느 리정표에서 사귄 처녀이기에 세월의 망각속에서도 강렬한 빛을 잃지 않고 회억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리송해졌다.

선뜩-예리한 칼로 가슴속 목은 상처를 허비듯 찔렀한 애수에 젖어든다,

《아!》형빈은 가벼운 탄성을 올렸다.

이것은 결코 의사들이 흔히 말하는것처럼 얼마전의 일은 아리송하게 잊어버려도 오래전 일이 생생하게 기억되는 경화증에서 오는 생리적현상때문만이 아니었다. 못잊을 사연으로 아니 잊어서는 안될 절박한 연고로 얽혀진 처녀였다.

그런데 이 처녀를 진수가 어떻게 그릴수 있었을가. 아무리 봐도 모사가 아니고 사생화가 분명한데...

형빈은 아들을 불러앉히었다. 아버지의 시선에서 심각한 물음을 간파한 진수는 떠듬떠듬 변명조로 말했다.

실습지에서 착실한 모범처녀프락포르운전수를 소개받았다는것, 이름은 봄순, 나이는 23살...

하기야 젊을이라면 이런 처녀에게 애정을 기울일만도 하지, 등반이에 몸을 기댄 형빈은 눈을 지그시 감으며 잊지 못할 그날로 거슬러갔다.

《나는 이 처녀와 모색이 같은 프락포르운전수를 잘 알고있었다. 그것도 30년전에... 아마도 그 처녀의 이름은 경순이었지.》 그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렇게 되어 형빈은 오래동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던 첫 처녀프락포르운전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게 되었다.

밤, 조명탄에 대낮처럼 밝아진 벌. 벙끗! 화광이 번쩍인 뒤에 울리는 웅글진 함포소리, 또 가까와지는 폭격기소리, 바다와 잇닿은 허허벌판.

형빈은 묵묵히 걸었다. 전투능력상실자로 처음 리민주선실장이라는 파견장을 받았을 때 그의 가슴엔 이름할수 없는 울분이 부끄럽기 괴여올랐다.

얼마나 걸었는지? 조명탄이 꺼지자 사위는 철축같은 어둠속에 싸여였다.

탐조등불빛만이 유난히 반짝일뿐... 어둠이 차츰 익숙되었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 하더니 이곳에 온지 보름사이 형빈도 자기 감정을 차츰 새로운 의욕으로 다져나갔다.

통통통, 룰동적으로 울리는 발동소리, 놈들의 발굽밑에 신음하던 이 황량한 벌에도 새생활이 태동하고있었다. 나라에서는 어려운 전화속에서도 신해방지구에 프락포르를 보내주었던것이다.

프락포르동음이 가까와질수록 형빈은 걸음을 다그쳤다. 군에 갔던 일을 빨리 알고싶었다.

《경순동무! 날이 밝겠는데 들어갑시다.》

《실장동지가 어떻게... 마저 갈겠어요.》

프락포르를 멈추지 않은채 문을 열고 소리친다. 어둠속에서도 빛이 나는 맑은 얼굴이다.

형빈은 프락포르로 훌쩍 올라섰다.

《왜 혼자서 일하오.》

그는 본능적으로 옆에 걸어놓은 기관단총을 잡았다.

《기름 가지러 보냈어요. 새벽녘엔 일없어요.》

오늘도 벌에서 들어가지 않을 심산이다.

《자, 부탁하던 치차를 가져왔소. 임경소 소장이 경순동무의 부탁이라니까 두말없이 주더군.》

《군에 갔던 일은 제대로 됐어요?》

《음, 헌데 해창벌의 논갈이가 문제더군, 아직 시작도 못했으니.》

바다와 린접된 해창벌은 함포사격이 더 심하다.

더우기 코앞에 있는 흑룡도에서 밤마다 무장악당들이 기여들어 피비린내나는 살륙을 감행하는 위험한곳이다.

《여길 끝내고는 제가 해창벌로 가겠어요.》

《거긴 위험하오. 교대운전수도 없는데 더구나 녀성이... 임경소에서 토론이 있던데.》

폭격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간 교대운전수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눈가에 비긴 질은 그들로 하여 긴 살눈썹아래 시원한 두눈이 더 깊어보였다.

이런 눈을 가진 처녀라면 대체로 성품이 어질고 겁이 많은것으로 알고있다. 섬약한 그들에게 웃음과 눈물이 많은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형빈은 아직 그가 소리내어 웃는것을 볼수 없었다. 전쟁의 참화가 그의 어린 가슴에도 아픈 상처를 남긴 모양이었다.

지금껏 한가지 생각에 움해있던 경순은 해창벌에서 제일 가까운곳에 있는 자기가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른 프락포르들은 몇십리씩 돌아야 하기때문에... 그의 얼굴엔 결연한 기색이 떠올랐다.

사흘후에 그는 해창별로 떠나갔다.  
 형빈이가 며칠후 거기로 갔을 때 마을에선 그를 만나기 힘들었다.  
 그는 거의 별에서 살았다. 형빈이도 잠시 시간을 내어 교대운전수 대신 그의 손도움이라도 해주려고 나가보면 트랙포르결을 뜨지 않았다.  
 함포사격이 끝나면 또 같고... 비행기가 뜨면 은페소에 트랙포르를 끌고 들어가서 정비하였다. 식사도 쪽잠도 트랙포르결에서... 논갈이도 하나의 전투였다.  
 숨죽였던 마을에 발동소리가 생기를 불어넣어주었다. 부림소가 죽어 한숨 짓던 사람들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동네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품에 안고 별로 나와 그를 찾았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밤이었다.  
 자정이 넘도록 자위대실에서 선전물을 만들던 형빈은 다급한 소리에 놀랐다.  
 《악당들이 몰려왔어요. 악당들이...》  
 형빈은 총을 들고 나갔다. 벌써 총을 든 사람들이 이 별로 나가는것이 보이였다.  
 아무리 달려도 거리가 줄지 않았다. 목은 상처가 또 말썽이다, 미끄러운 두렁길에서 두번이나 넘어졌지만 형빈은 아픔도 잊고 또 달렸다. 예광탄이 교차되는것이 보이였다.  
 형빈이가 달려갔을 때 앞서간 사람들이 추격하는 총성이 메아리처럼 바다가쪽으로 멀어졌다. 팔에 부상을 당한 청년이 형빈을 보자 트랙포르 앞쪽을 가리켰다.  
 트랙포르를 방패로 삼을수도 있었으나 그들은 트랙포르가 상할까 저어하여 그앞으로 나가 교전을 벌였던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선것이 불길한 예감을 자아냈다. 누군가 해불을 지펴 사위를 밝혔다. 경순이가 쓰러져있었다. 앞가슴에 피가 질벅하니 내배였다.  
 《경순동무, 어떻게 된 일이요?》  
 형빈은 그를 안아 일으켰다.  
 《실장동지, 왜 발동이...》  
 목숨으로 지켜낸 트랙포르의 발동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그였다.  
 《트랙포르는 무사하오.》  
 입가에 미소를 그리며 그는 살쾅이 눈을 내려감았다.  
 《논갈이를... 마저... 끝...》  
 만신의 힘을 모았으나 그는 이 한마디를 마저 끝내지 못하였다. 마을에 들어오기전에 그는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절통하게 땅을 쳤다. 그가 애지중지 여기던 트랙포르 앞창에 매달린 자그마한 수예품을 그의 손에 쥐여 가슴우에 포개여 놓아주었다,  
 손저울보다 조금 큰 흰판에 빨간 실로 조선지도

를 수놓고 거기다 노란 실로 《조국》이라고 새긴 것이였다. 섬세한 처녀의 기호품으로만 생각했던 형빈은 뒤판에 《신철호동무에게... 1951. 10》이라고 쓴것을 보고서야 깊은 사연이 깃든것임을 알았다.  
 형빈은 그 밤 추도문을 썼다.  
 꿈많은 처녀가 이 땅에 뿌린 고결한 피는 헛되지 않는다고 아니, 헛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이튿날 비분에 찬 사람들이 별로 나갔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빨라졌다...  
 그때 일을 더듬는 형빈의 마음은 숙연해졌다.  
 진수도 생각이 깊어진듯 고개를 들지 못한채 묵묵히 앉아있었다.  
 《이자 말한 첫 처녀트랙포르운전수에 대해 생각해봐라. 그 처녀와 모색이 비슷해서만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에 진수는 대답이 없었다.  
 《농촌의 서정적인 생활화폭을 그리는것도 좋고, 하지만 그 무엇을 그리던 붓을 들기전에 이 땅에 흘린 사람들의 피와 땀을 심장으로 새겨야 할것이다. 그래야 조국의 귀중함도 알게 되고 시대앞에 내놓은 작품에 너의 뉘이 깃들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버지의 권고이기전에 시대의 요구이다. 그리고 보면 네 작품에 보다 깊은 뜻이 담겨져야 할것이다.》  
 진수는 더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그날밤부터 고요가 깃든 진수의 방에서는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일주일후에 진수는 조용히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왔다.  
 《아버지, 작품의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형빈은 대답대신 놀라운 눈으로 아들을 보았다. 이제와서 졸업작품의 주제를 바꾼다는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형빈이였다.  
 《강좌선생님들과도 합의를 보았습니다.》  
 진수는 작품초안을 내놓았다.  
 제목은 《처녀트랙포르운전수》였다.  
 어두운 밤, 넓은 별, 엷바귀는 탐조등불빛. 빙긋-저 멀리 터지는 함포탄.  
 화폭의 중심엔 트랙포르운전수처녀가 운전대를 잡은채 하늘을 감시한다. 적기의 폭격음...  
 구도구성에서 아직 어슬픈데가 있으나 착상이 생신하였다. 그보다도 아들의 일변한 태도가 형빈에게는 더 대견하였다. 그의 꼭 다문 입술은 마음속에 일어난 심리적파동을 깊이 묻어두려는 것 같았다.  
 《주은공은?》  
 《원형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겠습니다.》  
 《음, 알만하다.》

젊은 가슴에 조국을 안고 간 그에게 영생의 빛을 비쳐주자는 심산이었다. 뜨거운 열정으로 승화된 자기의 심혼을 화폭에 옮기려는 시도였다.

진수의 눈화는 거무스레하게 깊어져보였으나 눈은 더 밝게 빛나고있었다.

《아직 화가의 주장이 투철하지 못해. 좀더 생각해봐라. 주인공처녀의 슬기가 화폭에 빛발쳐야 할게 아니냐.》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현지로 내려가겠습니다.》

이튿날 진수는 부모와 스승의 기대를 안고 영산리로 다시 떠나갔던 것이다...

여기까지 미친 형빈의 생각은 착잡해졌다.

(진수는 과연 무엇때문에 어디로 떠났는가. 무엇이 사색하기를 즐기던 내성적인 그를 방황하게 하였는지?)

그는 점도록 서있던 창가에서 물러났다. 그제야 방안이 어두워졌음을 깨닫고 불을 켰다. 안락의자에 앉은 그는 다시 아들의 편지를 찾아들었다.

× ×

영산리로 내려가는 진수의 마음은 나래라도 들친듯싶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창작적충동이 조금이라도 식기전에 붓을 들고싶은 생각뿐이었다.

사실 첫 처녀뜨락또르운전수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작품의 초안을 다시 착상하느라고 며칠 낮과 밤을 이어가며 열에 뜬 사람처럼 모태기던 진수는 그 처녀의 영웅적위훈을 하루빨리 세상에 알리고싶은 하나의 열망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죽음도 두려움없이 포연서린 땅을 힘차게 갈아번지는 처녀의 용감한 모습을 화폭에 옮기지만 하여도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키리라고 굳게 믿고있었다. 그럴수록 봄순을 만나고싶은 심정이 간절했다.

하지만 또다시 영산리에 불현듯 나타난 진수를 두고 봄순은 따뜻한 미소대신 놀라운 눈길로 맞이하였다. 그의 표정은 마치도(남자들이란 처녀의 호의를 애정의 언약처럼 제중계만 생각한단니까)하고 못마땅해하는듯싶었다. 그렇다고 진수로서는 달리 변명할 도리가 없었다. 사실 보름전까지만 해도 그 자신이 그런 내색을 감추지 못했던것만은 사실이었었다. 어쩐지 진수에게는 봄순이가 자기를 피하는것만 같이 여겨졌다. 봄같이까지 마감단계에 이르다보니 낮에는 여가가 없었다. 사실 조용히 만나기조차 어려웠다.

처음 생각과는 달리 창작이 진척되지 않자 진수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다. 어느날 저녁녘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봄순을 조용히 화실로 불러들였다. 새로 착상한 작품의 초안을 내놓으며 그는 처녀운전수의 영웅적투쟁을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의 빛나는 최후에 대

해서만이 아닌 제 느낌까지 이야기하는 진수의 음성은 자연히 흥분되었다.

하물며 동갑나이또래인 봄순인데 그 처녀뜨락또르운전수에 대해 어찌 공감되지 않을수 있으랴고 생각하면서...

이야기가 격해지자 진수는 수수께끼같이 여겨지던 자기 생각까지 서슴없이 물었다.

《글쎄 우리 아버지말이 그 처녀운전수와 동무의 모색이 같다는것이 아니겠소.》

이 말이 봄순에게서 충격적인 반응이라도 일으키지 않겠는가고 생각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진수의 말을 점점 심각해서 듣고있던 그는 나중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눈물을 흘리는듯도싶었다. 허나 그는 분별을 잃지 않고 제 흥분을 누착히는것이였다.

《진수동무, 제가 미처 물았어요. 그런 작품을 그리러 온줄... 작품을 잘 그리세요. 저도 힘있는것 돕겠어요.》

이 말이 생각보다 더 큰 가능성을 주리라는것을 진수는 믿고있었다.

그의 말에 진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으나 심각하리만치 진중해진 그의 태도로 하여 마지막 말만은 듣지 못했다.

김경순, 허봄순, 성이 서로 달라도 또 30년이란 긴 세월의 간격을 두고도 어쩌면 두 처녀뜨락또르운전수의 모색이 그리도 비슷한지를...

설혹 묻는다 해도 다른 대답은 듣지 못했을것이다.

물어서 대답할것 같으면 물기전에 그가 벌써 이야기했을것이였기때문이다. ... 말보다 더 많은 뜻을 그 사려깊은 눈에 비쳐보일줄 아는 처녀였음인데야... 진수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수 없는 사연이 그의 마음속에 잠겨있다는것을 눈치챘을뿐이였다. 며칠후 봄순이가 쉬는 날이였다.

진수는 봄순이를 그리기에 해저무는줄도 몰랐다. 하루종일 그의 극진한 도움으로 구도구성을 끝냈을뿐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하여 원형인물의 소묘까지 하였다. 입술을 옥물고 쏘아보듯 하늘을 주시하는... 하지만 그림을 보던 봄순은 고개를 저었다.

《원형인물과 비슷해보이면서도 아직 신통치 않아요.》

《봄순동문 그 처녀를 보기라도 했소?》

《글쎄 보진 못했어도 어쩐지 좀더 뜨겁게 그렸으면 해요.》

《성격은 원화단계에서 부각하면 되지요. 자 오늘은 그만합시다.》

봄순에게 만족은 주지 못했지만 붓을 놓는 진수의 마음은 어지간히 흥분되었다.

원화단계를 앞둔 때의 이런 흥분은 기필코 화폭

에 그윽한 예술적향취를 풍기게 한다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마음이 한결 흥그러워진 진수는 이 작품의 창작전망과 그 생명력에 대해 아니 미술작품의 승고한 사명에까지 번져가며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자연히 예술일반에 대한 이야기로 범위를 넓혀갔다.

봄순은 밝은 낮으로 물었다.

《진수동문 음악을 좋아해요?》

《량심을 어지럽히지 않은 한 음악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음악이야말로 마음을 정화시키는 고상한 예술이 아니요. 그래서 음악을 감정의 언어라고 하지 않소.》

《그래도 선물이야 화폭에 담을수 없지 않아요?》

《글쎄 뭐라고 했으면 좋을지. 공간예술과 시간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상반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미술을 일면적으로만 생각할수야 없지요. 선물에서 풍기는 정서적색채를 어떻게 화폭에 형상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감하면서 사려깊은 처녀앞에서 그토록 말수더구가 헤쳐졌는지... 아마도 서로 마음의 창문을 방긋이 열고 뜻을 나누어보려는 기회에 진수로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많은것을 인식시키려고 성급히 서둘렀던것이다. 그러다보니 그의 소박한 질문에 비해볼 때 자신의 말이 너무 현학적인데로 가치를 쳤다는 뉘우침이 들었다. 그 뉘우침으로 먼구스러워진 진수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며 그는 조용히 또 물었다.

《그러니까 저 프락포르의 발동기소리도 화폭에 담을수 있다는것이지요?》

처음에 룡말로 감싸 슬쩍 넘겨버릴가 했으나 그 러기에는 그의 태도가 너무도 진지해졌음을 느낀 진수로서는 자연히 대답을 갑자르게 되었다.

《그야 뭐... 화가의 형상능력에 달려너지요.》

《진수동문 자신이지요.》

그의 얼굴은 보는 사람의 마음이 상쾌해지리만큼 밝아졌다.

《글쎄요... 나도 힘있는것 노력하겠지만 작품의 성사여부는 결국 봄순동무에게 달렸소.》

《아니, 아니예요. 원형인물의 성품을 따르려면 아직 전 거리가 멀어요. 제 모색만 그러서 되겠어요?》

《그래도 봄순동무의 생김새가...》

생김새가 원형인물과 같으니까 작품의 전망도 결정된 셈이라고 말하려던 진수는 그만 입을 다물고말았다. 그의 눈은 마치 (생김새가 같기때문에 제가 필요하다면 저야말로 인형이란말이예요?) 하는듯싶었다. 그 서글픈 눈길에 질려 진수의 생각은 정지된듯싶었다.

《진수동문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심리적초상을

그러야 참다운 화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리치는 옳은데 뜻대로 안되는게 현실이 아니겠소. 허허.》

《호호...》

재미있는 숨박꼭질에서처럼 승부는 결정된듯싶어 진수는 궁색해진 처지에서 빠져보려고 타협조로 웃었다. 그도 따라 웃었다. 허지만 누가 엿보았다면 그 웃음의 색채가 판이하다는것을 쉽게 알았을것이다.

티없이 맑은 웃음과 허구픈 웃음을...

웃음으로 지워버린 어쭙은 기분을 잊어버리려나듯 그는 천진스러운 어조로 다시 진수를 꼬드겼다.

《진수동무! 이번엔 눈을 감으세요... 정신을 집중해요... 좋아요.》

《.....》

《눈을 뜨세요.》

《?》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새소리.》

《다음은요?》 《시내물소리.》

《또요?》 《음- 프락포르소리.》

그의 얼굴에 정갈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노래소리는 못들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 소리가 노래처럼 안들려요?》

그는 멀리 사라지는 프락포르쪽으로 시선을 들렸다. 멋적어진 진수는 남자의 체면이라도 세워보려고 판전을 댔다.

《하긴 새소리 물소리도 노래소리라고 읊조릴 때가 있으니까.》

그는 웃음을 거두었다.

《하긴 사람마다 자기 정서와 취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수 있지요. 직업적타성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저 소리를 생활의 노래처럼 아니... 진수동무에겐 리해되지 않을거예요, 이젠 들어가자요.》

그가 하려다 그만둔 의미심장한 말이 무엇이였는지. 진수로서는 그 뜻을 추측해볼 형편이 못되었다. 그를 따라 일어섰던 진수는 다만 아름다운 저녁풍경에 매혹된 나머지 그 생각은 잊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던것이다.

무연히 펼쳐진 벌과 잇닿은 서해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지는 해가 어찌나 장엄해보이던지... 그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안고 버들방창으로 걸어가 는 봄순의 유연한 자태가 어찌나 매혹적이던지 그 황홀경속에서 환상이 잡힐것만 같아 진수는 점도록 지켜보고있었다.

이윽고 진수가 한달음에 따라섰을 때 그는 조용히 말하였다.

《저를 너무 나빠 생각지 마세요. 진수동문 지



금 그 그림을 성사시키기가 어려워질것 같아요.》

《영?》

놀라움에 진수는 외마디소리를 냈다.

《처음 한가지 생각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알게 될수 있을거예요.

또 한가지는 제가 며칠후엔 간석지건설장으로 떠나가게 돼요.》

떠난다는 소식에 놀란 진수는 첫째원인에 대해 생각해볼념도 못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고 진수가 다우쳐묻자 그는 조용히 이야기했다.

진수가 대학으로 올라간 사이 간석지개간을 위한 청년돌격대가 조직되었는데 영산리에서는 그가 자진하였다는것이였다.

그 말이 진수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창작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할터인데 원형인물의 표준이 없으면 원화단계에서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던것이다. 그의 결심을 이제라도 변경시켜보려고 난감해진 진수는 자기의 처지를 구구하게 설명하였다. 진수의 설명이 길어질수록 그의 태도는 새침하리만큼 정색해졌다.

《전 예술창작에 대해 잘 몰라요. 하지만 제 좁은 소견에도 작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화가는 적어도 두가지를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능과 열정, 이것이지요.

전 진수동무의 재능에 대해선 의심치 않아요. 노력만 하면 그 그림을 훌륭히 완성시킬수 있을거예요.》

답답하게 들리는 그의 말이 어찌나 사리정연하였던지 말머리를 들이매 틱조차 없었다.

하지만 작품창작의 운명이 좌우되는 문제를 두고 수수방관할수 없었던 진수는 그만 분별을 잃고말았다.

《간석지에 가면 곱절이나 더 힘들거요.》

이렇게 말꼭지를 댄 진수는 세찬 바람, 갈기를 세우고 밀려드는 밀물, 감람... 이런 거치른 자연과의 투쟁만이 아닌 불비한 생활조건 등을 과장하여 련거하면서 무엇때문에 정든 고향을 두고 객지에서 고생하겠는가고 그를 만류하였다.

입을 꼭 다문채 눈을 내리뜬 그의 봉긋한 가슴만이 짚게 오르내릴뿐이였다.

《봄순동무도 작품에 애착을 두었다면 다문 한 달만이라도 말미를 두오. 떠난다 해도 건설장에 자리가 잡힌 다음에 가면 생활하기 편할텐데. 내리당비서동무에게...》

《그게 진정이예요? 어찌면 자기 생각만 할수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진수동무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주인공에 대한 모독이예요. 동무를 믿어온 제가... 어리석었어요. 분해요.》

그는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쥔채 돌아서 총총히 가버렸다. 단념할수 없는 일을 두고 진수는 그만

앞일이 막연했다. 아니, 창작은 이렇게 중도반단되고마는가 하는 절망감으로 이틀을 보냈다. 착잡한 생각으로 모태기던 진수는 사색을 정리해보려고 달밝은 밤 벼들방천에 나섰다. 걷고 또 걸어도 눈앞에 밝혀오는것은 봄순의 모습뿐이였다. 엇그제까지만 하여도 스스럼없이 대하군하던 그였건만 지금은 어쩐지 범접하기 어렵게 여겨졌다.

무엇때문일까? 내가 왜 그가 가는 길을 막으려했던가. 졸업작품창작때문이라고 자기 위안도 해보았지만 확실히 어렵고 보람찬 간석지건설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던 자신이 봄순이와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것이 새삼스레 느껴지는 진수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던 진수는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네 한끝에 자리잡은 봄순의 집에까지 왔다는것을 보고 놀랐다. 이왕 일이 기울어진바에는 차라리 그를 만나 자기 속생각을 다 털어놓고싶은 충동이 일순 솟구쳤다. 하지만 다음순간 서늘한 리성이 한껏 달아오른 감정을 녹애했다. 떠나기전에 만나고싶은 생각은 간절하였지만 정작 만나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구차한 변명을 한다 해도 그것 역시 맑고 투명한 봄순이의 마음속에 짙은 그림자밖에 비끼지 못할것은 명백하였다.

달빛에 난쟁이처럼 작아진 제 그림자를 밟으며 돌아서오던 진수는 화실에 불이 켜진것을 보고 놀랐다.

더 놀라운것은 봄순이가 방에 들어와 자기를 기다리면서 그림을 눈여겨보는것이였다.

《아니, 어떻게?》

《떠나기전에 진수동무 그림을 보러 왔어요.》

엇그제 일은 다 잊기라도 한듯이 가벼이 미소짓는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났다.

《아직 신통한 그림이...》

《그림을 보니 더 도와주지 못하고 떠나는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지만 진수동무 좋은 그림을 꼭 그릴거예요.》

맑고 깨끗한 얼굴에 어두운 제 모습을 비쳐보는것만 같아 진수는 거북해진 눈길을 떨구고말았다. 그러다보니 어색한 침묵을 깨뜨린것도 봄순이였다.

《저 사실은 한가지 부탁이 있어서...》

고개를 들어 봄순의 단아한 모습을 지켜보던 진수는 그의 눈길에 이룰할수 없는 간절한 소원이 비친것을 보고 의아해졌다.

《봄순동무 요구라면야...》

《다른게 아니라 이 그림을 제게 줄수 없어요?》 그제야 진수는 봄순이가 들고있는 그림이 바로 주인공을 상상해서 그렸던것임을 알아보았다.

《사실 진수동무가 그리려는 그 주인공이 저의

이모예요. 제가 한번도 본 일이 없지만 누구보다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모예요.》

《영?》

진수는 너무도 놀라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모들이 용모뿐아니라 성품과 지향까지도 이모를 따르라고 이모의 이름중에서 《순》자를 떼여 그의 이름을 봄순이라고 지었다는것이다.

물기젖은 음성으로 조용히 말하던 봄순은 두툼한 봉투를 꺼내주었다.

《이건 이모가 마지막으로 저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예요. 진수동무 창작에 도움되길 바래요.》

기회가 있으면 간석지건설장에도 들리라는 봄순이의 말을 들으며 문밖까지 그를 배웅하고 돌아온 진수는 급히 편지를 꺼내들었다.

.....

아들의 편지를 보던 형빈은 무엇에 찢리운듯 놀랐다.

(그래서 두 처녀의 모색이 착각하리만큼 비슷하게 생겼었구나. 참 생활이란 요지경처럼 그 비밀이 오묘하게 얹힌듯싶지만 정작 그 내막을 보면 언제나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인것이다.)

형빈은 편지속에 동봉한 또하나의 봉투를 급히 꺼내 펼쳤다.

종이가 누렇게 뜨고 보라색잉크가 바랜 오래적 편지이다. 형빈은 숨도 크게 못쉬고 급히 읽어내려갔다.

《보고싶은 언니!

함포란의 화광이 번쩍이는 서해기슭의 이름없는 한 농가에서 이 편지를 쓴다는것을 알면 언니는 퍼그나 놀라겠지요.

웃음과 눈물이 헤르다고 그래서 겁까지 많다고 늘 언니에게서 지청구를 듣던 제가 아니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웃음과 노래대신 어둠이 죽음처럼

무섭게 내려덮인 황량한 벌판으로 트랙토르를 몰아가는 저를 언니는 아마 상상하기 힘들거예요.

전선길에 나선 언니를 눈물에 젖어 바래우던 1년전만 해도 나에게 무서움을 이겨낼 그런 힘이 있으리라고는 자신도 미처 생각할수 없었으니까요. 나로 하여금 더는 달리 살수 없게 한 섬약하던 나의 심장에 죽음을 이겨내는 뜨거운 피가 맥박치게 한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생겨났는지? 부모없이 자라난탓으로 자매간의 감미로운 사랑만이 아닌 혈육의 온갖 정을 작은 제 가슴에 고이 쏟아부은 언니에게 가슴속 비밀을 이제 더 숨기고싶지 않아요.

언니도 알겠지만 미국놈들의 비행기는 전선으로 가는 길목인 혜성강다리를 매일같이 끊어놓곤했어요. <전선지원대>를 무은 우리 리민청원들은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가 시간을 다투어가며 다

리를 복구하곤했어요. 때로 너무도 힘에 겨워 그 자리에 주저앉고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앉으면 일어설것 같지 못해 이를 사려물고 걸음을 옮기곤 하였어요.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잦아들다가도 포탄실은 자동차들을 손저어 바래우고 돌아오면서 <아무도 몰라>의 노래를 소리합쳐 부를 때에는 온갖 시름도 피곤도 가신듯 사라지고 기쁨과 웃음만이 피어나는 처녀시절의 량만을 그래서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두고두고 이야기하나봐요.

그러던 8월 그믐날 밤, 먹물을 뿌린듯 캄캄한 어둠속에서 원목을 메고 발터듬으로 발범발범 다리의 한 경간을 넘어서던 나는 그만 허공에서 떨어져 심한 타박상을 받고 정신을 잃었어요.

몹시 들추는바람에 정신을 차린 나는 전선에서 돌아오는 자동차에 실려 밤나무끝에 자리잡은 병원으로 후송되어간다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온몸이 쭈서나는듯한 아픔도 잊고 나는 차를 멈춰달라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무작정 떼를 썼어요. 하지만 어둠속에서도 별스레 코가 뭉툰스레 보이는 한줄배기 운전사는 정신차린 나를 보고 안도와 숨을 싹뿔 대책도 안했어요. 어찌나 땀광스럽던지... 병원에 가사 제손으로 수속을 다 끝낸 그는 화해를 청하듯 웃으며 위로하는것이었어요.

<동네걱정은 말고 치료나 잘 받아요. 서기장동무의 간절한 당부인데요...>

허나 내가 여기까지 끌려온것이 그 때문인것만 같아 그의 남도말씨까지 귀에 거슬려 종시 대꾸도 안한채 찬눈길로 쏘아보고는 돌아섰어요.

그후에도 그는 전선에서 환자를 태우고 병원에 들릴 때면 나를 찾았지만 겨우 동네문안만 두어마디 어설피게 전하고 머뭇거리곤하였어요.

아마도 그날밤 나의 싸늘한 눈초이 질린것이 풀려지지 않았나봐요. 그제야 내가 그를 곱깝게 여긴 나머지 너무 뻥뻥했다는 생각이 미치자 미안한감까지 들더군요.

그러고보면 연약한것이 너자라고 얕보는 남자들의 말이 우연치 않나봐요. 하기가 남자들이란 얼마나 웅크럽하다고요.

마음의 매듭을 풀고 곳곳이 쏘아보던 내 눈길이 좀 누그러진 낄새를 어느새 눈치챈 그는 어리무던해보이는 얼굴에 능청스러운 미소를 그리는것이 아니겠어요.

<뭘 그러 우물거려요? 어제밤엔 다리가 무사했어요? 우리 동무들도 다 나오구요? 서기장아바이는 무슨 말을 전해요? >

<허 그렇게 련발로 물으면 뭇부터 대답하겠소. 이렇게 안타깝다구야 원->

그는 못내 난처한 표정을 지었으나 실상 내 물음뿐아니라 자기 생활에 대해서까지 능글스레 섞

어가며 이야기하곤했어요. 그가 아무려거나 나는 별로 관심을 돌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한 시바빠 집으로 돌아가고싶은 마음만 간절할뿐...

병원에 온지도 벌써 보름이 가까와오던 어느날 집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군의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어혈진것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2~3일간 더 치료를 받으라고 잘라 말하는 것이었어요. 울적해진 마음을 달래려고 뒤산으로 오르던 내가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가 버텨다리를 해가지고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마치 지나가던 길에 시간이 생겨 잠깐 들린 것처럼 천연스럽게...

산중턱쯤 올라가니 전쟁통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게 가지를 뻗친 밤나무에 탐스러운 밤송이가 주렁진 것이 신비스러워보였어요. 가을의 풍요함에 취해 어찌나 덤벼쳤는지... 꾀밤송이를 까다 그가 가시에 찢려 찢열매는것을 보고 깨고소해서 나도 아이들처럼 깔깔 웃고말았어요.

그는 부러 성이 난 것처럼 혼자 투덜거렸어요.  
<새파랗게 가시돋친게 아무리 봐야 경순동문 한 가지랑이.>

<제가 어쩔다고 그래요.>  
<그것 보지, 또 눈을 빼는걸... 자칫 잘못된면 콧속 찌르는 앙큼한 성미가 어데 같라고.>

(흥 찢리우는 제가 잘못이지 가지타령은...)  
즐거운 말다툼을 하며 우리는 밤을 잤어요. 밤을 한알 입에 넣은 그는 망연히 먼 하늘을 보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맑이 있는걸 실컷 먹어도 못보고.>  
혼자말처럼 뇌이면서 목이 메는지 더는 먹지 못하고 고향 충주에 두고 온 너동생을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산에 나무하러 가는 오빠의 옷자락에 매달려 밤을 따라달라고, 그것때문에 산림간수에게 매를 맞는것도 모르고 조르던 어린 너동생의 이야기부터 번져지기 시작했어요.

홀어머니 슬하에서 비둘기 같은 그들 남매가 죽 한그릇을 놓고 서로 밀어놓곤하던 궁핍한 생활로 하여 아이에는 푸릿한 명을 남긴채 소년시절을 흘러보냈대요.

해방을 맞던 해 소중히 간수해온 어머니의 은비녀와 너동생의 손때묻은 모지랑 연필이 든 작은 보따리를 든채 그는 향학열 하나만을 믿고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대요.

한끼 호구를 위해 머리숙여야 하는 매정한 서울 거리에서 돈없고 권리없는 탓에 배움대신 받을 몫시와 구박이 하도 분통해서 하루에도 몇번씩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그래도 일일천추로 자기의 성공만을 기원하는 어머니와 누이동생의 정상이 가슴아프게 안겨와 종시 걸음을 돌리지 못

하였대요.

기술이라도 한가지 익혀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자동차부의 수리공으로 들어가 3년을 하루와 같이 뼈빠지게 일하였대요. 제 한몸 힘들어도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동생을 생각하여 한푼두푼 모은 돈을 미군하사관놈에게 다 떼우고도 자동차부속품을 밀매했다는 루명을 쓴채 감옥살이까지 하였대요. 참으로 길지 않은 그의 인생의 자욱자욱에 꼬인 설움과 고통은 들을수록 눈물겹고 울분이 북받치는 것이었어요. 동정어린 마음이 약해 지려는것을 다잡으려 하였으나 끝내 나는 흐느끼고야 말았어요.

그의 음성도 퍼그나 젖어있었어요.  
<일없소. 경순동무, 이젠 나에게도 조국이 있으니까. 두려운게 없단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의 두눈엔 이름할수 없는 궁지가 번뜩이었어요.

그때 나는 조국이란 말의 참뜻을 다는 몰랐어도 성스러운 이름을 궁지높이 부르는 그가 펍 미더워보였어요.

산자락으로 내려가는 그의 뒤를 따르면서야 나는 그의 군복잔등이 파편에 찢진것도 그가 상한 다리를 치료받으러 병원에 들렀다는것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어찌된 일인가고 내가 놀라며 물어서야 그는 하지못해 한마디 하더군요.

<어제밤엔 놈들이 어찌나 갈개는지 탄약상자를 메고 고지로 오르다가 그만 내가 또 덤벼들었...>  
죽음이 비발처럼 뿌러지는 총포탄속을 헤쳐가고도 혼연히 웃으며 하는 한마디 말속에는 그의 인간됨이 그대로 어려있었어요.

그런데 난 찢진 군복하나 기워주지 못하였으니 이제 아픈 다리를 끌며 앞골까지 가야 할 그의 걸음을 더 멈춰세울수가 없는 자신이 야속하기만 했어요.

<몸조심 하세요. 철호동무.>  
<자 그럼 경순동무도 내가 어려운 걸음을 다시 안하도록 빨리 치료하오.>

히죽이 웃는 그 동무의 웃음이 가슴에 따뜻이 젖어드는것을 깨닫고 나는 그만 놀라 얼굴 붉히고야 말았어요.

다정한 언니!  
아마 이런것을 두고 서로의 마음이 가까와진다고 하나봐요.

마을로 돌아와서 낮에는 하루종일 벌에서 일하느라 피곤이 몰려들어도 날만 어두워지면 다리공사장으로 나가는 걸음이 가벼워지곤했어요. 막연히 기다려지는 마음을 아니라고 달래면서도 그 동무가 며칠만 안보여도 초조해지는것을 어찌는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도 정작 만나면 남들이 눈여겨보는것만 같아 대충 쌀쌀한 표정으로 외면하였으나 별로 승당승당하게 홀가맨것처럼 보이는 그 동무의 잔등에만 눈길이 쏠리곤했어요. 그럴수록 기울어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며 《남자손이라도 아무려문 저렇게 기웠담 남보기 흉하게...》 하고 생각을 웅천채 제 낮이 깎이는줄도 모르고 덜통하게 그게 뭐냐고 한마디 내쏘리라 몇번 마음먹었으나 어설픈게 기워진것이 자신의 죄록처럼 그려져 종시 입밖에 낼수가 없었어요.

아무려면 어머니나 누이동생이 그걸 보았다면 그냥 두었을라고... 내라고 얼핏 다시 기워주지 못할게 뭐람. 허지만 사람들이 보는데서 어떻게...

넌뛰듯 생각이 엇바뀌어 솟구쳤으나 종시 용단을 내릴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다감해진 이성의 정에 끌려드는것만은 어쩔수 없었어요.

문득 그 동무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를 때면 새를 안은듯 가슴이 화두득 떨리다가도 《조국》이라는 말을 궁지높이 부르던 그 음성이 나의 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승엄한 세계으로 이끌어가는듯 싶었어요.

생각끝에 나는 언니가 베개모를 놓고 남긴 수실을 찾아냈어요.

내 손바닥보다도 작게 빨간 실로 우리 나라 지도를 수놓고 그우에 노란실로 《조국》이라고 한뼘한뼘 수놓는 나를 보고 동무들은 고개를 기웃거렸어요.

며칠 가슴에 품고 다니던 끝에 자정이 넘어서야 다리를 다 고치고 차를 떠나보내면서 남몰래 그 동무의 손에 쥐여주었어요. 그것을 달빛에 언뜻 비쳐보는 그 동무의 눈빛이 어찌면 야음속에서도 그리 빛나던지...

<고맙소. 경순동무! 잊지 않겠소.>

그답지 않게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고는 내 손을 꼭 쥐는것이 아니겠어요. 남이 보면 어찌나 하는 생각이 앞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나는 종시 손을 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언니!

나는 이날밤 처음으로 처녀의 기쁨을 맛본것 같아요. 그 동무의 눈길이 앞창에 걸린 조국지도에 쏠려 나처럼 이름할수 없는 기쁨에 싸일것을 생각하니 온밤 일해도 힘든줄을 몰랐어요. 하긴 후에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워 동무들의 즐거운 놀림을 받고 부끄럽긴 했어도...

그후부터는 왜서인지 밤마다 집으로 돌아올 때<아무도 몰라>를 부르기가 어쭙어졌어요. 동무들이 내 마음을 뻥히 들여다보는것만 같아서요.

그래도 마음속 깊은곳에서 이상야릇한 미온의

감정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가물가물 피어오르는것을 나만 감촉하게 됐어요.

언니! 하지만 그 동무의 웅심깊은 마음을, 《조국》이라는 말의 참뜻을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나는 깨닫게 됐어요.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던 날 밤이었어요. 놈들이 몽청 동강낸 다리를 이어놓느라고 우리는 추위도 잊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놈들의 비행기가 또 기승을 부리기전에 차를 통과시켜야 했으니깐요.

이때 전선에서 돌아오던 한 운전사동무가 나를 찾더군요.

그의 말인즉 엇그제 전선수송대는 전선에 채 못미쳐 놈들의 비행기습격을 받았대요. 철호동무의 앞차가 놈들의 로켓탄에 맞아 탄약상자를 썩워놓은 방수포에 불이 달렸대요. 만일 그 차에서 탄약이 폭발하면 앞뒤로 줄줄이 늘어선 자동차행렬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위기 일발한 순간!

언제 더질지 모르는 적재함우로 철호동무가 뛰어들라 불을 끄기 시작했대요. 불을 본 놈들의 비행기가 폭탄을 뿌리며 미친듯이 기총사격을 하는 위험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종시 불을 끄고야 말았대요.

차는 무사했으나 화상과 심한 증상을 입은 철호동무는 어제밤 위생차로 밤나무골병원에 후송됐다는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그날밤 어떻게 일을 끝냈는지 몰라요. 다만 어둠속에서도 걸음걸음 그 동무의 모습이 밝혀오던것만 기억돼요.

내 심정을 알아차린 서기장아바이는 <경순이, 어서 병원에 가보라구. 여기 일은 걱정 말구 잘 간호해주라구.> 하면서 나의 등을 미는것이였어요. 동무들이 쥐여주는 작은 보통이를 안은채 나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돌아섰어요.

나는 북반치는 설음을 머금은채 30여리길을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화상으로 하여 온 얼굴에 붕대를 감고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그 동무를 보는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야말았어요. 가슴에 박혔던 파편을 뺐으니 생명에는 위험이 없다고 위로하는 군의의 말을 들으면서도 전쟁이란 이리도 가혹한가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이를 옥물었어요.

제가 입원했을 때 면목을 익힌 과장동지에게 제기해서 며칠동안 간호치료를 하도록 허락받았어요.

아직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 동무를 두고 내가 왜 지금까지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주었는가를 뼈아프게 뉘우치면서 이제부터라도 내 정성을 다 기울여 극진히 보살피주어야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됐어요.

사흘만에 정신이 맑아진 그 동무는 나를 조용히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어요.

<그간 일이 고맙소, 경순동무,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 돌아가보오. 나보다도 마을에서 동무 손을 더 기다릴거요.

고지에 탄약이 한시라도 늦어지면 우리 동무들이 그만큼 더 피를 흘린다는걸 생각하면 난 죄스럽기 그지없소, 나때문에 동무까지... 아니 지금은 누구도 개인감정에 사로잡혀있을 때가 아니요.

>

준절하게 들리는 그의 말을 거역할수 없는것이 안타깝기만 하였어요. 그러는 나를 보고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오히려 부드럽게 위로하려는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제대로 운신도 못하는 그 동무를 두고 정작 떠나자니 눈물이 앞을 가리워 걸음을 옮길수가 없었어요. 어린애처럼 흐느껴우는 나를 달래며 하던 그 동무의 절절한 말이 지금도 아니 영원히 잊을수 없어요.

<경순동무 눈물을 거두오.

우리 부모동생들이 흘린 피눈물의 대가도 놈들과 아직 계산하지 못했는데 동무까지 이러면 침상에 누워있는 내 마음이 어떻게겠소.

한 피줄을 나눈 그들이 이 시각도 놈들에게 짓밟혀 피눈물을 흘리며 숨져가고있소. 그들도 장군님품에 안겨 기쁨과 행복을 우리와 함께 나눌 그날을 보지 못하고는 난 죽을수 없소. 내 걱정은 마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더는 울지 않았어요. 나는 서기장아바이에게 찾아가 내 결심을 말했어요. 그 동무를 대신해서 싸우겠다고...

우리가 군대에 나가겠다고 조르면 전선에서도 탄약이 있어야 놈들과 싸우지 않겠는가고, 우리몸이 그대로 다리가 되더라도 전선수송을 보장해야 된다고 타이르던 서기장아바이였지만 다음날 저를 프락포르운전수양성소로 보내주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찾아간것은 그 동무가 아직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채 먼 후방으로 후송되던 때였어요. 저를 보자 그 동무는 몹시 반가와하면서 화상자리가 아픈 얼굴을 슬며시 돌리더군요. 그러는 그를 보기 더 가슴아팠어요. 그때야 겨우 붕대를 푼 얼굴은 보기 처참하게 좋아들었으나 제가 어찌 나무람할수 있겠어요. 조국을 위해 자기의 피도 아름다움도 서슴없이 바친 의로운 사람을 두고말이에요.

나는 가슴에 넘쳐나는련민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그의 얼굴을 나의 부드러운 가슴에 오래동안 꼭 껴안았어요. 저의 가슴에 뉘뉘는 모든 애정을 다 기울여서 말이에요. 아마도 고지에서 싸우다

쓰러진 전우를 무릎우에서 숨지웠을 언니는 내 심정을 리해해주리라고 봐요. 의로운 량심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을 아끼며 주저할수 있겠어요. 우리의 사람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면 말이에요. 처녀의 순정이 그에게 바쳐진다면 그야말로 고귀한것이 아니겠어요. 하기에 제대로 운신도 못하는 그 동무를 멀리 떠나보내면서도 나는 굳게 믿어요. 어디에 가도 조국 위해 피흘린 그대들에게 이 나라 녀인들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낌없이 바쳐지리라하는것을...

우리는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모든것이 약속되었어요. (후에 언니는 이것으로 하여 나를 나무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멀지 않아 프락포르를 운전하게 될 나의 손에 내가 선물했던 수놓은 조국지도를 쥐여주며 하던 그의 말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우리 어디서든 조국앞에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경순동무!>

나도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우리의 지향 하나로 이어서 조국 위한 성전에 바쳐가리라고요...

우리는 헤어졌어요. 서로의 믿음으로 이어진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채... 나는 믿어요. 내가 그 동무를 믿듯이 그 동무 역시 나를 굳게 믿어주리라고요.

언니, 양성소를 졸업한 나는 처녀의 몸으로 위험하다고 만류하는 신해방지구로 자진해서 떠났어요.

밤이나 낮이나 포성과 폭음이 그치지 않는 벌도, 지난날 놈들의 학정에 짓눌리고 찢기우던 이곳 사람들도 짙은 포연속에서 숨죽인듯싶었어요.

허지만 버림받던 이 땅에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선참으로 프락포르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 안고나는 프락포르를 몰아가요. 프락포르의 동음을 새생활의 노래처럼 들으며 사람들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진정 자애로운 그 사랑속에서 사람들은 조국의 은혜로움을 심장으로 느끼게 됐어요. 올해는 풍작을 이룩할수 있다고들 모두 말해요.

조국이란 글을 한뼘한뼘 수놓으면서도 미처 다는 몰랐던 그 이름의 숭엄한 뜻을 제힘으로 땅을 갈며 저는 뜨겁게 새겼어요.

조국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뜻으로 꽃피는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삶의 요람이라는것을...

이 벌에 울려퍼지는 프락포르의 발동소리를 조국의 숨결처럼 느끼며 저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살아요. 하기에 가슴속에 서리는 웃음과 눈물을 묻어둔채 저는 오직 조국앞에 엄숙해져요. 승리할 그날까지 죽음도 서슴지 않으리라는 굳은 각오로...

철호동무의 깊은 마음도 이제야 비로소 뜨겁게 느껴져요.

조국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청춘을 바치는것보다 더 빛나는 삶이 없다는것을 알기에 철호동무도 아니, 수많은 이 나라 젊은이들이 사랑과 꿈을 안은채 웃으며 죽음을 맞받아나가지 않았겠어요.

보고싶은 언니, 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어요.

영광의 그날 우리모두 조국에 바친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가슴속에 서리고 영킨 기쁨과 눈물, 사랑과 웃음을 두고 오래오래 이야기해보자요.

먼곳에서 건투를 바라며

경순으로부터.》

편지를 읽고난 형빈은 아들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한 흥분에 휩싸였다.

(아, 바로 조국의 숨결을 뜨겁게 느낀 처녀였기에 그처럼 크고 억센 심장을 지닐수 있었구나. 모진 고통도 슬픔도 목새기며 어둠도, 죽음도 서슴없이 프락뜨르를 몰아갔구나...)

했으나 자기 감정에만 사로잡힐수 없는 형빈이었다. 새로운 각오로 불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싶은 나머지 형빈은 급히 그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아버지! 편지를 곱씹어 읽어갈수록 저의 가슴속에는 심각한 자책과 새로운 열정이 소용돌이칩니다. 원형인물의 세계에 자신을 따라세우지 못한 저로서는 화폭에 감히 붓을 델수가 없습니다.

량심이 허락치 않으니까요. 붓을 들기전에 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 흘린 피와 땀을 새겨야 한다면 아버지의 말이 가슴을 칩니다.

아니, 해저무는 내가에서 봄순동무가 하던 말이 지금 저의 가슴속에 파고듭니다. 새소리, 물소리는 정서적으로 감득하면서도 프락뜨르의 발동소리를 생활의 노래로 감수할줄 몰랐던 제가 감히 그처럼 뜻깊은 사연을 남긴 처녀프락뜨르운전수를 그리겠다고 서둘렀으니... 그 그림을 성사시키기 힘들겠다고 (그때 그 까닭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하던 봄순동무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는 지금에야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뜨거워지기전에 화폭에 붓을 먼저 대려고 했던 자신의 정신적준비를 타매하게 된 지금에 와서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바다를 밀어내고 조국의 지도를 넓혀가는 보람찬 간석지건설장에서 들리는 봄순동무의 부름이 시대의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봄순동무가 말하던 그 노력을 피타게 경주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나는 그곳으로 달려가렵니다.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중에서 피어나는 원형인물들의 숭고한 녀을 심장으로 느끼며 저는 작품을 창작하렵니다.

포성과 폭음이 울부짖는 벌판으로 그 처녀가 몰아가던 프락뜨르의 발동소리를 지금 저는 듣습니다. 노래처럼 아름답게 아니, 포성보다 더 우렁차게.

눈을 감는 그 순간에조차 그토록 듣고싶어하던 발동소리, 조국의 숨결로 느끼던 그 발동소리를 저는 작품의 종자로 골라잡았습니다.

그 발동소리속에 조국의 래일을 그리며 웃으며 간 그 처녀운전수의 슬기로운 녀을 화폭에 그리렵니다. 이것은 비단 졸업작품의 완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숨결로 저의 심장을 뿔뿔히 하려는 지향때문이라는것을 아버지는 잘 아실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올린다면 저의 졸업작품 역시 꼭 성공의 빛을 보게 되리라는것은 믿어주시시오.

조국을 빛내이는 성스러운 한길에 자기의 자라찬 청춘을 펼친 이 나라의 꽃다운 처녀들의 슬기를 구가하는 화폭이기에...

아버지, 나의 주인공들과 함께 시대의 높이에서 활보하게 될 이 아들을 기다려주시시오.

먼곳에서 아버지의 귀채건강을 빕니다.

아들 진수 올림.》

형빈은 이름할수 없는 환희에 휩싸였다. 마치 오랜 세월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그 처녀프락뜨르운전수를 다시 만난듯 싶었다. 한것은 아들이 그려온 봄순의 모색에서 그를 본 그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앞으로 그려지게 될 화폭에 앞서 이미 들끓는 현실속에 그의 지향과 녀이 꽃피어나고 있는것이였다. 그가 울리던 발동소리는 요즘 봄순이와 진수 아니, 수많은 봄순이에 의해 이어져 조국땅 저 멀리 뻗어간 간석지건설장에서까지 시대의 교향곡으로 힘차게 울리고있지 않는가.

진정 그가 그처럼 바라던 지향이 세대와 함께 줄기차게 이어진다면 그는 죽어서도 참된 삶을 영위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 경순은 우리와 함께 있다.

형빈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녀을 보았던것이다.

## 한생의 한시간

고창림

### (1)

보물천류역에 꼬박 나흘동안 무데기비가 쏟아졌다.

요동치는 물사품에 바위웅두라지가 몽청 날아났고 나무들은 밀뿌리채 뚱뚱 떠내려갔다. 사람들은 영악없이 백년래 대홍수라고 떠들었다.

철길다리건설장은 당장 큰물에 삼키울 숨가쁜 위험에 처했다.

오늘아침 긴급대책 그루빠가 부랴부랴 내려왔다. 그중 한 수문전문가는 최고홍수위가 지금보다 2미터는 더 치달아올랐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예고했다.

이 예고야말로 다리건설사업소 지배인 맹비호에게 청천벽력이었다.

그는 지금 공사지휘부가 자리잡은 산중턱에서 침울하고 초조한 눈길로 건설장을 굽어보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마지막 고비를 다그치는 이 거창한 다리가 이제 한두시간내로 흔적도 없이 홍수 아구리에 삼키운단말인가?!)

그는 고개를 내저으며 수위척이 세워진 후미진 여울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수위척이란 홍수가 시작되자 콘크리트전주에 눈금을 새겨 단단히 박아세운것이었다.

그는 수위척을 훑어보다가 화닥닥 놀라며 한발 물러섰다. 눈앞이 아찔했다.

(영? 수위가 23.5미터? 그럼 강진구가 주장한 최고홍수위 24미터는 거짓이란말인가?)

맹비호의 가슴은 답답하고 무거워졌다....

상급에서는 특대홍수가 예견되니 공사를 당장 중지하고 대피하라는 긴급지령전화가 걸려왔다.

기술자들이 모다붙어 아무리 타산해봐야 공사를 일단 중지했다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당일에 결의다진 완공날자를 도무지 보장할 방도가 없었다. 로동자들은 그 폭우속에서 한치도 물러서려하지 않았다.

맹비호는 닥쳐올 홍수에 대해서 누가 무슨 입방아를 찧든 지간에 친구의 주장을 믿었다. 교각높이가 24미터이니 그우에 놓이는 상판보는 최고홍수위가 24미터이상 넘지만 않으면 절대로 안전할 것이었다.

그래서 공사지휘부는 마지막공사인 다리중심부 두경간 상판보콘크리트치기를 큰물을 맞받아 극

성스레 내밀기로 하였다.

헌데 간밤중부터 큰물마루는 채 굳지도 않은 상판을 한입에 집어 삼키듯이 지긋게도 바둑바둑 고작 턱밑까지 툭아올라왔다. ...

문득 다급하게 달려오는 인기척소리에 지배인이 뒤돌아서자 교환수처녀가 할딱거리고 왔었다.

《부처장동지가 기술협의회에 참가하라고 찾습니다.》

《알겠소. 곧 간다구 하오.》

그가 수위척에서 눈을 떼자 뒤미처 강진구의 모습이 우렁이 떠올랐다.

설계가 진구는 네해동안 설계의 여가와 휴식, 그리고 자기의 육체적 기력과 지혜를 송두리채 보물천 최고홍수위 조사사업에 바쳤다.

수십개의 강우량측정통을 만들어 스물두가닥 산골짜기에 설치하고 보름에 한번씩 관측분석을 어김없이 했다.

또한 린접류역의 수위통계자료를 참고하려고 찾아다니던 길인들 얼마이며 일생의 기나긴 추억을 더듬어 큰물 인상담을 들려주던 늙은이들을 만나 본적은 얼마이며 한장 두장 번저가며 읽어내려간 참고서적인들 얼마였던가. 심지어 수천년전의

홍수상태를 탐구하려고 생소한 고고학까지도 진지하게 파고들었고 최고홍수위를 찾기 위한 지질학적조사도 진행했었다.

스물두줄기 산골창 강우류역의 경계선 총길이는 삼천리였다. 그 태반이 아직 인적도 남기지 못한 험산준령과 층암절벽이었다.

진구는 말그대로 초인간적 의지와 지력으로 끝내 최고홍수위 지형도와 조사서를 완성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최고홍수위 선을 긋자면 최소한 오십년의 수문통계자료가 안받침되어야지 4년동안의 수문통계자료, 불완전한 단편적인 인상자료, 그리고 억측에 가까운 지질학적 조사법으로 그것을 규정하는건 비과학이라고 일축해버렸다.

하지만 진구는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쉬운건 두달째 그가 중병에 시달려 이 엄혹한 시각에 맹비호를 뒤받쳐줄수 없는것이였다....

맹비호가 방안에 들어설 땐 협의회도 한 매듭 꺾어들무렵이였다.

부처장이 그에게 열자리를 권하며 입을 열었다. 《전문가들이 계산해보니 사태가 엄중하구만... 당장 상판보를 폭파해야 하겠소. 어쩔소?》

맹비호는 결상을 끌어당겨 앉으며 급히 되물었다.

《해결책이 그게 다란말이요?!》

방안에는 처에서 내려온 전문가들과 시공과장 병기를 비롯한 사업소 기술자들로 가득 차있었다. 자못 침침한 분위기였다.

부처장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독촉했다.

《결과만 말해보시오!》

수문전문가가 아래턱이 쪽 빠진 얼굴을 무표정하게 쳐들고 허두는 점잖게 뚫으나 목청은 점점 커졌다.

《긴급공사란 명목으로 과학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최고홍수위는 두말할것도 없고 당장 홍수가 24미터를 넘을판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판보 때문에 통수량이 제한 받아 급격히 증가하는 부력과 측면모멘트작용으로 교각까지 통채로 나자빠질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교각이라도 살리자면 방금 타임한 두 경간의 상판보를 폭파하는수밖에 별도리가 없지요.》

방안은 물뿌린듯 조용했다.

이윽고 부처장이 장단이라도 치듯 손시늉을 하며 말꼬리를 했다.

《쉽게 비유하면 홍수가 다리가 단판씨름을 건셈이요. 홍수가 등배지기로 상판을 뚫다치고 교각에 목치기만 안기면 다린 물속에 곤두박힐 판이요…

헌데… 상판이 없어지면 등배지기수를 못쓰니 교각만은 넘어질리 없지 않소… 자-그러니 유일한 방도가 상판을 폭파해버리는것이라는건 불보듯뻔하지 않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기술자들은 아예 입을 봉했다. 이거야말로 제 목에 칼대는 격이었다.

잠시후 지배인이 눈귀를 쪼프리고 목선소리로 피로운 침묵을 깨뜨렸다.

《피고석에 앉았지만 한마디 합시다. … 동무들, 그레 당앞에 결의한 완공날자가 한달이나 지연되는 후파를 생각해봬소? 이젠 당앞에 죄를 짓는거요! 당에서는 지금 150만톤 유색금속고지점령에서 주요동맥으로 될 이 철길다리가 하루속히 완공될것을 얼마나 고대하고있습니까!》

부처장이 불쑥 한마디 던졌다.

《거야 다같은 심정이요… 하지만 눈앞에 현실을 놓고 말해보시오! 그레 더 큰 파오를 범할수가 없지 않소!》

수문전문가가 말꼬리를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강진구실장의 최고홍수위주장은 한시간내에 팽혹하게 파산될 오산이지요! 자연의 법칙은 인정사정이 없지요… 싫던중던 교각을 살리자면 폭파는 해야 합니다.》

이 찰나 시공과장 병기가 벌떡 일어섰다. 열기편 목청으로 내뻘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시공측과 설계측의 책임

한계를 묵과할수 없습니다.》

지배인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병기를 쏘아봤다. 그가 막바지에서 발뻘하려는것이 패심했다.

《말은 바른대로 나도 한뼘 강우량측정에 발벗구나섰던 사람이요… 그러나 설계가가 도제 4년 동안 연구한걸 가지구 교각높이 30미터를 24미터로 몽청 잘라버린덴 의견이 있었지요… 이게 바로 근본 화근이웨다.》

《과장동무의 말이 맞소!… 담보시간도 없는 순주관적인 행동이요.》

수문전문가가 볼부는 소리를 질렀다.

지배인 맹비호는 가슴이 아팠다. 돌이켜보면 보물천에 일곱번째로 건설된 이 다리설계는 강진구의 류다른 고충과 량심의 산물이였다.

…보물천사람들은 자기를 《악새다리 지배인》, 강진구를 《악새다리설계가》라고 룡담삼아 허물없이 불렀다. 듣기 거북하나 별수 없는 노릇이였다. 보물천의 최고홍수위를 규정할수 있는 50년의 수문자료는 고사하고 몇년동안의 변변한 관측 통계자료도 없었다. 헌데 력대로 전해진 큰물 풍설은 자자하고 무시무시했다.

전문가들은 제나름으로 최대 안전성이 확보되는 가상홍수위를 규정했다. 이것이 발편잡을 잘수 있는 상책이였던것이다.

그무렵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벌어졌다. 진구의 안색은 심각해졌다.

보물천 물면에 비낀 꺾두룩한 군청색다리 그림자가 자기의 비뚤어진 량심을 그대로 비쳐주는듯했다. 저 높은 다리들이 얼마나 많은 자재와 로력을 랑비했으며 다리력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불편을 주고있는가, 또한 웅장하고 수려한 조국의 모습엔 얼마나 큰 손상을 끼치고있는가! 한 설계가가 그대로 하고 다음 세대의 설계가가 그대로 하면 그 언제 가야 이 《악새다리》가 사라진단말인가!

진구는 이때부터 분연히 보물천 최고홍수위를 찾기 위한 《고행길》에 발벗고 나섰다…

부처장은 몸을 뒤로 चे치며 손을 내저었다.

《허허… 설계가를 추궁하긴 때가 늦었소. 침상에서 일어도 못나는 중환자요.》

바로 이 순간 뒤문이 슬며시 열렸다. 체소한 몸에 이마가 벗어진 사람이 들어섰다. 누구도 인기척소리를 여겨들지 못했다.

그 사람은 맨 뒤줄 빈구석자리에 쪼크리고 앉았다. 앞줄의 덜컹진 체통이 그의 머리까지도 가리워버렸다.

누렇게 뜬 가름한 얼굴의 백지처럼 창백한 눈지방은 병세가 위중하다는 인상을 대번에 안겨주었다. 하지만 두눈동자만은 깊은 우려와 뜨거운 호소를 간직한듯 은은하게 빛났다.

그가 바로 한창 말밥에 오르코있는 강진구였다. 현장에 주재하는 보조설계자로부터 폭파문제가



일정에 올랐다는 기별을 받은 그는 의사들의 준렬한 만류도 뿌리치고 공사용자동차에 몸을 싣고 방금 당도했다.

부처장이 일어섰다. 결속할 잡도리였다.

《폭파는 기술그루빠의 결심입니다. 판 의견들이 없겠지요?》

부처장이 좌중을 쪽 돌아왔다. 침묵이 흘렀다. 그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결상을 잡아당겨 앉으려는 순간 친구가 머리를 비죽이 내밀며 일어섰다.

《여기 있습니다!》

부처장은 입을 벌린채 제물에 주저앉았다. 친구가 분명한가 하고 다시 올려다봤다.

모든 시선들이 친구한테로 쏠렸다. 그를 질책하던 사람들도 아연실색했다.

친구는 두손으로 앞결상 등발이턱을 붙잡고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의지했다.

《폭파는 절대로 허용할수 없소. 그리고 시공도 중지할수 없소! 아직은 설계가 오작이라고 단언할 아무 근거도 없소. 그래 큰물이 24미터를 넘었다단말이요? …》

친구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문졌다. 말소리가 소름이 가라앉았다.

《물론 폭파하는것이 제일 험하고 간단한 긴급대책이지요. 그러나 이 다리를 위해 바친 인간들의 운명과 기업소의 영예와 조국에 다진 맹세가 폭파된다는걸 명심해야지요… 사람도 사업도 마지막 한 순간을 어떻게 견지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지요.》

전 다리를 구원하는 대책이 폭파가 아니라 홍수가 등배지기를 뜨기 1초전까지 싸울수 있는 신념과 인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란하던 방안이 일시에 조용해졌다.

병기는 고개를 푹 떨궜다.

야살스럽던 수문전문가도 쓴입을 찡찡 다셨다.

부처장이 눈살을 찌프리며 한마디 튕겼다.

《중소. 절충안이요, 폭파는 한시간 연장하되 23.8미터만 되면 무조건 앞당긴다. 에누리없는 한시간!》

협의회는 강진구의 뜻밖의 출현으로 어수선하게 마무리졌다.

기술그루빠는 다른 공사장으로 떠나가버렸다…

## (2)

한시간… 인간의 한생에 비하면 밤하늘에 번쩍하고 별찌가 스치는 눈깜짝할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강진구에겐 분초를 쪼개야 할 천금같은 시간이였다.

협의회가 끝나자 그는 안간힘을 써서 수위척이 세워진 여울목으로 허둥지둥 다가갔다.

먼발치에 맹비호가 우두커니 서있었다. 인기척소리에 그는 돌아서서 친구를 부축해주었다. 두

사람은 마주 쳐다봤다. 뜨거운것이 가슴속에서 타래쳤다. 그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송아지동무인 그들은 단 둘이면 너나들이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 몸으로 오다니… 당장 돌아가라구… 차를 대기시켰네.》

《자네 혼잔 감당못해… 내가 여기 누워있어야 자네가 허리를 펴지…》

맹비호는 눈시울이 뜨거웠다. 친구의 말이 옳았다. 친구가 오지 않았으면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딱했을것인가.

비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보나? 또 불어났네. 23.7미터야.》

《그래서?》

《돌심장이 아니구야 참기 바쁘군! … 난 담보시간을 내놓으란덴 말문이 막히네.》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 담보시간을 통계적방법으로 얻을수 없기때문에 가장 험난한 지질학적방법으로 찾아내려고 했다. 현대 그건 관찰자의 주견이 지배하니 객관성을 띠지 못한다고 부결당했던것이다.

이때 친구의 뇌리를 강하게 충격하는 하나의 령감이 떠올랐다.

이제부터 한시간사이에 자기가 그린 최고홍수위 지형도의 지형지물과 현재 물면 마루의 높이를 강물을 따라가며 대조확인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최고홍수위의 시간적담보를 찾아낼수 있지 않을까? …

맹비호는 긴장하고 답답한 분위기를 가셔버리려고 판전을 부렸다.

《큰 딸이 의대를 졸업했나?》

《작년에 도병원에 배치받았네…》

《그럼 자네 병은 푹 뎀셈이군…》

친구는 어설픈 미소를 띠었다. 비호는 미처 친구의 눈주름에 비꼰던 순간적인 음산한 그림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제부터 내가 요구하는건 군말말고 들어주게… 승용차를 좀 쓰세.》

《왜? 말젠가?》

《강역을 따라 물맥을 짚어보겠네.》

《머? 물맥… 견내려겠나? 그럼 사람을 붙여주지.》

《소용없네… 자기가 해야지… 한시간만 기다려달라구… 한시간이야!》

《꼭 기다리겠네…》

친구는 그 어떤 살뜰한 말을 하려다가 꿀떡 삼켜버렸다. 웬일인지 비호의 손을 한번 더 붙잡고 대기승용차결로 다가가는 친구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비호는 눈곱이 뜨거워났다.

비호와 친구는 보물천의 젓줄기를 빨며 잔뼈가 굵었다.

보물천류역은 금수강산의 축소판이였다.

상류엔 산천어, 화련어, 잉어, 초어가 옥실거리고 하류엔 철따라 연어, 송어, 뱀장어가 떼를 지어 바다로부터 오르내렸다.

깊은 산고랑으로 들어갈수록 소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전나무가 울창하고 온갖 산새와 산짐승들이 모여들었다. 높은 산발밀엔 금은보화가 층층이 묻혀있었다.

보물천을 거슬러 오르느라 강기슭에 좁다란 등판도 사라지고 깎아지른듯한 층암절벽이 치마주름처럼 잡힌 골짜기가 갑자기 시야를 막아버린다. 여기가 바로 박새골이다.

해방될 때까지만 하여도 강 하나 사이두고 남쪽 기슭까지 신작로가 났었다. 강가에 매생이나루터가 있었다. 움푹 꺼진 바위너설밑에 배사공 지로인데 외딴 초막이 움츠리고있었다. 북쪽기슭은 급한 산비탈인데 화전민들의 귀틀막과 금전판, 품팔이군들의 오두막이 더덕더덕 게딱지처럼 납작 붙어있었다.

여기서 그들은 꿈많은 어린시절을 속절없이 흘러보냈다.

해방이 됐다. 그들은 열네살나이에 난생처음으로 책가방을 썼다.

전화의 나날에 그들은 어깨 나란히 락동강 불비속을 헤치고 돌아온 전우였다. 친구의 배낭엔 《다리학》이 줄창 따라다녔는데 여기엔 남다른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군복을 벗자 나란히 건설대학에 들어갔다.

20여년동안 그들은 보물천에다 어린시절의 꿈이었던 여섯개의 크고 작은 다리를 건설했다.

이제는 그들의 머리에도 희색희숙한 서리가 해가 다르게 촘촘히 내려앉았다...

맹비호의 눈앞으로 이 모든 옛 추억이 감회깊이 흘러갔다. 가슴이 몽클했다.

바로 이때 《지배인동지!》하고 부르는 랑랑한 처녀의 목소리에 그는 단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슴뻐거렸다.

《이게 누구야 응? 은이가...》

친구의 딸 은이가 구급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썰썰 웃고있었다. 이마엔 몽골몽골 구슬땀이 맺혔다.

맹비호는 은이의 손을 붙잡구 대견하게 쳐다봤다.

복숭아꽃같이 붉어진 가름한 얼굴에 억실억실 두눈이 구슬처럼 반짝거리는 예쁘장하게 생긴 야무진 처녀였다.

지배인은 어리벉벉했다. 흔히 사람들은 제 늙은 줄은 모르고 자기가 안아주던 귀염둥이가 의젓한 어른이 된걸 보면 별스레 신비감과 구속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질투가 나는데... 딸딸이 다르군. 하하.》

그는 은이한테 친구와 자기가 당하고있는 엄혹한 시련을 촉감하지 않도록 말을 애돌렸다.

《병원에서 당장 후송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은이는 다른 의사들을 제쳐놓고 자기만이 여기로 오게 된 그 이유를 지어는 지배인한테까지도 말할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한발 늦었군... 아버지 물맥을 짚어보겠대구 금방 떠났지... 내 사무실에 가서 한시간만 기다리면 돼.》

《예? 한시간이나요? 저...》

은이는 무엇인가 말하려고 입을 벌렸다가 목구멍까지 치미는걸 슬며시 넘겨버렸다...

... ..

강진구는 홍수를 맞받아 20리를 거슬러 박새골여구의 등판에 당도했다.

승용차를 대기시켜놓고 그는 잡풀과 덩굴이 무성한 강녘으로 한치한치 거부기같은 무르팍걸음으로 헤집어나갔다.

수첩을 꺼내들고 자기가 설정한 최고홍수위선에 위치한 지형지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너럭바위... 문바위... 돌각담... 돌우물... 담쟁이... 으름덩굴...

그 어느 하나도 큰물에 잠겨들어간것이 없었다.

자기가 찾은 최고홍수위선은 여기서도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렇지만 그 모든 지물들은 홍수피해를 받지 않은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야속하게도 지물들엔 홍수에 침식된 흔적경계선은 어렵곳이 남아있으나 그 경계선이 그어진 력사의 년륜은 새겨져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그 어떤 지물이 이 력사의 비밀을 간직하고있을가?

별안간 친구의 눈앞에서 흐리멍덩한 하늘과 범람한 강물에 얹치고 뒹치며 평평 떠돌았다.

그는 《앗》하고 소리치며 물녘에 꼬꾸라졌다. 절망적인 타격이었다.

골짜기를 밀어낼듯한 넓은 강쪽으로 소용돌이치며 너울거리는 홍수는 마치도 탐욕에 찬 흰거품을 물고 덮쳐드는 수만마리의 승냥이떼들처럼 친구에게 사정없이 덮쳐들었다.

이때 그의 몽롱한 의식은 환각의 심연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다.

몽개몽개 피어나는 물안개를 헤치고 눈부신 해살을 받아안고 솟아오른 철교, 가슴을 파고드는 우람찬 기적소리, 그를 향해 달려오는 정다운 렬차...

아 그런데 웬일인가? 오매에도 그리던 우리 수령님께서 렬차에서 내리시여 만면에 밝은 미소를 담은신채 오색령룡한 꽃노을속에서 걸어오시지 않는가!

진구는 두팔을 벌리고 앞으로 솟구치며 온 정신을 가다듬어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웨쳤다.

《아버이수령님! 수령님!》

오매에도 잊지 못하던 그리운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우러러 수천백리 불비속을 헤쳐왔고 바

로 그 모습을 우러러 수천리 험산준령을 넘나들지 않았던가.

순간 온몸의 붉은 피는 달아오른 머리로 솟구쳐 오르고 아름다운 환각은 어린시절 박새골에 깃든 가장 소중한 옛 추억으로 나래쳤다.

…해방된 이듬해 여름 장군님께서 보물천을 찾아주시었다. 때마침 장마가 저서 큰물이 넘실거렸다.

장군님께서 박새골 나루터의 높은 바위우에 서시어 이윽도록 아쉬운듯 강 건너 대안쪽을 살펴 보시었다.

장군님께서 오셨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강 건너 대안의 남녀로소가 몽땅 떨쳐나왔다. 만세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했다.

그리운 장군님께서 환히 웃으시면서 손을 드시어 답례하여주시었다.

진구와 비호는 앞으로 뛰쳐나갔다. 야속한 보물천이 가로막았다. 그들은 타래치는 물속에 뛰어 들어 팔을 내흔들었다.

《**김일성** 장군님 만세!》

그 애라는 목소리를 듣던 사람들은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장군님께서 모자를 벗어드시어 어서 돌아서라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떠날 차비를 하는 수원들에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기어이 나루터 초막집에서 한밤을 류하시고 이른새벽에야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었다.

나루터의 승용차와 불빛 꺼질줄 모르는 초막집을 바라보던 비호가 주먹을 들고 보물천을 저주했다.

《마른 벼락이나 탕탕 쳐서 보물천을 콧 메꾸라.》

진구가 먼박을 주었다.

《야 곰통아! 보물천이 어쨌어? … 다리없는게 원썩야!》

《흥, 곰같은 소리… 이 큰 강물에 다릴 어떻게 놔?》

《내가 크면 놀테야.》

《고양이같이 작은게 무슨 맥춘다구… 내가 놔!》

《통나무다린줄 아니? 배워야 놔!》…

진구는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자기의 첫걸음을 떼던 잊을수 없는 이 추억을 되새기군했다.

헌데 자기의 마지막 걸음은 당이 맡겨준 과업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심장을 도려내는 폭음소리를 안고 종지부를 찍는단말인가? 안된다. 안돼! 나의 마지막 걸음도 첫걸음처럼 궁지가 있어야 한다. 진구는 힘껏 머리를 저었다. 차거운 물보라가 친구의 험클어진 머리칼을 흠뻑 적셔놓는다, 미구에 그의 귀엔 가느다란 부름소리가 우람찬 파도소리속에서도 아리송하게 들렸다.

귀를 바짝 강구었다.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소

리였다. 뿌연 물안개에 휘감겨 소리나는 쪽을 가늠할수가 없었다. 목을 빼들었으나 소리가 입안에서 맴돌이쳤다.

이윽고 후리멍텅한 시야에는 꺼먼 그림자가 나타났다. 운전수였다…

강진구가 눈을 떴을 때는 박새골 지로인의 사랑채에 누워 있었다.

그는 눈을 뜨자바람으로 시계부터 들여다봤다, 50분이 지났다! 남은 시간은 이제 10분! 지로인이 팔팔 끓은 꿀물을 담은 큰 대접을 들고 들어왔다.

《어서 이 꿀물을 마시라구… 거뿔해질걸세…》 지로인이 권하는대로 꿀물을 마시고 땀을 쪽 빼고나니 혈기가 돌고 사지가 한결 가벼워졌다.

지로인은 진구를 유심히 훑어봤다.

《임자! 내 눈은 못숙이네… 골병이 들었군…》

《아… 일없습니다. 이만한 병쯤이야…》

《그런데두 다리때문에 이 고생을 하나? 난 산중에서두 임자를 몇번 구원했네만 이런 불치병을 앓은줄 미처 몰랐네그려… 보통 사내들은 문지방은 고사하구…》

지로인은 동정어린 눈으로 진구를 살피다가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했다.

《그래 임자같은 사람이 없진 않지. 요즈음 임자같이 강턱을 두지는 학자네가 차돌골 강턱에서 오천년 묵은 옛집터를 찾아냈다나. 희한하기라구야… 돌도끼랑 돌활촉이랑 얻어봤다는구만. 아직은 입을 봉하는가봐…》

진구의 번민하는 두뇌에 충격적인 불꽃이 튀었다. 번개처럼 스치는것이 있었다. 차돌골은 여기서 5리 내려간 강기슭에 있었다.

그는 앓던 사람같지 않게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몸은 어느새 문지방에 뒤걸음쳐갔다.

얼핏보면 낯간 사람이었다.

《로인님! 이 신셀 어이 다 갓겠습니까.》 하고 인사말을 남길새없이 승용차에 올라앉았다.

지로인은 입을 찻찻 다시었다. 다 죽은 사람이 불사약을 마신것보다 더 희한했다.

진구는 그 길로 승용차를 차돌골로 내몰았다.

### (3)

경각에 달달한 다리의 명줄은 이제 진구가 한시간내에 돌아오는가 못돌아오는가에 달렸다. 한시간내에!

이런 때 간절히 찾는 사람을 눈빠지게 기다리기관 가슴을 불김으로 지지기보다 더 괴롭고 초조했다.

벽시계의 철걱철걱 하는 절주소리는 비호의 가슴에 여지없이 죄어들었다. 그는 창문가로 오락가락하며 벌써 담배를 다섯대나 태웠다.

방안에 담배연기가 모기불 피운듯 자욱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안절부절 못하던 은이도 아

버지를 기다리기에 지쳐버렸다. 손목시계를 안타깝게 들여다봤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드디어 한 시간이 다가왔다.

《찌르릉… 찌르릉…》

송수화기의 호들갑스런 신호소리가 또 울렸다. 벌써 일곱번째나 보챌다!

지배인은 이마살을 찌프리며 수화기를 벌컥 들었다. 성가신 음성이었다.

《부처장동무가 또 독촉한다구?… 결과를 보고하라… 알겠소.》

은이는 더 앉아 기다리기가 피로왔다. 지배인의 피발이 벌겋게 진 눈자위와 터실터실 헤어진 입술은 그가 며칠째 침식을 잃고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대신하여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병원에서 떠날 때만 해도 마음은 가벼웠고 당장 아버지를 돌려세우려고 마음 다지고 있었다.

이렇게 분초를 다투는 준엄한 자연과의 결투에 맞설줄은 미처 몰랐다.

이 엄혹한 시각에 아버지는 왜서 나타나지 않는가? …

은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오직 자기 아버지라는데서만이 아니라 다리의 운명을 걸머진 설계가로서 이 결투를 치를만한 육체적능력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를 더욱 초조하게 했다. 그의 생명은 시간적으로 정확히 따져도 이제 얼마밖에 남지 않았다.

이 사실을 은이는 지배인에게 말할수 없었다. 아버지의 준절한 부탁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지배인은 저렇게도 안타까이 자기아버지를 기다리고있지 않는가!

책상위에 놓은 휴대용 무선수화기에서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가 터졌다.

《나 수위척 관측원이다. 지배인인가?》

맹비호는 눈섭을 곤두세우고 무선수화기를 들었다.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시공과장 병기가 긴장된 낯색으로 들어섰다.

《나 지배인이다. 말하라!》

《수위가 23.8미터로 올랐다 들었는가?》

《다시 복창하라.》

《수위가 23.8미터로 올랐다 들었는가?》

맹비호는 아무 대답없이 한걸음 물러서면서 맥없이 결상에 풀썩 주저앉았다.

휴대용수화기에선 연방 《들었는가? 들었는가?》하고 지쫘게 소리쳤다.

병기가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고 《알았다.》하고 대신 대답했다.

은이는 그만 눈길을 마루바닥에 떨쳤다. 아버지의 기술적종말을 예감했다.

맹비호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자기가 예상한대로 최악의 경우가 닥쳐왔다. 지

휘관에게 차례진 시간적여유는 끝장났다. 이제 필요한건 론쟁도 협의도 사색도 아니라 천군무계를 가진 명령 한마디뿐이었다.

가슴 조이며 고대하는 친구도 깜깜 무소식… 상급기관의 불같은 독촉… 시공과장의 끈질긴 푸념… 더구나 은이의 실망과 고민에 찬 눈길…23.8미터 의 수위면…

맹비호는 친구를 지지하던 마음의 지탱점이 밀뿌리채 거덜이 난듯싶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거늘… 과연 강진구가 최고홍수위면을 찾기 위해 바친 삶의 대가가 이렇게도 가혹하단말인가!

《지배인동무! 말을 좀 해야 하겠습니까.》

병기의 열기 띤 목소리였다.

《어서 이야기하오.》

맹비호는 누그럽게 대답했다.

《지배인동무와 친구실장은 각별한 사이관결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인동무가 결코 그 때문에 지지한것은 아닙니다. 친구실장의 당적량심과 그 피타는 노력을 믿어서였지요.》

맹비호는 놀란 눈빛으로 병기를 올려다봤다.

《저도 친구실장을 지지하고 실험관측도 적극 도와주었지요… 하지만 이제 겨우 얻어진 4년 동안의 관측자료를 가지고 한다 하는 수문전문가들과 맞서는건 너무하지요. 그들은 국내외의 모든 기술공식으로 무장했으니까요.… 다리설계라면 친구실장을 첫손 꼽지만 홍수문제에서야 겨우 4학년생이나 다름없지요.

그러니 어떻게 그의 주장을 믿구 앉아 뭉개기만 하겠나요?》

맹비호는 눈을 감고 병기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있었다. 병기가 안고 모대기는 심정 그대로 《저야 지배인동무와 함께 십년동안 다리와 씨름한 사람인데 다리군들의 의리를 저버릴수 있나요.

폭파도 안하고 우물쭈물하다간 다리를 몽땅 몰살시키구 아까운 친구실장까지도 책임적과오를…》

맹비호는 눈을 번쩍 떴다.

비록 병기가 친구의 충성심의 깊이를 다는 헤아리지 못했어도 어쨌든지 그도 친구와 다리를 구원할수 있는데까지 손써보자는 최후의 결심이 아닌가. 그러나 그 여부는 이미 불보듯 뻔하다. 자기도 그 이상 다른 결심을 내릴수 없었다.

《시공과장동무! 동무가 폭파할수 있겠소?》

《손이 떨려도 해보겠습니다.》

《동무 마음대로 하시오! 모든 책임은 내가 전적으로 지겠소.》

병기는 숨을 훑- 하고 길게 내쉬었다. 눈을 질끈 감더니 핵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맹비호는 말없이 투박투박 방안을 거닐었다. 한 시간사이에 얼굴의 주름살이 더 패우고 머리에 흰서리도 더 총총해진듯했다.

은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배인동지!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의 아버지도 지배인동지의 결심에 동감하실 겁니다.》  
 맹비호는 은이를 돌아보며 허거푸게 웃었다. 두툽한 입술을 삐죽이 내밀었다.  
 《동무 아버지 낄 원망할거요...》  
 그는 창문가에 다가섰다. 혼자말처럼 외웠다. 눈시울엔 침통하고 애달은 빛이 감돌았다.  
 《진구! 자넌 어데 가있나? 어서 오라구...》  
 은이는 눈두덩이 뜨거워났다. 비록 아버지의 병세가 오늘 래일하지만 이처럼 사람들의 사랑속에서 살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더없이 필요한 존재라는것을 느꼈을 때 어쩐지 자기 아버지는 의사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그런 초인간적인 기적의 힘으로 금시 건강이 회복되어 돌아올것만 같았다. 은이는 길목으로 뛰쳐나갔다.

.....  
 박새골 지로인과 헤어진 강진구는 승용차에 몸을 실자 안주머니속에서 보실보실 보풀이 인 두툽한 수첩을 꺼냈다. 그 틈새에 끼워둔 자기 심혈의 결정체인 최고홍수위경계선 지형도를 펼치고 차돌골 강녘 위치를 더듬어갔다.

수천볼트의 두 전극이 마주칠 때 눈부신 섬광이 일어나듯 인간의 정신적긴장도가 극도에 도달하면 고심과 탐구의 두 극사이에선 순간적인 령감이 뜻밖에도 불꽃튀는 법이다.

진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창백한 눈언저리에 노을빛 홍조가 실오리처럼 가늘게 피어났다. 입가는 웃는지 우는게 분간할수 없는 움직임으로 풀려거렸다.

(아- 바로 이 강녘에서 오천년전 유적이 발굴되었단말인가!

만약 최고홍수위가 그 강기슭을 넘었다면 그 유적지는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거나 상류에서 밀려내린 토사와 력석에 묻혀 지질학적으로는 신생대 사기층 밑창에 깔리고말았을것이다.

그렇다면 이 최고홍수위선은 당연 오천년이란 시간적담보가 확증되는 탐구의 새 언덕에 오른셈이 아닌가!

오십년동안의 수문통계자료가 없이는 보물천의 최고홍수위를 론할 여지도 없다는 사람들에게 오천년의 풍상이 깃든 산 담보로 당당하게 대답할수있지 않는가!)

차돌골어구에 이르자 강기슭 벼랑에 둘러싸인 나지막한 들만이 한눈에 안겨왔다.

진구는 차에서 내려 따라나서는 운전수를 억지로 뒤에 남긴채 잡관목이 무성한 풀밭을 헤쳐나갔다.

드디어 강녘이 나타났다. 범람한 홍수는 광광하고 웅굴진 산울림을 남기며 후미진 여물끓에 곧두박쳤다. 그러자 대줄기같은 물갈기를 공중높이 휘뿌렸다. 지척을 사이두고 부유스름한 물안개

속에 재빛으로 얼른거리는 천막 꼭대기가 눈에 띄었다.

불현듯 진구는 온몸을 우벼내는 모진 진통을 느꼈다. 마치 타래송곳뭉치가 자기 내장에 밀구멍을 뚫는것만 같았다. 그는 두손으로 썩새흙을 움켜쥐고 가까스로 줄가리나무의 보긋을 우악스레 깨물고 이발을 으드득 같았다.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꺼저드는 정신을 뒤지며 천막을 향해 한치한치 배밀이로 뚫아갔다.

진구는 드디어 천막휘장을 붙잡았다. 고통스러운 아픔이 몰려갔다. 안도의 긴숨을 내쉬었다.

그가 천막안에 들어서니 세사람이 이마를 마주대고 앉아 조산원이 갓난애기 다루듯 발굴된 유적물들을 귀중함에 담아넣고있었다.

그들은 난데없는 인기척소리에 일손을 놓고 진구를 췌하니 넘겨다봤다.

진구는 숨가쁘게 물었다.

《고고학자들이십니까?》

안경을 낀 반백의 로교수가 허리를 펴며 일어나더니 의아쩍은 눈길로 진구를 뜯어보았다.

진구는 난색해서 가냘픈 미소를 지었다.

《전 다리설계가입니다. 대홍수에 공사가 중단되어 학자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무슨 말인지? 대관절 고고학이 다리건설을 돕는단건 고급내외 금시초문인데요.》

로교수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치부하려고 했으나 진구의 사려깊은 안광에 그만 마음이 동했다.

진구는 책상우에다 최고홍수위경계선 지형도를 펼치며 말했다.

《도움 받자는건 당신들이 발굴한 유적지 지형도와 등고선을 대조해보자는겁니다.》

로교수는 짐작이 간듯 밝은 눈웃음을 지으며 첩계를 열고 지형도를 꺼냈다.

진구는 두지형도를 번갈아 훑었다.

한 연구사가 탁상등을 진구의 코밑에 바싹 대고 비쳐주었다.

진구의 잔주름이 발고랑처럼 진 너부죽한 이마에서 비지땀이 방울졌다.

순간 진구는 두손으로 책상모서리를 짹 틀어쥐었다. 모든 시름과 고통이 눈사태처럼 한꺼번에 그의 엉성한 어깨에서 미끄러져내려가는듯했다.

온몸이 가볍게 떨렸다. 회열과 슬기에 찬 눈빛으로 로교수를 바라봤다.

《선생들이 다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들은 영문을 몰라 눈들이 휘둥그래졌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찍은 최고홍수위 가상선표고보다 당신들이 발굴한 유적지 끝모서리의 표고가 20센치가 더 높습니다. 만일... 기존 최고홍수위가 이보다 높았다면 유적지는 이미 류실되었을것입니다.

당신들은 고고학에서 새로운 발굴을 했을뿐 아

니라 수문학에서 누구도 론증못한 오천년의 담보 시간을 력사의 산증거로 보여주었지요.》

로교수는 흥분했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었다. 오천년전 우리 선조들이 벌써 자연과의 투쟁을 통해 수문학적과학을 가지고 거처지를 선정했다는걸 시사해주며 또 발굴사업에서 허탕치지 않을 한계선을 그어준것이었다.

로교수는 안경을 벗어두고 친구와 그의 지형도를 존경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다.

《설계가는 큰 발견을 했소! 알구보면 너무도 단순한 진리지만... 그것을 얻자면... 그래 이 수천리 경계선을 다 답사했단말이요?》

《4년이 걸렸지요.》

로교수의 시선엔 거미줄같이 뒤엉킨 복잡한登高선이 아니라 그위에 숨어있는 친구의 피땀이 어린 발자취가 오래도록 떠올랐다. 그러나 로교수도 불치의 병마에 시달리는 한 인간의 죽음을 이겨내는 강의한 의지와 그 충성심만은 미처 다는 해아릴수가 없었다.

로교수는 껄껄 웃으며 흐뭇한 기분으로 너스레를 피웠다.

《창피하지만 피난민 보따리를 도루 풀어야지 허허...》

친구의 머리속에는 이런 의문이 문뜩 스쳤다. 자기의 홍수편연구와 박새골에서의 유적의 발굴은 신수가 좋은 우연한 합치인가? 이 고고학자들이 박새골부근에 이런 유적이 있을줄 어떻게 알아냈단말인가?

안경알밑에서 유순하게 쪼프린 로교수의 눈동자가 전에없이 신비스럽기만 했다.

《선생님은 무슨 눈을 가졌기에 오천년전을...》

《신비한것이란 하나도 없지요.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주체의 관점으로 오천년전을 투시하면 된다고.》

신석기시대 선조들의 자연지리적 생활조건이 가장 원만하게 갖추어진곳의 하나가 바로 여기 보물천 박새골부근이니까...》

친구에게는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보물천, 박새골, 물고기뼈, 산짐승, 등판, 열매나무...열핏보면 우연한 행운으로 여겨지는 이 합치도 주체의 신념이 가져다준 필연적인 결과인것이다!

친구는 천막에서 나오자 승용차를 전속으로 달려게 했다.

시계를 보니 약속한 한시간보다 10분이 지체되었다. 아 10분이!

친구의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떠올랐다. 폭파? 그렇다! 폭파? ...

이윽하여 승용차는 공사장이 굽어보이는 산중턱에 올라섰다. 길은 물안개에 감싸인 다리는 도저히 형체를 가려낼수가 없었다.

갑자기 <썩-> 하고 승용차가 급제동을 걸었다.

운전수가 차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뒤목을 퍼

부었다.

《동무 정신있소! 길 한판에서...》

《미안해요, 기다렸어요. 기다렸...》

구급가방을 어깨에 걸친 은이는 목이 메여 말끝을 흐렸다.

친구는 한숨을 호- 내쉬었다. 가파나 바쁜 길에 웬 처녀가 울먹거리며 태워달라고 애걸복걸 하는줄 알았다.

난데없이 《아버지-》 하고 목메인 소리를 치며 은이가 달려들었다.

친구는 뜻밖이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네가 어떻게? ...》

《당비서동지가 보냈어요.》

친구는 코등이 시큰했다. 자기가 그 어델 가도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손길이 미치고있었다. 이젠 폐인이나 다름없는 자기 신상을 넘려하여 이처럼 팔까지 보내주다니...

은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젠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자요... 시간이 늦었어요. 지배인동지가 아버질 보시면 가슴아파 견디지 못해요.》

《뭐라구? ... 늦었다구!!》

이거야말로 친구에겐 마른 벼락보다 더 했다.

머리카락이 곤두 일어섰다.

친구의 눈에서 시퍼런 불줄기가 내뿜었다.

얼굴은 화석처럼 굳어졌다.

《폭파했는가?》

은이는 아버지의 이처럼 준절한 음성을 들어보긴 난생처음이었다.

《시공과장이 간지 20분이 넘었어요. 폭음소린 아직...》

은이는 겁에 질려 모기소리로 대답했다.

친구는 차에서 내리더니 무작정 가시덤불을 헤치고 다리건설장쪽으로 허겁지겁 나땡굴듯이 내려갔다.

한동안 그자리에 말뚝처럼 박혀있던 은이가 단숨에 아버지를 따라잡아 길을 막아나섰다.

《아버지! 이러지 말아요. 사람들은 아버지때문에 안타까와해요...이렇게 ...흐흐...마지막순간까지 고생만 하시겠어요... 네-》

은이의 눈물섞인 절절한 말마디에 친구는 낮을 쯤 그랬다. 성이 울컥 치밀었다.

《뭐- 고생? 내겐 이게 락이다! 개인을 위해서 단맛을 보는게 락인줄 아니? 조국을 위해서 쓴맛을 보는게 진짜 락이지! 살아서 존경받는것보다 죽어서 존경받는게 진짜 존경을 받는거야...》

친구는 은이를 뒤뚱군채 비틀걸음으로 걸어나갔다.

은이는 지배인을 찾으려고 공사지휘부쪽으로 줄달음쳤다.

#### (4)

지배인 멧비호는 무시로 벽시계를 넘겨다보다가 이젠 눈길도 딱 들어붙고말았다.

시공과장이 눈을 꼭 감고 폭파하려 나간지도 20분...

이제야 저제야 하고 귀를 강구고있으면서도 또 그 소리가 들려올가봐 두려워선지 투박한 두손은 귀구멍을 넓적 가리우고있었다. 멧비호의 손바닥에서 스며나온 땀방울이 구레나룻 거뭇거뭇한 두볼을 타고 축축이 흘러내린다.

칼벼랑우에서도 퇴각구령을 내리지 않을 내가 마지막 10센치라는 목소리에 그만 타협하다니... 비호는 뒹철하게 자기를 돌이켜봤다.

자기한텐 홍수와 싸울 육체적힘은 있으나 폭파를 거절할 두뇌의 힘이 없었다...

출입문이 왁카당 열리더니 은이가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며 들어서서 부리나게 말했다.

《아-버지가 다리로 갔어요.》

지배인은 소스라쳐 일어서며 되물었다.

《다리로?》

《예, 무슨 일을 칠것만같아요.》

지배인은 대뜸 휴대용수화기를 들었다.

《나 지배인이다. 다리목인가? 로동안전원을 바꾸라... 한사람도 통과시키지 말라! 들었는가...시공과장이 화약을 들고 들어갔는가? 5분이 됐다... 알았다.》

지배인은 수화기를 놓자 그바람으로 안전모를 집어쓰고 문밖으로 나왔다. 은이도 뒤따라 나섰다.

발걸음을 다그치던 지배인이 꺾 돌아섰다. 승용차걸로 다가갔다.

《운전수동무, 차를 단단히 정비하라구... 친구실장을 도병원까지 후송하게...》

한마디 던지고는 다리건설장으로 내려가는 가파로운 지름길로 내달렸다...

이때 강진구는 이미 다리건설장 가까이로 한발 한발 툴아내려가고있었다.

온 신경이 귀전에 올랐다.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심장을 도려낼 자지러진 폭음소리가 터칠것만 같았다.

그는 화집에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시공과장 병기가 폭발을 해?! 날 도와주던 녀석이 대홍수앞에서 돌아서버려!》

다리목에서 건설자들이 웅성거렸다.

그들은 허겁지겁 달려오는 친구를 보자 기대어린 눈길로 주시하며 조용히 길을 내주었다. 친구의 랑옆엔 사람들로 담벽이 이뤄졌다.

사람들은 다시 저마다 초조한 눈길을 뿌연 물안개가 서린 다리중심에 모았다.

다리턱엔 다부지게 생긴 청년이 《로동안전원》이라는 완장을 끼고 호각을 불며 출입을 단속하고있었다.

친구는 간신히 다리턱을 짚고 올라섰다.

《누구요? 돌아섰! 발파요!》

로동안전원의 총알같이 야무진 고탄소리가 친구의 귀청을 때렸다.

친구는 무작정 다리우에 올라섰다.

로동안전원이 불이 부어 썩썩거리며 달려오더니 침목같은 팔뚝을 친구의 가슴팍에 내댔다.

《어데서 왔소? 누구요? 썩 물려서지 못하겠소!》

애당초 절벽이었다.

《내가 다리 설계자요.》

《동무가? 다리를 망쳐먹구두... 비키오! 불심지 맛을 보겠소?》

로동안전원은 뺨뺨한 눈총으로 친구를 쏘아봤다.

친구의 얼굴빛이 삼시에 날이 새파랗게 선 칼날처럼 번뜩거렸다.

《동문 자기의 피와 땀이 스며든 이 다리를 폭파하겠단말이요?! 동무같은 사람은 이 다리 지킬 자격이 없소!》

친구의 불호령에 청년은 눈이 켜해서 얼굴에 한발 뒤걸음쳤다.

친구는 휘청거리며 필사적으로 발길을 옮겨디었다. 사품치는 물갈기가 친구를 덮쳤다. 이때 친구는 자기의 어깨를 뜨겁고 굳센 손길이 힘껏 겨안는감을 몽롱히 감촉하였다. 불안개로 하여 흐려진 그의 시야엔 폭풍우에 거칠어진 불그레한 얼굴과 희긋긋한 머리털이 안겨왔다. 누구던가?

... 시급히 사색을 더듬었으나 암만해도 알수 없었다. 그러나 친구는 마치 수십년전부터 생사를 같이한 벗처럼 다정히 웃음짓고 그 굳센 어깨에 허약한 몸을 기대었다.

다리중턱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 나갔던지 친구도 알수 없었다...

시공과장 병기는 화약을 장치하고 불심지를 빼내어 돌돌 풀었다.

안전거리를 가늠하고 물러난 다음 한손에 불심지꼬리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철격》하고 라이다를 켰다.

그런데 두손목이 후두두 떨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전신에 경풍이 일어난 사람처럼 와락와락 떨렸다.

두팔은 자개바람이 이는지 통장작같이 무겁고 저렸다. 이마에선 선땀이 흘렀다. 발목은 목석같이 앞뒤로 가드라들지 않았다.

그제사 자기 손으로 다리를 폭파할수 없다는걸 깨달았다. 그는 투덜거렸다.

(제기랄...내 가슴팍에 불심지를 틀어박아두어 뭣지 않아... 다리를 건설한 사람보구 제 다리를 폭파하란건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병기는 발판우에 풀썩 둘러앉았다.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주섬주섬 얻어보더니 한대 피워물었

다.

밭치에서 소용돌이치는 물살을 건너서 내려다봤다.

(한뼘이 남았구나... 차라리 담배나 꼬나물고 물귀신 신체가 되는게 마음 편안하지... 친구실장 말대로되면 오죽 좋겠나... 저 덩벼드는 기세를 봐서야 어디 물마루높이가 넘는다는게 믿어지나?...)

병기는 눈앞에 벌어질 광경을 지레짐작할수록 소름이 끼쳤다.

저도 모르게 눈을 꼭 감고 라이타를 켰다. 불심지 꼬리에 대려는 찰나-

《병기! 병기!》

하고 목에서 피끓는 소리가 지척에서 터졌다.

병기는 왈칵 놀라며 라이타를 발판우에 떨어뜨렸다. 가슴이 철렁했다.

눈을 치며보니 코앞에서 친구가 란간대를 휘어잡고 비틀거리며 서있고 그옆엔 안면없는 늙은 노동자가 두눈을 지릅뜨고 서있었다.

병기는 쓴살같이 달려들어 친구를 끌어안았다. 눈물과는 인연없다고 장담하던 두눈에 뜨거운 이슬이 가랑가랑 피었다.

친구의 입귀엔 밝은 웃음이 피어났다. 뜨겁게 달아오른 목소리였다.

《고맙소! 병기동무...》

병기는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실장동무를 믿지 못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됐소, 그만하오.》

병기는 가슴이 후터워졌다. 친구와 함께 있으니 모든 불안과 공포감이 가서지고 다리가 꼭 구원될수 있다는 신심이 생겨났다.

그는 퇴판을 잡아당겨 통채로 물속에 처박아버렸다. 그리고나서 친구를 부축하여 다리목으로 걸어나왔다.

맹비호와 은이가 정신없이 다리목에 당도했을때는 병기가 구슬땀에 흠뻑 젖은채 친구를 부축하여 다리턱을 내리짚고있을 무렵이었다.

맹비호는 두팔을 벌리며 달려나갔다.

《강친구실장!》

《지배인동무!》

그들은 뜨겁게 포옹했다. 두사람의 어깨는 굽는 가마뚜껑처럼 가볍게 들먹거렸다.

은이의 손은 달아오른 눈곱에 가닿았다. 병기는 고개를 꼭 떨쳤다.

건설자들은 너무도 뜻밖으로 벌어지는 사태에 영문을 몰라 숨을 죽이고 바라보면서도 얼굴마다엔 웃음이 피어올랐다.

맹비호는 피로운 낫색으로 덤덤히 서있는 병기를 와락 끌어안았다.

《시공과장동무! 아주 잘했소... 진짜배기 다리건설자가 아니면 그렇게 못해!》

《지배인동무, 저를...》

《그러지 마오. 이 지배인이 머리가 굵아서 제

구실을 못한탓이요.》

맹비호는 친구한테로 고개를 돌렸다.

《한마디 하시오. 다리를 구할수 있다는것을 건설자들이 궁금해서 그러요.》

친구는 한발 앞으로 나섰다.

《대흥수앞에서 갈광질광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여기엔 마지막까지 다리와 운명을 같이할 동무들만 남았습니다.》

한뼘을 남긴 저 물마루에 질겁하여 아무런 과학적근거도, 량심의 가책도 없이 폭파하는건 당의 품속에서 지나온 우리 다리건설자의 영예와 위훈을 몽땅 하늘로 날려보내는 자폭행동입니다!

지금 물마루높이는 23.8메터이지만 24메터를 넘지 못합니다.

이건 오천년력사의 산 증거가 담보해줍니다!》

건설자들은 환희와 기쁨으로 들끓었다.

지배인이 친구의 말꼬리를 물고 웨쳤다.

《다들 똑똑히 들었소. 그래 우리 호랑이건설사업소가 언제 한번 당앞에 다진 결의날자를 어긴적이 있소. 대흥수를 맞받아 철길상판콩크리트타입에 충돌격합니다.》

순식간에 다리건설장은 청춘의 활기로 맥박쳤다.

건설자들은 기승부리는 물머리를 깔아뭉개고 서서 콩크리트혼합물을 다짐봉으로 쑥쑥 자리나게 다지였다. 그것은 마치 총창으로 홍수의 숨통을 쿵쿵 찌르는듯했다.

맹비호는 그제사 친구를 돌아보며 재촉했다.

《자- 어서 병원으로 돌아가게.》

《내 말을 한마디만 더 들어주게나.》

《뭔데?》

《자네와 단 둘이 수위척을 가보세나.》

맹비호는 친구의 성미를 아는지라 군말없이 수궁했다.

그는 은이를 보면서

《공사지휘부에서 대기하거라. 네 아버지한테이 코가 단단히 껴있다. 하하...》

하고 너털웃음을 웃더니 친구의 팔목을 끼고 사라졌다....

수위척이 지척인 여울목에서 두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비호는 유정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한시간동안에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알겠나? 내 부모처자는 버려도 자네없이는 살수 없단걸 알았네.》

친구의 가슴은 몽클했다. 아마도 이것이 비호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아보는 기회로 될것이다. 그런데 비호는 그것을 알길없었다.

《고맙네.》

친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았다. 애닦음을 털어버렸다.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비호! 내 말을 잘 들어주게... 미장칼이 건물의 마감을 마무리하듯이 저 수위척은 내 한생의



마감을 마무리해줄것 같아서 자네를 데리고 왔네.》

진구의 말귀를 채 알아듣지 못한 비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비호! 사람은 자기 한생의 마감을 잘 마무리해야 되네... 50년동안 땀땀이 살아도 한생의 마지막 한시간이 너절하면 그 50년이 다 더러워지거던... 이긴 맑은 물을 한독 채워도 마지막 한방울이 먹물이면 검정물밖에 남지 않는거나 같네.》

《그런 이야긴 백발이 성성한 다음 손자를 무르팍에 앉혀놓고 하세...》

《지배인앞에서야 주제넘은 소리지만 먼저 갈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야... 내가 없어도 그렇게 살아주게...》

비호는 후닥닥 일어났다. 두팔을 내흔들었다.

《자네한테 당장 의사가 필요해... 피로했네!》

그가 자리를 뜨자 진구는 혼자 남았다.

강진구는 독살스러운 병마에 시달리면서부터 때때로 이런 물음이 머리에 떠오르곤했다.

사람의 육체적생명이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자기 손으로 인생의 문을 닫아야 가장 행복하게 눈감을수 있겠는가?

평시에 그리도 쉽사리 외우던 답변이건만 어떤지 대답하기 그렇게 힘겨웠다.

허나 지금 이 시각 홀로 앉아 수위척을 들여다보는 그의 뇌리엔 그 대답이 저녁노을처럼 선명하게 안겨왔다.

(잔잔한 생활의 수면이야 곡절도 시련도 없는 인생향로의 평탄한 물길을 마련해주지. 그 물길을 따라선 남이 지어준 서정가로나 흥얼거리며 행복의 단맛밖에 몰라. 그런 물길에서 한생을 보낸 사람은 눈감기가 허전하고 쓸쓸하지.

오직 엄혹한 생활의 수위면에 뛰어들어 풍랑사나운 투쟁의 고초를 겪어봐야 이 땅에 무엇이든 제손으로 새로운걸 더 보태줄수 있고 그길에서 행복도, 쓴맛도, 짠맛도, 감칠맛도, 꿀맛도 다 맛볼수 있지... 이게 사람의 산보람이지... 이런 사람이구야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다진 충성의 맹세를 끝까지 지켜 싸웠다는 안도감에 싸여 버섯이 눈을 감을수가 있지...)

진구는 이렇게 되뇌이며 필사적으로 마음을 가다듬었으나 의식은 점점 몽롱해지고 온몸은 얼음덩이처럼 굳어지기만 했다.

구급가방을 어깨에 걸친 은이가 숨가쁘게 달려왔다.

《아버지! 돌아가자요. 공사지휘부앞에 차를 대기시켜 왔어요.》

은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진구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게... 앉거라...》

은이는 아버지의 팔죽지를 부여잡고 눈물고인 목청으로 애원했다.

《아버지! 전 당조직으로부터 아버지질 빨리 모셔

오라는 과업을 받은 의사예요... 어서 일어서세요...》

진구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다심하고 유정한 눈매로 은이를 쳐다봤다.

차디찬 두손은 어느덧 귀여운 딸의 두손등을 더듬었다.

순간 은이는 온기와 맥박이 낮아지는 아버지의 손목을 통해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은이의 어깨에서 구급가방이 미끄러져 땅바닥에 떨어졌다. 아버지의 품에 머리를 파묻고 은이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아- 아버지!》하고 목놓아 소리쳤다. 아버지의 두어깨를 부여잡고 흔들었다.

진구는 희미해지는 의식을 뒤흔으며 다시 두눈을 떴다. 눈길은 곧바로 수위척에 가닿았다.

(아직도 수면이 정지상태란말이지?)

은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는 진구의 생각은 여전히 수위면에 머물렀다. 그러자 갑자기 두손바닥으로 은이의 얼굴을 꽉 끌어잡고 근엄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이애야! 알겠니... 사람들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말라!》

은이는 손등으로 눈굽을 훔치며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다. 구급가방에서 새하얀 위생복을 꺼내 아버지의 등뒤에 깔았다.

《아버지! 편안히 좀 누우세요.》

진구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난 저 수위척을 봐야 해... 내 허리를 부축해다오.》

은이는 가슴에 치미는 뜨거운것을 꿀꺽꿀꺽 삼키며 아버지의 등허리를 다소곳이 앞으로 받쳤다.

진구는 전에없이 인자한 음성으로 딸을 불렀다.

《은이야! 내가 하는 부탁을 아버지의 부탁이라고만 생각지 말라... 30년의 로당원이 신입당원에게 하는 가장 절절한 부탁이라고 생각해다오...난... 난... 저... 수면이 떨어지는걸 봐야... 행복하게... 눈감을수 있다. 그러니... 은이야! 내 눈빛을 10분동안만 꺼지지 않게 해다오!...》

《아... 아... 아버지... 알겠어요.》

은이는 이를 옥물었다. 구급가방을 뒤흔치는 그의 두어깨는 세차게 물결쳤다. 어떻게 아버지의 심장에 주사바늘을 꽂았던지 은이도 알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기가 아버지의 마지막소원을 풀어줄수 있는 딸이며 혁명동지였다는 긍지가 가슴을 부풀게 했다...

지배인 맹비호는 연방 들이닥치는 전화를 받아 넘기기에 눈코 뜰새가 없었다. 그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방안을 들었다 놓았다.

《꼭파는 걸어치웠소!! 뭐? 담보시간? 오천년이야! 오-천-년! 정신이 나가지 않았는가? ... 하하... 책임지겠는가? 천백번이라도 지구말구요!》

맹비호는 창문밖을 내다봤다. 아까부터 요란한 승용차 발동소리만 들리고 친구도 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맹비호는 밖으로 나오자 여울목쪽으로 성큼성큼 걸었다.

그런데 난데없는 교환수처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지배인동지》 방금 중류관측소에서 수위면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빨리 방송차에 가서 알리오. 한 열번 댁다 불러고 하오. 건설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거요.》

《예!》

처녀는 너무 기뻐서 줄달음쳤다.

지배인은 오래간만에 제 성미대로 히죽이 웃었다.

먼발치에 주사기를 든채 서있는 은이를 알아봤다. 그옆에 등을 돌려대고 꾹꾹이 앉아있는것이 강진구였다.

신통히도 낚시찌를 근덕지게 들여다보는 낚시군의 뒤모습과 여전했다.

활대처럼 구부정하게 여윈 등허리와 훌쭉한 목덜미에 눈길미 미치자 비호는 목구멍이 시큰했다.

(이제 다리공사만 끝내면 만사를 제끼구… 자네 병 고치는데 나두 발벗구 나서겠네… 친구! 기뻐하라구…)

맹비호는 마음속으로 다정하게 소리를 질렀다.

《우리 다리박사! 시치미를 떼나… 가자구!》

은이의 오동통한 손에서 주사기가 미끄러지더니 그만 찰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제야 비호는 정수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비칠거렸다. 그는 앞으로 쓰러지며 친구의 두어깨를 부둥켜안았다.

《친구! 친구야!》 하고 그는 목놓아 소리쳤다.

친구의 두어깨는 따스한 온기가 가셔지지 않았으나 것처럼 힘차게 툭툭 뛰던 심장의 박동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수위척의 눈금을 필사적으로 지켜보던 정기어린 두눈동자는 진주알처럼 영원한 웅심깊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 빛을 바로 락동강기슭에서 결전의 최후를 각오하던 그 시각에 비호가 목격했던 친구의 눈빛 그대로였다. 비호의 더벅진 어깨가 세차게 들먹거렸다. 대장부의 값진 눈물이 친구의 옷자락에 푹푹 떨어졌다.

건설자들이 모여들었다. 사처에서 흐느낌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시공과장 병기는 넋잃은 사람같이 친구의 발목에 쓰러졌다. 고통스러운 자책감이 가슴을 허비었다. 친구의 팔목을 붙안고 흐느꼈다.

《실장동무… 내 뺨을 쳐주세요… 에… 다… 나 때문이지요…》

그러나 친구는 숨진것이 아니라 당의 새로운 임무를 앞두고 긴박한 사색에 잠긴상실였다. 맹비호는 고개를 쳐들고 은이를 바라봤다. 심장을 찢르는 격노한 목소리가 와락 터졌다.

《아버지도 못건지는게 무슨 의사야! 너나 나같은건 열백을 주고도 바꾸지 못해!》

은이는 아버지의 부탁대로 슬픔을 입안으로 씹어삼켰다. 그러나 이 찰나 뜨거운 그 마음들앞에서 더는 속일수 없었다.

《지배인동지-호호… 저의 아버지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모든것을 알고있었습니다.》

맹비호는 불에 덴 사람처럼 후닥닥 놀랐다. 얼굴빛이 새까맣게 질렸다.

《뭐-어 ? 우리 친구가… 불치병을…》

온몸이 세차게 경련을 일으켰다. 반석같은 손바닥으로 은이의 어깨를 으스러지게 틀어쥐었다.

《그걸 나한테 속였단말이나?! 너… 너까지도…》

맹비호는 두어걸음 앞으로 나갔다. 무쇠같은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내가 눈이 멀었지… 강진구동무!》

지배인의 이 말속에는 사람이 자기 한생의 마감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를 푹푹 깨달은 강렬한 인간의 호소가 깃들어있었다.

은이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지배인동지! 전들 얼마나 말하고싶었겠어요.》

맹비호는 뜨거운 눈길로 은이를 쳐다봤다. 그는 은이의 얼굴에서 혁명의 새세대의 붉은 심장을 읽었다. 친구의 발걸음을 그대로 옮겨디딜…

그는 무릎을 꿇고 친구를 자기품에 안아세우며 격동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친구동무! 눈을 뜨고 저걸 보시오. 수위척물면이 내려가고있소! 대홍수앞에서 동무가 건져낸 철교가 숨을 쉬기 시작했소!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올릴수 있게 되었소!》

지배인의 애타는 목소리에 건설자들은 눈곱을 적시었다.

사람들은 보물천의 큰물에 끄떡하지 않고 거연히 서있는 철교를 바라볼수록 그 다리를 끝까지 받쳐올렸던 이 체소한 인간의 불타는 심장에 머리를 숙였다…

그날부터 열흘이 지났다.

충성의 기적소리 울리며 첫 렬차가 철교를 통과했다. 기관차 차바퀴가 앞으로 내달리는 기운찬 구름소리에 철길위의 궤도는 고르로운 동음으로 화답한다. 이 동음은 바로 한 설계가가 받아안은 영원한 정치적생명의 높뛰는 심장의 박동소리처럼 거침없이 흐르는 보물천 물결을 따라 것처럼 그리던 마음의 고향으로 울려간다.

별가리아의 첫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며 혁명시인인 흐리스도 쓰미르넨스키는 1898년 11월 30일 꾸꾸쉬시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쓰피아에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기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다. 1917년 군사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1918년에 중퇴한 흐리스도 쓰미르넨스키는 그후 혁명적인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다. 1920년에 그는 첫 혁명송가 《5월 1일》을 창작하였으며 시집 《그날은 오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흐리스도 쓰미르넨스키는 1920년에 공청에 가맹하였다. 그 이듬해인 1921년에는 별가리아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공산당기관지들인 《라보프니체스키 베스프니크》와 잡지 《청년》을 발행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흐리스도 쓰미르넨스키는 반파쑈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싸우다가 1923년 원수들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악형끝에 6월 18일 희생되었다. 편집부는 그의 희생 60돐에 즈음하여 시작품들을 소개한다.

## 5월 1일 외1편

### 흐리스도 쓰미르넨스키

멈춰서라, 공장의 기계들은  
중지하라, 그 어떤 막로동도  
바다의 노예들의 피눈물로  
이그러진 바다여  
5월 1일의 미소로  
너의 쓰라린 가슴을 밝게 하라!

진홍색 봄노을은  
감캄한 밤의 죽음을 밀어내고  
새날의 장엄한 려명은  
어두운 숲을 밝게 한다  
봄날의 그 밝은 해빛은  
5월 1일의 승리의 호소로서 빛난다

오, 짓밟힌 바다의 피명든 형제들이여  
저 빛나는 시간을 몰아오는  
5월의 종소리가 우리를 부른다

5월 1일의 서리발 검을 들고  
피어린 창격전에서 승리는 이룩될것이니  
략탈의 피로 얼룩진 피물이  
락엽처럼 숨겨갈 때  
우리들은 연기와 불속을 헤치고  
바리케트와 원수들의 시체우에  
5월 1일의 장엄한 송가로써  
갈망하던 락원을 일떠세우리

오, 짓밟힌 바다의 형제자매들이여  
불안과 근심을 털어버리고  
쓰러져가는 감캄한 초막들에  
밝은 해빛이 깃들게 하라  
억눌리고 천대받던 그 가슴가슴들에  
5월의 미소가 활짝 피어나게 하라!

1920년

## 봄의 편지

나는 즐거운 기쁨의 노래로써  
너를, 봄을 축하하고싶었으며  
망울을 터치며 웃음을 머금은 꽃송이로써  
너를, 환희에 넘친 청춘을 장식하고싶었다

나는 슬픔에 찬 서글픈 푸른 눈동자들에  
밝은 웃음을 안겨주고싶었으며  
아까시아꽃향기로써  
너의 마음속 어두운 그늘을 지워버리고싶었다

허나 오늘은 수리개의 용맹을 지니고  
타오르는 열정의 노래를 안고  
가시덤불과 층암절벽을 넘어  
청춘, 너는 당당히 걸어가고있다

생활은 신비로운것 우리에게 빵을 주나니

생활은 신비로운것 오늘의 청춘들을 부른다  
빛나는 예지의 너울밀에  
청춘은 자기의 간절한 속망을 간직한다

나는 즐거운 기쁨의 노래로써  
너를, 봄을 축하하고싶었으며  
망울을 터치며 웃음을 머금은 꽃송이로써  
너를, 환희에 넘친 청춘을 장식하고싶었다

허나 하나의 념원이 오늘 가슴속에서  
몹부림치고  
하나의 념원이 불꽃처럼 타오른다  
우리들은 화강석꽃병에  
항쟁의 념으로 장미꽃을 키우련다

1922년

## 꽃다발에 대한 답시 외 1편

김봉운

생산경쟁총화에  
용해공들 모였는데  
명량한 기증기운전공처녀  
꽃다발 들고 휴계실에 들어섰네

창밖엔 함박눈 내려도  
화창한 봄이런듯-  
풍기는 향기속에  
처녀의 얼굴 또한 꽃처럼 붉었네

용해공들은 일시에 바라보았네  
아름다운 꽃다발 들고 선 처녀를  
그리고 그윽한 꽃향기 가슴가득 흘러들 때  
용해공들은 생각하였네  
-저 꽃다발 어떤 사람 받게 될가?  
그 뉘의 가슴에 안겨질가? ...

유쾌한 젊은 친구  
처녀앞에 다가서며 물었네  
-아름다운 그 꽃을 뉘에게 주겠소?  
처녀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네  
-저 용광로가 알지  
내 어이 알겠나요

순간 미처 알길 없는

처녀의 당돌한 대답에  
용해공들 어리둥절하였네

하지만 그들의 가슴  
불보다 쇠물보다 더 뜨거웠거니  
당대회결정 남먼저 관찰하자고  
하나같이 떨쳐나선 그날부터  
모두가 경쟁총화에서 자랑떨친  
승리자, 혁신자

오, 더 묻지 않은들 어이 모르랴  
처녀가 안고 온 붉은 꽃다발  
용해공들모두에게 안겨주고싶고  
쇠물꽃 더 활짝 피우고픈 그 마음을

싱글벙글 로장아바이 처녀앞에 다가섰네  
다가서며 꽃다발 높이 받들어 흔들었네  
용해공들 모두를 대표하며-

창밖엔 눈이 내려도  
처녀가 기쁨속에 자랑속에 안고 온 꽃송이들  
용해공들 설레이는  
가슴마다 붉게 피어났네  
천오백만톤 강철고지우에 피여날  
쇠물꽃 쇠물꽃으로

## 오수고원에 물오리떼 내린다

구름타고 날아왔나  
물길따라 찾아왔나  
산우에 상상봉 오수고원에  
물오리떼 내린다

즐거이 부르며  
쌍쌍이 나래치며  
노을비긴 호수가에  
물오리떼 내린다

즐거워라  
프락프르 몰아가며

새봄을 알리는 발동소리  
애기모를 키우는 모판공처녀들  
다정한 웃음소리, 노래소리  
봄이로다  
호수가에 버들개지 피어나고  
산언덕에 망울을 빙그는 진달래  
환희로운 기쁨속에 가슴도 부풀어  
분조장처녀는 손저어 반기누나  
-애들아, 벌써 물오리떼가 찾아왔어!

출렁이는 물결을 헤가르며  
즐거이 떠도는 물오리떼

산촌의 정서에 얼마나 어울리는것이라  
바라보는 마음들이 가슴뭉클  
복받쳐오르는 감격에 목메이나니

언제부터이더나  
물이 없어 불모의 땅으로  
세상에 버림받던 이고장에  
산정넘어 물이 흘러  
씨뿌리는 봄  
삶의 환희가 넘쳐난것은

그리도 먼고장  
힘한 산밭넘어  
몸소 수령님 찾아오시여  
여기라고 물 없이 살수 없지 않느냐고  
구름피는 칠학산넘어  
층계층계 물길을 열어주신

한없는 어버이사랑이여!

그 사랑, 그 은혜  
철철 넘쳐흐르는  
오수덕고원 너는 태여났더라  
아름다운 사랑의 호수우에 비껴...

이랑이랑 생명수로 적시며  
해마다 만풍년을 안아오는 이 땅은  
축복받은 고장  
은혜로운 해빛넘치는  
산상의 락원

아, 수령님 사랑 하도 고마와  
끝없이 출렁이는 산상의 호수가에  
물오리떼 내린다  
기쁨이 내린다

## 흙물결 금물결

김송남

살결처럼 부드러운 흙이다  
보습날 어서  
더 깊이 박으렴!

가시나무 떨기나무  
들어내며 련사홀  
우리 청년분조 땀흘린 보람있어  
보아라 새땅이 펼쳐지누나

터지는 환호성  
떨치는 만세소리  
얼싸 마주안고 목이 메여도  
못다 웨친 이 기쁨인듯  
《천리마》호 보습날뒤로  
이랑이랑 흙물결이 뒤채며 일어선다

잡초에 묻히여 천년  
숲덩굴에 가리여 천년  
하늘아래 생겨나  
씨앗같은 씨앗 한번 못품어보았으니  
흙이라고 땅이었으랴  
땅이면 다 흙이었으랴

어버이수령님 불러주신 새땅찾기  
찾아내니 옥토벌  
찾아내니 큰 기쁨  
너의 이름도 이제부터

땅이라고 불러보자  
흙이라고 불러보자

저 보습날은 우리의 사랑  
땅의 가슴을 휘저어주고  
이 흙물결은 땅의 속마음  
한생을 깊은 인연 맺고 살자고  
우리 발목 뜨겁게도 부여잡누나

조국은 이 시각 이 땅을 위해서도  
더 높은 비료산을 쌓아올리리라  
더 보내줄 농기계를 헤아리며  
펼 펼 뚫는 쇠물난비  
기울이고 또 기울이리라

종구나  
우리도 청춘 새땅도 청춘  
청년분조 우리의 이름으로  
여기에 또하나의 풍년벌을 펼치리라  
해마다 안아올린 황금벌과 나란히...

아, 정녕 파도치는 흙물결이  
그대로 출렁이는 금물결로 보이누나  
청춘의 가슴에도 그냥 물결치는  
기쁨이다, 열정이다  
어서 보습날 더 깊이 박으렴!

## 처녀의 회답

강귀미

동녘에 노을이 불그스레 타오르기 시작한다.  
머칠째 계속되던 고지의 총성이 문득 끊어진 아침, 채수염을 길게 기른 로인이 들판의 발머리에 후치를 멈추고있다. 귀박죽에 손을 대고 점도룩 고지쪽에 귀기울인다. 온통 노을빛을 받은 주름 깊은 얼굴이 어딘지 엄엄하다.

전쟁전에는 마을처녀들이 버섯따러 다니었고 지금은 그 한치땅을 지켜 전사들이 피흘려 싸우고 있는 고지! 그곳의 숨결이 귀중했다.

때 아니게 닥쳐온 이 정적이 불안스러웠다.

왜 갑자기 그쳤을고.

딱따구리 나무쫓는 소리가 울린다.

위장망을 쓰고 호미를 온 처녀들이 아낙네들과 어울려 들판으로 밀려온다.

《우물집할아버지, 무얼 듣고있어요?》

《미국놈들이 어제 싸움에서 무리죽음을 당하고 그만 주저앉았대요.》

《우리가 또 크게 이겼대요.》

로인의 얼굴에 부드럽게 웃음이 퍼진다.

《그래 그랬구나. 장한 사람들이다.》

소영각소리가 난다.

《이 발을 가는 미물, 너도 기쁘게구나. 싸움판의 젊은이들처럼 우리도 일을 제껴보자. 이라-》

후치날은 밭고랑에 깊숙이 박히었다.

화약내가 질게 뻗 땅이 기름진 가슴을 헤치며 로인의 발밑으로 흘러간다.

새날이 숨쉬기 시작한다.

포탄구멍이 승승한 들판의 끝으로부터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하늘을 울리는 처녀의 맑은 노래소리.

오솔길 덤불에 치마폭 찢겨도

처녀는 춤추듯 집으로 달리네

흥겨운 노래가락은 싸움이 있어본것 같지 않게 고요가 깃든 이 아침에 신기하게 울린다.

로인은 멍실멍실 웃는다.

《술메로구나. 또 시작했구나.》 노을을 등진 처녀는 이 아침의 주인처럼 들판을 노래로 채우며 걷고있었다. 검정치마자락이 이슬에 함초름히 젖은 생기가 넘치는 처녀였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치렁치렁한 머리태가 한들한들 춤을 추고 끈으로 질끈 동여맨 허리춤에서는 수류탄이 대롱거렸다.

처녀는 오늘도 큰길가에 나가 향공감시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술메였다.

몇밤을 꼬박 새워도 지칠줄 모르는 처녀의 몸에

서는 건강미가 흘러넘쳤다.

즐거운 선물을 타고오던 노래소리가 갑자기 짹 그쳤다.

도랑건너 발머리에서 마을처녀들의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려온것이였다.

아마도 징검다리를 더듬어 건너고있는 우편통신원이 그들에게 편지를 주고간 모양이다. 호기심 많은 처녀들은 편지 한통을 놓고 야단법석들이었다.

한 처녀는 어깨의 위장망에 꽃힌 나무가지가 떨어진줄도 모르고 호들갑스레 돌아쳤다.

《옥단동무에게...》

우물집 새머느리 옥당에게 온 애인의 편지는 손이 닿기도전에 어느새 어깨에 총을 척 맨 《팔랭이》라는 별명을 가진 처녀의 손에 들어가 큰소리로 읽히우고있었다.

《...전호속에서 방금전 실참에 쪽잠이 들었었는데 고향에서 큰상을 받는 꿈을 꾸었다오...》

온 들판이 처녀들의 쟁쟁한 웃음소리로 가득찼다.

옥단은 얼굴을 싸쥐고 편지를 뺏지 못해 퐁퐁 뛰었다.

먼발치에서 그 모양을 보고섰던 술메는 어찌선지 그 유쾌한 동무들속에 끼여들지 않고 가던 길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입에서는 《호-》하고 가벼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처녀는 갑자기 풀이 죽어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타박타박 걸음을 옮기기만 했다.

(왜 편지가 안올가? ...)

그는 길가에 핀 민들레꽃을 하나 꺾어들었다.

자기에게도 전선에서 편지가 꼭 오리라고 믿고있는 술메였다. 그가 안타깝게 기다리는 편지는 벌써 한해가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였다.

문득 때없이 마음속에 나타나군하는 그 청년에 대한 생각이 이 아침 못건디게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잊지 못할 사람에 대한 얼굴을 그려보려 했으나 왜 신지 검실검실한 눈도, 꼭 다문 두툼한 입도 다 어렴풋하였다.

그 어렴풋한 얼굴처럼 그의 마음조차 멀어진것은 아닌지? 하기가 그와 언제 다정한 말 한마디 속삭여본적도 없었으니까...

술메는 한잎, 두잎 뜯다만 꽃송이를 떨어뜨리고 땅만 내려다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앞에서 큼직한 가방을 멘 우편통신원아바이가

마주오는것도 몰랐다.

《술메 아니냐?》

그제야 술메는 얼굴을 들고 반색을 하였다.

아바이, 오늘도 없지요? ... 하고 묻는듯한 술메의 애라는 눈길에 아바이의 얼굴을 살폈다.

알릴듯 말듯 웃음이 어렸을뿐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한 술메는 시무룩해지며 눈길을 돌렸다.

아바이는 걸음을 멈추고 빙그레 웃더니 돈보기를 끼었다. 가방안을 뒤적이며 꽤 두툼한 편지 한장을 골라 술메앞에 쑥 내밀었다.

《옳다. 오늘은 너한테도 편지가 왔다. 전선에서 왔구나. 박-대-석!-》

《예?!》

고개를 쳐든 술메는 금시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졌다.

미처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덩석 두손으로 편지를 받아킨 술메는 정신없이 걸봉을 훑어보았다.

《박대석》

틀림없이 그 청년의 편지였다.

(잊지 않았구나. 싸움속에서도 ... 1년이 지나도...)

술메의 가슴은 두서없이 뛴뛰었다. 편지를 왼손이 바르르 떨렸다.

뜰을가 말가 망설이다가 까르르 웃고 떠들며 자기쪽으로 몰려오는 동무들을 피듯 돌아보고는 일른 그것을 품속에 숨기었다.

어느새 보았는지 먼저 달려온 《팔랭이》가 《애두 참, 감추긴, 같이 보자구나.》하고 술메의 봉긋한 가슴에 불쑥 손을 뻗었다.

기겁을 한 술메는 몸을 피했다.

다른 처녀들도 흥이 나서 편지를 뺏겠다고 접어들었다.

지꽃게 달라붙는 처녀들의 성화에도 술메는 끝내 편지를 내놓지 않았다.

편지를 안은 가슴에 두손을 모두어 얹고 평시에 그 답지 않게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다.

《이따가...》

술메는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쫓기듯 빠른 걸음을 옮겼다.

처녀들은 눈을 동그랗게 뜬채 서로 얼굴만 마주보았다.

《무슨 편지길래 저렇게 감추니?》

《글쎄? ...》

술메는 처녀들의 의문에 찬 소리를 등뒤로 들으며 종종걸음쳐 바위고개에 이르렀다.

이 고개에서 그 청년이 살던 오בות한 마을로 가는 길이 멀리 보인다.

그 길우에 대석의 모습이 방불히 떠올랐다.

술메는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어 걸봉을 뜯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불안고 편지를 읽어내려갔

다.

몇줄 읽다가 큰 숨을 몰아쉬고 다시 더듬었다.

미소어린 처녀의 얼굴에 수집은 흥조가 피어나고 불우물이 움푹 패었다.

읽고 읽고 또 읽고나서 편지를 차곡차곡 접어 품속에 고이 간직한 술메는 날듯한 마음으로 들길을 걸었다.

하늘도 땅도 웃음을 담은것 같고 내물도 끓임없이 정다운 이야기를 조잘대는것 같았다. 날아가는 새한테도 말을 걸어보고싶고 온 들판을 향하여 대석이 이름을 불러도 보고싶었다.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기엔 아쉬운 이 편지, 하지만 누구에게도 알리고싶지는 않았다.

그의 마음은 어느덧 나래듯쳐 전쟁전 읍에서 그 청년을 처음 만났던 일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

1950년 4월의 어느 봄날,

시간이 감에 따라 군모범농민들을 축하하여 마련된 예술공연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신정리처녀들의 흥겨운 《도라지》노래장단에 어깨춤이 절로 나던 무대는 룡산마을 예술소조원들에게 차례졌다.

예쁘장하게 생긴 처녀가 막뒤에서 나와 다음 종목을 소개했다.

《다음은 독창 <감자꽃 노래> 출연에 룡산마을 리술메.》

뒤이어 바닥에 스칠듯 긴 하늘색치마에 연분홍색저고리를 입은 술메가 무대에 나오자 여기저기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인물이 달덩이같쇠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웨다.》

관중석은 일시에 흥성거렸다.

술메는 얌전하게 인사를 하고 노래부르기 시작했다. 아무데서도 들어본적없는 노래였다. 아마 마을예술소조원들이 지은상싶었다.

부드러운 선율을 타고 사람들의 눈앞에는 분여받은 땅의 흙을 들여다보며 웃고우는 처녀가 방불히 나타났고 꽃이 만발한 고향의 감자밭이 펼쳐지기도 했다.

노래의 2절이 끝나갈무렵 술메는 관중석에서 꺼꺼부정하니 몸을 일으키고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한 청년을 보았다.

청년의 눈에서는 금시 불꽃이 횡길듯싶었다. 술메는 삼켜버릴듯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을 피하여 얼굴을 약간 돌리고 노래를 불렀다.

(저 사람이 왜 저럴가, 참 별난 사람도 다 있네.)

왕청같은 청년때문에 술메는 하마트면 노래가 막힐번했다.

다행히 실수는 안했지만 무대뒤에 와서 돌이켜보니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었다.

읍에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술메는 흥이 꺼져있었다. 그 청년때문에 모처럼 나섰던 무대에서 노래를 잘 못부른것이 아쉬웠다.

고모네 집에 들렀다가 저녁녁에 떠난 길이라 얼마못가서 벌써 날이 저물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기울어져가자 그는 갈길이 걱정되었다. 얼마쯤 걸음을 다그치면 먼저 간 마을사람들을 만날 줄 알았는데...

앞에는 무인지경인 20리 셈치골이 놓였다.

그러기에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소리가 났을 때 그는 반가와 돌아보았다.

어둡이 깃들어 얼굴은 가려볼수 없었으나 키가 후리후리 한 남자였다.

밤길에 길동무를 만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술메는 우정 천천히 걸었다.

뒤사람이 따라섰을 때 다시 돌아보았다. 순간 술메는 흠칫 놀랐다. 락조가 비친 그의 얼굴에서 노래부르던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눈길을 본것이다.

하필 이 불쾌한 사람을 또 만나다니...

그는 가지도 비키지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렸다.

상대방도 그를 인차 알아보았다.

입이 벌글썩해지며 무척 반가와했다.

《아 노래부르던 동무구만. 아까 노래를 잘 들었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어서 고맙소.》

손이라도 덥석 찰듯했다.

(싱거운 사람!)

술메는 뿔로통해서 대꾸도 안했다.

청년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몸을 꼳꼳이 세우고 앞만 곧추 보며 성큼성큼 걸었다. 별로 의젓하고 점잖아보이며 애쓰는것 같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어색해보였다. 얼마간 갔을 때 청년은 술메에게 나직이 말했다.

《나는 신정리에서 사는 박대석이라고 하오.》

넌떡 바라지도 않는 자기 소개를 하는것이였다.

술메는 쓴웃음이 나왔다.

청년은 또 한마디 했다.

《동무는 룡산마을에 살지요?》

술메는 그를 힐끗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참다못해 툭 내쏘았다.

《그건 어떻게 아나요?》

《노래가 하도 좋아 동무의 이름도 알지요. 술메라고...》

《아이참...》

바로 코앞에서 자기를 놀리는것이 더 패심했다.

(처녀의 이름까지 외우고 다니면서...)

싱거운 청년에 대한 인상은 더해만 갔다.

따분한 걸음은 계속되었다.

술메는 대석인지 하는 이 청년과 빨리 헤어졌으면 하는 생각뿐이였다.

이윽고 신정리로 가는 갈림길에 나섰다.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고 새침해서 돌아서는 처녀에게 말할 재미가 없었던지 청년은 말없이 스적스적 신정리쪽으로 가버렸다.

술메는 긴 숨이 나왔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걸음도 빨라졌다.

종종걸음쳐 셈치골어귀까지 간 술메는 무춤 멈추어섰다.

더 가지 못하고 한동안 주위를 휘 살펴보았다. 더럭 겁이 난것이다.

아무리 봐야 검푸른 밤하늘과 컴컴한 땅,수림... 무시무시하구나.

밤마다 여기에 승냥이가 나온다는 동네어른의 말이 공교롭게도 이 순간 머리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금시 간이 콩알만해졌다.

고모말대로 하루 목이 떠날걸...

외동딸을 기다릴 어머니때문에 뿌리치고 온것이 후회막심했다.

하늘을 배경으로 우중충 서있는 나무뒤에서 금시 무엇이 나올것만 같아 눈을 크게 떴다. 바람결에 살랑거리는 나무잎소리에 귀를 도사렸다.

정말 승냥이가 나오지 않을가.

밭은 땅에 얼어붙은듯 한결음도 나가주지 않았다.

이 시각 방금 헤어진 그 청년이 피땀 머리속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놀랐다.

첫인상과는 달리 말없이 가버린 그때문일가. 지금쯤 그는 어디까지 갔을가.

대석이 가버린 어둠속을 돌아보았으나 처녀의 자존심은 되돌아갈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몇발자국 옮겨디뎠다.

갑자기 오른쪽 나무가지에서 《후두둑》 하는 소리가 났다.

《어마나!-》

술메는 기겁하여 비명을 질렀다.

머리위로 무엇인가 시꺼먼 물체가 핵 지나갔다.

그것이 무엇인지 올려다볼 경황도 없었다.

그는 무작정 오던 길로 냅다뛰려고 했다. 그러나 자기쪽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에 또 한번 놀라 그자리에 굳어졌다.

《허허... 그놈의 부영이가 사람을 놀리는군-》

뿔밖에도 대석이라는 그 청년의 목소리였다. 자기를 넘려하여 슬며시 되돌아왔다는것을 깨달았다.

술메는 대석이가 반갑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 차갑게 헤어졌던것이 무척 미안스러웠다.

대석이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없이 앞에 서서 저벅저벅 걸어갔다.

《아니...》

《일없소, 동무네 마을에서 골짜기를 질러 건너면 되오.》



《저기는 여기보다 더 험한 산속인데 승냥이를 만나면 어쩌나...》

《승냥이는 무슨 승냥이가 있겠소. 그놈 한번 만나면 좋겠소. 이 주먹으로 쳐잡아보게.》

술메는 안도의 숨이 호- 나가는 한편 어딘가 듄직하게 느껴지는 그의 힘에 마음이 의지되었다.

술메는 수긋해서 따라 걷기만했다.

공포심에 다리맥이 풀렸던 그는 점점 걸음이 떠졌다.

그런 기색을 감촉했는지 등글넙적한 바위돌이 가로누워있는 길가에서 걸음을 멈추며 대석은 줌쉬여가자고 했다.

늘 입술을 옥다물고 속눈썹이 긴 눈에 오돌찬 성미를 간직한 술메지만 남자답게 자기를 보호해준 고마움에 감동되어 그의 말을 순순히 따랐다. 대석이와 약간 사이를 두고 술곳이 않은 술메는 고모가 가는 길에 요기나 하라고 싸준 삶은 감자보통이를 풀어 그앞에 내놓았다.

어둠속에서 득실득실한 감자알들을 알아본 대석이 빙그레 웃으며 한알 집어들고 스스럼없이 먹기 시작했다. 감자를 무척 좋아하는상실였다.

술메가 감자보따리를 싸려고 하자 대석이 풀섶에 놀았던 종이꾸레미를 집어들어 함께 넣어가자고 했다. 아까부터 거치장스럽게 손에 들고있던 것이었다.

밤길에 도와준 신세를 생각하면야...

술메는 기꺼이 그것을 보통이안에 밀어넣었다.

대석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사내담고 웅심깊게까지 느껴졌다.

파연 이 사람이 관중석에서 멋없이 꺼꺼부정하니 일어났던 그 사람일까?...

그처럼 멀어보이던 룡산마을은 지척에 보였다. 대석은 그를 마을어구까지 데려다주었다.

헤어지면서 술메는 고마움을 표시하고싶었으나 무엇이랴 말해야 할지 그저 머뭇거리며 애꿎은 코신앞끝만 길옆 동실한 바위전에 싹싹 비벼대었다.

어둠속에 사라져가는 대석이를 눈으로 바래우면서 섰던 술메는 한동안이 지나서야 까맣게 잊었던 종이꾸레미생각이 나서 다급히 소리쳤다.

《저- 이봐요. 이걸 가져가요. 이걸 잊었어요.》

술메는 보통이에서 급히 종이꾸레미를 꺼냈다.

달빛아래 휘우듬히 누운 길로 성큼성큼 걸어가던 대석은 걸음을 멈추었다.

뒤돌아보더니 뜻밖의 소리를 했다.

《그건 그냥 가지요. 좋은 노래를 불러준 동무한테 주자고 하던거요.》

술메는 영문을 몰라 다우쳐물었다.

《아니 무슨 말이요?》

《그건 나에게 필요없소.》

《예?! 아니 ... 이걸... 어서 가져가요.》

술메는 아연해서 몇걸음 쫓아가다 멍하니 바라보았다.

대석은 벌써 험한 지름길로 날과람있게 오르고 있었다.

술메는 다시 소리치며 그를 쫓아갔으나 남자의 걸음을 당해낼수 없어 단념하고말았다.

불현듯 처녀의 행실에 대하여 늘 타일러주던 어머니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까닭모를 이 종이꾸레미때문에 뜻하지 않는 화를 입게 될가봐 마음이 불안해진 그는 어망결에 그것을 길옆에 던져버리고 장달음쳐 삼작문안에 들어섰다.

정지칸문을 쥐던 술메는 얼어붙은듯 움직일줄 몰랐다.

래일아침 어머니가 보게 되면 어쩌나? 안돼... 어머니 몰래 그것을 간수했다가 만났을 때 되돌려주기로 했다.

도대체 무엇일가 하여 집에 와서 슬그머니 풀어보니 연미색 비단옷감이 흘러나왔다.

술메는 대번에 얼굴이 붉어지며 발끈 화가 났다.

잊어버렸던 첫인상, 꺼꺼부정하게 몸을 일으키며 자기를 보던 청년의 싱거운 모습이 되살아났다.

누굴 어떻게 알고... 아니 그저 제 마음대로 나를...

머리끝까지 성이 난 술메는 애꿎은 옷감을 아무렇게나 뭉그러 농작 깊은곳에 구겨박았다. 언제건 만나면 단단히 옥박으며 던져주리라 버르었다...

며칠후 이른새벽, 술메는 이슬에 눅눅히 젖은 발에 감자를 심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감자밭옆으로 뻗어간 달구지길로 바퀴가 굴러오는 소리와 함께 소방울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술메는 늘 들어오던 소리여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보나마나 신새벽부터 두엄을 나르는 연분네아버지가 아니면 우물집할아버지일것이였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고르롭게 굴러오던 달구지가 술메가 있는 감자밭고랑을 몇개 사이에 두고 빼그덕거리며 멈추어섰다. 왈랑질랑거리던 소방울소리도 똑 끊어졌다.

《술메동무!》

이어 투박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리자 술메는 깜작 놀랐다.

언뜻 고개를 쳐들었던 그의 손에서 호미자루가 툭 떨어졌다.

검정소를 메운 달구지에 척 올라앉아 소고삐를 친채 자기를 내려다보고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대석이었다.

솔메는 입도 못벌리고 걸어올렸던 팔소매만 공연히 잡아당겼다.

그러나 대석은 태연하였다.

그것이 마뜩지 않아 솔메는 눈을 깔끔하게 치웠다.

그바람에 대석은 좀 얼며름해진상싶었다.

어느새 솔메의 입에서는 총알같은 말이 뛰어나왔다.

《동문 댜예요. 마침 잘 만났어요. 전번에 준 그 옷감을 당장 가져가랴요!》

그제야 대석은 의문이 풀린듯 빙긋이 웃었다.

처녀의 말은 맵잖으나 대석은 여전히 침착하게 듣기만 하더니 톱삼아 한마디 했다.

《아, 솔메동무 그 옷감말이요. 나는 잊었됐소. 겨워 달리 생각 말고 레장감인셈치고 받아주오.》

처녀는 화닥닥 놀랐다.

《사람을 놀리지 말아요!》

솔메는 호미를 집어들려다 말고 몸을 책 돌려 집으로 달려갔다.

몇걸음 옮기다가 대석에게로 돌아서며 솔메는 못박듯 말했다.

《당장 옷감을 가져올테니 기다려요.》

그는 바람을 일구며 탄력있는 다리를 재게 놀렸다.

《허허 참 야단났는걸》

당황해난 대석은 목덜미를 손으로 매만지다가 걸심을 했는지 채찍을 휘둘렀다.

《이랴!》

검정소가 펄쩍 뛰었다. 소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 소리에 놀란것은 검정소만이 아니었다. 저쪽 달려가던 솔메가 흠칫 돌아섰다. 솔메의 까만 눈이 울롱해졌다.

《난 시간이 급하오. 래일 또 오겠으니 그때 반읍시다. 정말이요. 약속하오.》

대석은 다시한번 채찍을 휘둘렀다. 애매한 검정소는 무슨 변이나 만난듯 왈랑질랑 달려갔다.

솔메는 엷은 안개속에 달려가는 뽕그덕거리는 달구지의 대석을 입술을 옥물고 지켜보았다.

《애 솔메야, 너 뭘 아침부터 떠드니?》

우물집 새머느리 옥단이었다.

《별 싱검둥이라니까.》

《뭘?...》

옥단이는 달려가는 달구지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아니, 저 사람이 대석동무 아니야?》

《물라요.》

솔메는 그의 이름을 입밖에 내기도 싫었다.

《저 동무가 어떻게 여길 왔댔니? 우리 친정집마을에서 사는데...》

솔메는 옥단이가 대석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바람에 더 듣고싶지 않아 돌아서버렸다.

다음날아침 솔메는 옷감을 꺼내들고 나와 길목을 지켰다.

한낮이 되도록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나 대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솔메는 까만 코신을 걸친 발을 탕 굴렸다.

(싱겁다 했더니 거짓말까지 하고... 이제 다시 만나기만 해봐...)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 대석은 종시 오지 않았다.

마음같아서는 당장 옷감을 갖다 팽개쳐주고싶었으나 처녀가 총각을 함부로 찾아다닐수는 없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부탁할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속이 풀리지 않은채 하루하루 날이 갔다.

어느날 점심참에 솔메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갔다.

긴 드레박줄을 푸르륵 풀어놓으니 우물안에서 《침방!》소리가 나면서 잔잔하던 수면우에 드레박이 떨어졌다. 천천히 바줄을 끄당겨올리는데 옥단이가 살금살금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새물거리고있었다.

솔메가 의아해서 마주보니 놀려주듯 말했다.

《너 괜히 시치미 댜지 말어. 내가 신정리에 가서 대석동무를 만났을 때 솔메를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더구나.》

억대우같은 사람이 처녀처럼 빨개지니 참 우습더라...》

《뭘라고요?》

그 소리에 솔메는 눈을 크게 떴다.

분을 사그리지 못해 숨소리마저 높아진 그를 본 옥단이는 미소를 머금었다.

솔메의 동실한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솔메, 내 말을 들어, 너 아직 그 동무를 잘 모르는것 같구나. 내가 이야기해주지. 대석인 참 좋은 동무야. 신정리쳐녀들이 대석동무가 너를 마음에 두고있다는것을 알면 모두 솔메를 부러워할거야.》

《누가 그런 얘기 들겠대요.》

《너무 앵돌아지지 말어. 그가 걸보기에는 똑바우갈에도 사람은 진국이란단. ...》

솔메야, 그 동무에겐 부모가 없어. 아무 살붙이도 없단다.

아버지는 해방전에 머슴살이를 하다가 일찍 돌아가고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다가 흉년이든해에 그만 어머니마저 잃었단다.

어린 그가 굶어서 숨진 어머니를 불안고 몸부림칠 때 그의 주머니에서 흙몬은 감자알들이 구들바닥에 굴렀단다. 어머니 주려고 눈덮인 남의 감자밭을 진종일 해매어 얻어낸 썩고 팽팽 언 감자였어.

그걸 보고 마을사람들모두가 울었단다.

해방이 되자 그에게도 땅이 차례졌지,

분여받은 땅에 첫 감자꽃이 핀 날이었어. 그날 대석동무는 감자밭에서 그 하얀 꽃앞에 구부정하게 꿇어앉아 얼없이 들여다보기만 했어.

그러더니 투박한 손으로 그 꽃을 하염없이 어루만지었어.

동네 처녀들이 허우대가 황소만한 사내대장부가 꽃을 그리도 좋아한다고 놀려줬어.

그래도 대석동무는 그냥 그 꽃을 보기만 했어. 한참 있다가 누구에게라 없이 나직이 말했어.

<감자꽃이요! 장군님 주신 내 땅에 첫 꽃이 피었소!>

놀려대던 처녀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

아무도 더는 말을 못하고 그 꽃을 함께 바라보기만 했단다...》

술메는 눈을 내리깔고 술많은 머리태에 드린 빨간 땀기를 공연히 풀었다 다시 고쳐땀다 하였다.

《아마 술메는 새파란 총각이 모범농민이라면 곧이 안들울거야. 신정리의 안골엔 예로부터 땅이 습해서 아무 곡식도 되지 않는 땅이 있었던단다. 사람들은 그 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해방이 된 이듬해에 대석동무가 그 땅을 자진해 분여받아서 사발통만한 감자를 스무가마니나 캐내어 온 동네를 들썩하게 만들었던단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땅을 가꾸었던단다. 흙을 구워내고 마른채도 내면서...

그는 애써 거뭇들인 그 많은 감자를 고스란히 나라에 바쳤어.

소달구지에 감자가마니를 높이 쌓고 동네로인들과 함께 동구밖으로 떠나가던 그가 눈에 선하구나...

그런 총각이기에 군에서 열린 모범농민모임에도 뽑혀갔겠구 또 옷감을 상으로 탔다지 않니...》

언뜻 흘려버리려던 말마디들이 제값을 찾은듯 어느새 술메의 귀에 쏙쏙 들어왔다.

깊은 생각에 잠겨 말없이 서있는 술메를 쳐다본 옥단이는 무슨 말을 더 할가 하다 말고 조용히 물러갔다.

《장군님 주신 땅에 핀 첫꽃... 상을 탄 옷감...》 한참후에 술메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새어나왔다.

세상에 핀 하 많은 꽃들중에서도 장군님 주신 땅에 핀 감자꽃이 그토록 아름다와... 소중하여 술메는 대석의 뜨거운 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 옷감이 상을 탄것이라는것도...

그런줄도 모르고 그 옷감을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다른 자책감이 아프게 가슴을 허비였다.

술메는 집으로 간다는것이 물동이를 끼고 전혀 다른곳으로 가고있었다.

잔잔했던 처녀의 마음속에 알수 없는 파문이 일어 가슴속에서 울렁이던 그 무엇이 차츰 심장벽을 울리며 진정할수 없이 설레었다.

봄별이 그의 온몸을 따스하게 어루만져주고있었다.

가없이 넓고 푸른 하늘에 뭉게뭉게 피어 흘러가던 흰구름이 이 순간 움직일줄 몰랐다. 그 구름뒤에서 손에 쥔 썩은 감자를 놓지 못하고 싸늘해진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우는 소년의 모습이 얼씬 지나갔다. 그뒤로 감자꽃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있는 대석의 모습이 나타나 떠나지 않았다.

천길인지 만길인지 알수 없는 웅심깊은 사람에 대한련민의 정이 술메의 가슴속에 깃을 펴기 시작하였다.

말길은 어느덧 감자밭에 와있었다. 물동이를 발머리에 내려놓고 그옆에 오도카니 앉아 처녀는 깊은 생각에 묻혀버렸다.

얼마나 감자꽃을 사랑했으면 그 노래에 벌떡 일어나서기까지 했을가.

《좋은 노래를 불러준 동무한테 주자고 하던거요.》

먼곳에서 대석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것이 진정을 담은 말이었구나. 아, 그런데 나는, 나는...

그런줄 알았으면 다정하게 대해줄걸...

처녀의 가슴은 아팠다.

술메는 일어서서 달구지길을 바라보았다.

혹시 이제 오지나 않을까.

그 길로 흰 바지저고리에 곤색 등걸이를 받쳐입은 대석이 금시라도 나타날것만 같고 웅글은 목소리가 들려올것 같았다.

술메는 눈길을 떨구어 물끄러미 감자밭을 바라보았다.

푸실푸실 흙을 헤집고 무언가 파릇파릇한것이 온 감자밭에 얼굴을 내밀고있었다.

그것은 대석이 얼굴을 붉히며 어딘지 멀리 사라져가던 그 아침에 심은 감자싹이었다.

눈부신 햇빛을 받아 신비롭게 돌아난 새싹들...

자기 마음이 그대로 감자싹에 옮겨진가싶었다.

대석동무도 이렇게 내려다보았겠지.

조용한 행길쪽에서 소달구지 굴러오는 소리가 났다. 술메는 와들 놀랐다.

혹시 대석동무가 아닐가 생각했으나 차마 돌아보지는 못했다.

그는 마음만 조이며 발가운데 우뚝 서있었다.

《애, 술메야 너 거기서 뭘하냐?》

희끗희끗한 수염이 덩수룩한 우물집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는 누렁소를 메운 달구지를 느릿느릿 몰아가고있었다.

《아니예요...》

술메는 할아버지가 무슨 눈치를 차렸나 해서 얼른 발에서 나와버렸다.

자기앞을 지나간 사람이 대석이 아닌것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몇발자국 못가서 그는 물동이를 인채 신정리가 바라보이는 언덕우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농사철은 빠르게도 흘렀다. 감자의 새싹은 아지를 치고 무성하게 자라 이랑을 메웠다.

꽃방울이 맺히고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술메는 꽃핀 감자밭에서 그를 마음속으로 기다렸다.

어쩐지 대석이가 곱게 핀 감자꽃을 보아주었으면 하였다.

처녀의 마음속에 남모르게 심어진 씨앗은 어느새 크게 자라 그자신도 억제할길 없게 되었지만 대석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처녀는 남모르게 속을 썩었다.

그러나 바라는 마음은 실현될 가망이 없어지게 되었다.

미국놈들이 전쟁을 일으킨것이였다.

그는 큰길가로 달려갔다.

땅을 구르며 지나가는 땅크들과 포차들, 길 양옆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총맨 병사들, 황토색먼지에 검스레해진 그들의 얼굴, 앞만 곧추 쏘아보는 엄엄한 눈길... 술메는 이 모든것을 눈여겨 바라보았다.

이제까지 흘러온 생활과는 너무도 다른 준엄한 시각이 닥쳐왔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낀 술메는 문득 대석을 생각하였다.

(그도 저 사람들처럼 떠나겠구나. 전선으로... 싸우러...)

이때 술메뒤에서 잦은 발걸음소리가 났다. 돌아다보니 옥단이였다. 무슨 보통이를 들고 몹시 바쁜듯 뛰어가고있었다.

《어디를 그렇게 뛰어가요?》

술메는 소리쳤다.

《정거장에...》

《거긴 왜요?》

《신정리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떠나 우리 오빠도 간단다.》하더니 생각난듯 무춤 멈추어서서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참, 대석동무도 간단다. 넌 안갈래?》

《난... 저...》

술메가 뭐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이에 옥단이는 벌써 사라졌다.

홀로 남은 술메의 가슴은 높뛰었다.

(떠나는구나. 정말 그 동무도...)

그는 저도 모르게 종주먹을 부르짖고 정거장으로 달렸다. 가다가 술메는 그자리에 서버렸다.

술메는 다시 입을 강물고 두주먹을 쥐고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큰길을 한창 달려가던 술메는 량옆에 소꿉시절

의 꿈을 키워준 키낮은 민들레꽃들이 깔린 우불구불 굽이쳐간 달구지길에 접어들었다.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쳐 넘어질뻔했다.

눈앞에 꽃물결치는 감자밭이 아득히 펼쳐졌다.

밭가운데 들어서서 떨리는 손으로 크고 탐스러운 감자꽃을 한송이 꺾었다. 또 한송이...

손에는 활짝 핀 꽃들이 줍이 벌게 쥐여졌다.

작은 꽃잎에 달린 맑은 이슬을 보느라니 눈물이 핑 돌았다.

그 꽃을 잎 하나 떨어질세라 소중히 받쳐들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정거장에는 아직 기차가 머물러있었다.

술메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봄비는 정거장안에서 마음이 조급해졌다.

군복입은 청년들을 둘러싼 아기를 업은 녀인들, 로인들, 보꾸레미를 든 처녀들과 떠들썩거리는 아이들...

그 술한 사람들속에서 대석을 어떻게 찾을가.

술메는 군복차림이어서 모두 똑같아만 보이는 병사들속을 헤치며 대석을 황급히 찾기 시작하였다. 초조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틈을 뚫고 여기저기 눈여겨 살폈다.

그러면서도 그는 꽃이 상하지 않도록 팔굽으로 밀며 꽃을 가슴에 정성스레 안고있었다. 한동안 사람들속을 헤매었으나 대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석동무-》

술메는 안타까와 큰소리로 부르고싶었다.

기적소리가 울렸다. 덜컥! 련결기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렬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술메는 가슴이 무너져앉는것만 같았다.

자기앞을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병사들이 짝 들어찬 유개화차를 넘없이 바라보았다.

렬차가 벌써 거의 절반 지나가 절망할 지경이 된 순간 술메는 꿈속에서처럼 승강대우에 서있는 대석의 모습을 보았다.

《대석동무!-》

술메는 저도 모르게 목청을 다하여 소리쳤다.

그리고도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가 듣지 못하지나 않았다 하여 감자꽃을 높이 들었다.

이때 대석이 술메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술메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눈길은 처음에 감자꽃으로 그 다음엔 술메의 얼굴로 옮겨졌다.

공간에서 두눈길이 부딪쳤다.

《술메!》

대석이는 뜻밖이었던지 혹은 그 역시 마음속으로 애타게 기다렸던지 더 입을 못벌리고 손만 열쭉 들었다.

술메는 뜨거운것이 솟구쳐 목이 짹 메였다.

무언가 가슴속 한가득 품고 온 말을 하고싶었으나 야속하게도 단 한순간의 여유도 없었다.

기차는 점점 더 빨라졌다. 대석은 벌써 저만치 앞으로 멀어져갔다.

그러나 타는 눈길은 여전히 솔메를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솔메 잘 있소!》

그는 목청껏 웨쳤다.

솔메는 대답을 못하고 목석이 된듯 서만있었다.

《대석동무...》

뒤늦어서야 한마디 속삭이듯 불렀으나 렬차는 이미 구내를 벗어나고있었다.

솔메는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다.

손에 든 감자꽃이 세차게 물결쳤다.

렬차의 승강대우에 선 대석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솔메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찾아든 행복이 때늦은것이어서 기쁨과 서운함이 한데 뒤섞인 마음이 마를줄 모르는 논들이 되어 그의 랑불을 적시며 흘렀다.

감자꽃이 자기가 하고싶던 말을 해주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진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석에게 하고싶던 말이 무엇이었던지 그자신도 딱히 알수 없었다...

기차는 드디어 산굽이를 돌아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솔메는 감자꽃을 높이 쳐든 팔을 내리우지 않았다.

× ×

...귀중한 추억과 함께 더욱 그리워만지는 대석이었다.

교묘한 달빛이 흐르는 이 밤, 솔메는 가슴에 슬며시 손을 가져갔다.

톡톡... 뛰는 심장의 박동이 느껴졌다.

뜨거운 가슴에 처녀는 온종일 편지를 품고 다녔다.

자기의 온기로 따뜻해진 편지가 손에 닿는 순간 처녀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뛴뛰었다. 솔메는 편지를 펼치려다 말고 저도 모르게 잠든 어머니 쪽을 돌아보았다.

깊은 잠에 취해 가볍게 코고는 소리를 다시금 확인하자 좀 마음이 놓였으나 이번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다정히 흘러드는 피창문에 마음이 갔다.

초생달이 방안을 가웃이 들여다보고있었다. 솔메는 흠칫 놀랐다. 저 달이 제 마음속을 엿보려드는것 같아 그는 등잔불을 들고 자리를 옮겨앉았다.

안방 깊은곳에서 희미한 불빛에 기쁨이 찰랑찰랑 넘치는 솔메의 두눈이 그윽히 빛났다.

손에는 화선을 넘고넘어와서 속종이마저 누르스름해진 편지가 펼쳐져있다.

그래서 더 소중한지...

읽다가 처녀는 그만 편지에 얼굴을 묻었다.

포연내, 초연내 풍기는 그 편지는 솔메에게 그렇게 소중한것이었다.

그는 회답을 쓰려고 종이와 연필을 꺼냈다.

《대석동무...》하고 앞머리에 그의 이름 두자를 또박또박 적었다. 어쩐지 첫말부터 자기 마음이 담기지 않아 흘 지워버렸다. 그는 다시 썼다. 《그리운 대석동무...》 박아쓴 글자를 속으로 읽어본 그는 갑자기 얼굴이 활짝 붉어져 연필을 동맹이 쳐버렸다. 그리곤 얼른 그 종이를 방바닥에 퍼놓은 이불밑에 처넣고 뛴뛰는 가슴을 한손으로 누르곤 황황히 어두운 방안을 휘돌러보았다...

떼다 만 편지장은 수북이 쌓이고 짧은 여름밤은 깊어만 갔다.

쿵쿵...멀리 고지쪽에서 포소리가 들려왔다.

솔메는 일결에 편지를 꼭 쥐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밝은 렬명전 어둠에 꼭 잠겨있었다.

(고지에서 또 전투가 시작되는 모양이지. 아직날도 새지 않았는데)

솔메 다시 편지에 손을 가져갔다.

(빨리 회답을 써야지.)

솔메는 이 교묘한 시각을 지나쳐버리기 아쉬웠다.

쿵, 쿵 또 포소리가 울려왔다. 그바람에 반토굴 집 나무살창이 부르르 뒸다.

이때 솔메의 눈길은 《...우리 군대의 포소리를 들을 때면 그 소리가 함께 잘 싸워달라는 나의 부탁인줄 알아주오.》라는 편지의 한구절에 불현듯 멎었다.

솔메는 다급히 편지를 차곡차곡 접어 앞가슴에 정히 넣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살그머니 부엌문을 열고 고간으로 나왔다. 깊은 생각에 잠겨 처녀는 감자를 꼴랐다. 불비속에서도 알알이 여문 햇감자였다.

이윽고 정성스레 골라낸 감자를 삶아내려고 조심조심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마른나무가 타면서 탁탁 소리를 냈다.

솔메는 어머니가 깨날가봐 아궁이를 두손으로 막았다.

...그는 불안과 기쁨으로 달라진 딸의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고있는 어머니의 눈길도, 검은 치마폭에 붙찌 하나가 튀어난것도 느끼지 못했다,

어느덧 동이 푸름푸름 터오고있었다.

뒤설레는 마음으로 김이 물물 나는 감자를 큰 함지에 담아인 솔메는 옥단이네 집앞에서 머뭇거렸다.

《옥단언니-》 그런데 웬일인지 부름소리는 가슴속으로 찾아들고 어느새 발걸음은 그 집앞을 지

나쳐 동구밖을 향해 채우치고있었다.

언제나 그와 함께 고지로 가던 길이었으나 오늘만은, 오늘날은 이 호젓한 길을 혼자서 생각에 묻혀 걷고싶었다.

무엇인가 마음속에 속삭이며...

안개자욱한 마을로 벗어나고 어느새 둘다리까지 건는 그는 바위에 부딪쳐 물갈기를 뿌리며 흘러가는 강물소리를 뒤에 남긴채 숲속으로 들어섰다.

불타다 남은 애어린 나무앞에 술메는 한동안 났없이 서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어디선가 여전히 총진내가 향긋 풍겨왔다. 그것이 눈물이 나도록 고마왔다. 마음도 차차 안정되어 갈길을 재촉했다.

고지가 가까와오자 그는 홀로 즐거운 명상에 잠겼다.

이제 가면 성미 팔팔한 《호랑이》분대장도, 한팔을 부상당하고도 고지를 떠나지 않고있는 중기사수도, 누나라고 따르는 꼬마전사도 모두 기뻐하겠지...

그들의 얼굴이 또 언젠가 밤길에 스스럼없이 식은 감자를 먹던 대석이 모습으로 뒤바뀌었다.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얼굴에 줄지어 흘러내리는 땀방울도 씻을념을 않고 벌써 고지 좌측릉선에 붙어 급한 산길을 한치한치 뚫아올랐다. 숨이 차 할딱이던 술메는 산중턱에서 잠시 멈춰서 사위를 살폈다. 이때 뿐만아침안개속을 뚫고 산으로 올라오는 군대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고지의 전사들이 어디 갔다오는지일까? ...

술메는 반가왔다. 어서 그들에게 감자합지를 안겨주고싶었다.

처녀는 소리쳐 부르려다 말고 걸음을 채우쳐 마주갔다. 그러다 싸리나무앞에서 무릎 멈춰섰다. 합지를 인채 굳어졌다. 살피살피 걸혀가는 안개속에 나타난것은 고지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낯선 사람들이었다. 삼사십명은 되어보였다. 인민군복차림이라는데 저으기 마음이 놓였으나 그래도 처녀의 까만 코신은 여전히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왜 저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우지 않으려 사위를 두리번거리며 은밀히 행동할까? 처녀는 저도 모르게 나무뒤에 더 깊숙이 숨었다. 풀밭을 밟는 발자국소리는 점점 가까와왔다.

《빨리 빨리, 빨갱이들이...》

소리는 작았어도 한껏 악에 받쳐있는 남도억양의 욕지거리에 처녀는 소스라쳤다. 거뭇거뭇한 나무우듬지위로 번쩍이는 철갑모가 보였다.

변장한 적이었다.련일 계속된 공격전에서 무리

죽음만 당한 놈들이 아군의 배후를 노리고 기여든것이였다.

술메는 등골이 싸늘해졌다. 주춤주춤 뒤걸음치다가 얼굴에 반대방향으로 경황없이 뛰었다. 이산의 오솔길은 모두 그의 길이여서 놈들을 얼마든지 피할수 있었으나 뛰던 처녀는 번쩍 정신이 들어 몸을 획 돌려 고지쪽을 올려다보았다.

우리 고지가 위태롭구나. 거기선 이걸 모르고 있을테지. 자나깨나 포소리에 귀기울이며 바라본 고지를 두고 내가 가다니, 고지에 알려야 한다. 술메는 다시 산우를 향해 걸음을 채우쳤다. 아니, 안돼, 알리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곧바로 가자면 눈에 띄울것이고 예돌아가자면 그사이에 적들 먼저 고지에 기여들것이다.

술메는 안타까와 가슴을 옥죄었다.

이 순간 혹독 뛰는 혈관속에 용해된 대석의 편지 한구절이 귀전에 울렸다.

《...고향을 잘 지켜주요...》

술메는 박속같은 이발로 지그시 빨간 입술을 옥물었다. 적들은 코앞으로 다가들고있었다.

술메는 허리춤에 데룡거리던 수류탄을 재빨리 끌어내여 합지안에 집어넣었다.

짧은 순간 자신으로서도 무슨 결심을 다졌는지, 미처 의식할수 없었으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다듬이돌처럼 든든해지고 몸도 떨리지 않았다.

그는 감자합지를 척 이고 안개 걸린 오솔길에 서슴없이 나타났다.

맨먼저 그를 발견한놈이 흠칫 놀라 손을 총에 가져가며 멈춰서자 뒤를 따르던놈들도 우뚝우뚝 멈춰서며 당황하여 두눈만 회반죽거린다.

처녀의 상냥한 웃음에 인민군웃을 입은 자신을 자각한놈들은 간신히 혼란을 수습했다.

술메는 자기가 놈들에게 웃어보일만큼 마음을 다잡을수 있는것이 놀라왔다.

피발선 눈에 헤식은 웃음을 띄운 장교인듯한 놈이 뒤에서 불쑥 앞에 나서 태연한채하며 지껄여댔다.

《헤헤, 우린 고지로 가지, 증원가는길이요.》

《아니 그래요?저도 고지로 가는데요.》

《아, 히히 좋소. 좋아, 그럼 같이 가게 되였군. 어서 앞장서서 걸지. 우린 길을 잘 모르는데...》

장교놈은 이발까지 허영게 드러내며 웃었다. 긴장을 약간 늦추는것 같았다.

술메는 별다른 기색을 보이지 않고 놈들의앞에서 걸기 시작했다.

빠른 걸음이 아니여도 인차 숨이 가쁘고 얼굴엔 땀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놈들은 독사같은 눈조리로 계속 처녀를 살피며 뛰따르고있었다.

《너 왜 산아래로 내려가는가 응?》  
 《아이참, 저쪽 대나무밭엔 길이 험하고 함정이 있어서 들어서질 못해요.》  
 처녀는 흘끔 장교놈을 올려다봤다.  
 눈길은 황황 타고있었다.  
 거기에서 무슨 기미를 했는지 잠자코 가던 장교가 갑자기 두발을 뚝 버티고섰다.  
 따르던 무리가 다 멈추었다.  
 그런줄도 느끼지 못하고 처녀는 걸음을 옮겨갔다.  
 마음은 산아래 경비초소에 가있었다.  
 《저년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가다가 돌아본 술메는 적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으려한다는것을 알았다.  
 장교가 권총까지 뽑아들고있었으나 술메는 그것을 못본체했다.  
 《저 먼데서 오는것 같은데 다리가 아프면 좀 쉬여가고.》  
 한쪽 손들로 뺨에 젖은 얼굴을 천천히 훑치고 난 술메는 감자합지를 내려놓았다.  
 《감자나 하나씩...》  
 처녀는 돌연히 감자안에 감췄던 수류탄을 머리에 번쩍 쳐들었다.  
 나무 뒤켠에 웅기중기 모여선 이그러진 상통들이 기겁을 하여 비실비실 뒤걸음쳤다.  
 산골처녀의 몸에서 수류탄이 나오리라고 꿈에도 생각못했던 장교놈은 총소리를 내어서는 안된다는것도 잊고 독을 뿜으며 총을 쏘았다. 왼쪽어깨가 쇠뿔뿔이에 맞은것처럼 팔이 기운없이 떨어졌다. 비칠거리면서 술메는 힘껏 수류탄을 던졌다.  
 요란한 폭음이 골안을 들었다놓았다...  
 포연이 서서히 걷히는 산중턱 숲덤불에 총성이 울렸다.  
 ...아물아물 멀어져가는 의식속에서 적들을 죽치는 우리 군대의 총성, 추격의 함성을 그는 똑똑히 들었다.  
 그 함성속에서 대석의 목소리들 듣는가 처녀는 미소를 지었다.  
 옆에 감자합지가 고스란히 놓여있고 우에 썩워진 하얀보가 바람에 날려 다박술에 걸려서 나뭇기고있었다.  
 그는 눈을 스르르 감았다.  
 귀중한 대석의 편지구절이 그에게 속삭이듯 들

려왔다.  
 《...술메, 떠나던 날 감자꽃을 안고 온 동무를 나는 봤소. 그 꽃을 오래 흔들어준 술메를 언제나 잊지 못하고있소.  
 여기 불타는 고지우에서 때론 죽음을 앞에 놓고도 나는 그 꽃을 생각했소.  
 화약내속에서도 그 향기를 맡고있소.  
 그것이 장군님 찾아주신 조국땅의 소중한 향기란것을 나는 여기서 알았소.  
 그러나 목숨바쳐 지키기전에 그 꽃을, 조국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하지 않겠소.  
 ...귀중한 술메...  
 부탁이요. 안골에 감자꽃 곱게 피던 우리 고향땅을, 우리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 땅을 잘 지켜주오...》  
 대석을 처음 만나 말없이 감자보따리를 물어주던 오솔길, 뜻밖의 옷감을 받아들고 어쩔줄 몰라 화를 내던 그 밤, 월랑절랑 어데선가 들려오는 검정소의 방울소리...  
 고향을 안은 술메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잊지 못할 추억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처녀는 눈을 뜨고 얼굴을 들었다.  
 동녘하늘에 다홍치마폭처럼 아침노을이 붉게 타고있었다.  
 (하늘은 어찌먼 저리도 맑고 푸른가...)  
 그 꽃을 보고싶었다. 대석이와 함께 보고싶었던 하얀 감자꽃 ...  
 (대석동무, 오늘은 나도 적을 쳤어요. 이제는 밤길도 무섭지 않을거예요. 승냥이가 나타나도 떨지 않을거예요. 보세요. ...감자밭도 무사하고 그리고 우리 고향도...  
 대석동무, 장군님 주신 고향땅에 해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감자꽃이 곱게 피어날거예요... 언제나 꽃향기가 떠돌거예요.)  
 나무에 비스듬히 기대여 고향산천을 내려다보는 술메의 눈에 맑은 이슬이 맺혔다.  
 줄터진 구슬알처럼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은 선지피로 붉게 물든 저고리앞섶에 떨어져 가슴에 깊이 간직된 편지장속에 스며드는데 처녀는 조국을 지킨 기쁨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자꾸자꾸 이야기하였다.  
 처녀는 그토록 보내고싶은 회답을 이렇게 쓰고있었다...

# 백양나무

박경빈

서리 품은 새벽대기가 낮갓을 조이였다. 숨쉴 때마다 속눈썹이 짹짹 들어붙었다. 그러나 서은섬은 마을을 벗어나기도전에 목도리를 꼈다. 관리위원장 윤석규를 따라가기가 숨가빠서였다. 활개를 저어 걸음을 다그치는데도 또 네땃걸음 뒤졌다.

윤석규가 멈춰섰다. 어스름속에서도 어쭙은 미소를 머금는것이 알리였다.

《소조원동무걸음에 맞춘다는게 어느새 또...》

은섬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윤석규가 새삼스레 들직하고 친근해보이였다. 후리후리한 키에 널다란 이마밑의 서글서글한 눈매, 품이며 기장이 딱 맞게 지어입은 밤색 작업복웃주머니에서 반뜯거리는 계산자...

윤석규는 분조와 작업반을 지휘할 때는 물론 관리위원장으로서의 첫째 농사에서도 숨씨를 내서 온 군이 《폐기있는 지휘관》, 《제길손있는 관리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일군이였다. 농장에 파견되어온후 석달동안에 은섬도 그 평가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된 나무랄데없는 농촌지휘성원이였다.

그는 올해에도 수확을 훨씬 더 낼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강냉이영양단지 옮겨심기를 작년보다 열흘이나 앞당겨 끝내기 위하여 어제밤 관리위원회 모임에서 빈틈없이 조직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도 강냉이수확에서 그중 예비가 많다고 보는 7작업반으로 첫새벽에 나가는길이였다.

어느덧 수도재등마루에 올라섰다. 7작업반구역이 한눈에 안겨왔다. 다락발 돌담을 갑옷처럼 두른 반달산도, 휘우듬한 그 품에 안긴 벌도, 아직은 잠에 취해있는듯싶었다. 수도재밑에서 맞은편 자드락까지 길가에 곧추 뻗는 백양나무숲과 숲밖의 넓다란 벌에도, 그리고 바다가까지 펼쳐진 참대숲에도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백양나무숲에 이르자 은섬의 걸음이 다시 떠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성애가 하얗게 불린 귀밑머리를 쓰다듬어넘기며 소소리높은 우듬지들을 쳐다보았다.

긴 속눈썹속에서 깊은 호수처럼 그윽하고도 생기있게 빛나는 두눈이 가느스름해지며 가지런한 하얀 이새가 드러났다. 하늘빛 목도리자락이 넘어와 드리워진 보위색 작업복이 팽팽해지도록 가슴이 부풀었다.

의젓한 아름드리들과 그 높이를 따라잡으려고 키돋음을 하는듯한 어린 나무들이 각각 석줄씩 늘어선 숲은 과연 불만하였다. 미출한 밀둥들, 온통 서리가 돋친데다가 노을빛마저 비껴 은세공을 베꼈듯한 우듬지며 아지들...

은섬에게는 숲이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다. 먹은 나이는 서로 달라도 나란히 어깨를 걸고 서서 서리밭속에서도 새움을 부풀구는 나무들은 그어떤 의미심장한 사연을 속삭여주는 상싶었다. 이 나무들을 심어 키운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소원대로 모진 비바람을 막아 곡식을 지켜온 나날들에 대하여...

은섬은 뿌듯해오르는 가슴을 다잡을길 없어 윤석규에게 말을 건네였다.

《이 숲이 정전된 이듬해에 관리위원장동지 아버님이 심으신거라지요?》

《아니, 치권아저씨하구 함께 심은겁니다.》

《7작업반장아바이하고요? 그럼 저 나무들도 두 분이 심으신건가요?》

은섬은 안전줄의 키낫은 나무들을 가리켰다.

《아닙니다. 그건 치권아저씨하구 나하구 함께 심었습니다.》

윤석규는 싱싱하게 자라오른 안전의 키낫은 나무들에 시선을 보냈다. 감회깊은 눈빛이였다.

《내가 학교를 마치고 농장일을 시작한 첫날 저녁이었지요. 아저씨는 미리 장만한 묘목단을 메구 나를 이리루 데리구 나왔습니다. 나더러 구덩이를 파게 하구 아저씨가 보드랍게 흙을 부스러뜨려서 묘목을 묻어주던 일이 었그제같은데 어느새 15년이 넘었구만요.》

《그러니까 두 세대의 마음과 정성이 어려있는 숲이군요.》

은섬은 여전히 숲가를 여겨보며 품속에서 빨간 뚜껑의 수첩을 꺼냈다. 그가 농장에 파견되어와서부터 매일 한장씩 써오는 수첩이였다. 보고 듣고 느낀것중에서 긍정적인것은 앞면에만, 바로 잡아야할것은 뒤면에만 갈라서 적는것이였다.

《두 세대가 키워낸 바람막이숲.》

은섬이 앞면에 써넣는것을 보며 윤석규가 말하였다.

《허허... 서정시제목같구만요. 하지만 그렇게 기록해둘것까진 못됩니다. 이 바깥줄 나무들은



곧 채벌하게 되거든요.》

《채벌하다니요?》

은섬이 놀라와하였으나 윤석규는 태연하였다.

《그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물의 생육과 결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말입니다. 보십시오. 큰 나무들이 더 그늘지우는 넓이를 8미터루 봐두 500미터구간에서 영향받는 면적이 얼마겠습니까?》

윤석규는 옷주머니에서 계산자를 꺼내서 쫓았다 뺐았다 하였다.

《어떻습니까? 감소율을 최소한 5프로루 봐두 이렇게 엄청난 수차란말입니다.》

《그렇지만 태풍피해가...》

은섬이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윤석규는 여전한 표정으로 바다쪽을 가리켰다.

《넘러 마십시오. 참대사업소에서 키운 참대밭이 저렇게 성벽처럼 막아선데다가 키낮은 품종을 심기때문에 이제는 가로수 작용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악의 경우를 다 고려했습니다. 안컨 작은 나무는 남겨두구 큰 나무들만 찍는단니까요.》

은섬은 아무런 의사표시도 안했다. 서른돌기나 년륜을 새겨감은 저 아름답드리들이 자취를 감추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죄어들었다.

윤석규는 말없이 나무들을 응시하는 은섬의 얼굴에서 이런 심증을 읽은 모양이었다.

《나두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아버지나 치권 아저씨생각을 하던 나두...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윤석규의 목소리가 침중해졌다. 그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은섬도 호- 모두숨을 내쉬었다 그는 수첩을 다시 펴서 써넣었다.

《인정에 포로되지 않는 관리위원장...》

은섬은 얼마 못가서 또 멈춰섰다. 맨 바깥줄에 눈에 띄게 키낮은 나무가 몇그루 섞여있는것이였다. 그결에 선 아름답드리 밑둥에는 도끼자국이 아물어서 부풀은 흠집이 잡혀있었다.

물음을 품은 그의 시선에 윤석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이를 가려봤구만요. 백양나무란 과연 빨리 자라는 나무지요. 4년 뒤늦게 심었는데 이렇게...》

《이 흠집도 그때 찍힌건가요?》

《허허... 소조원동무 관찰력엔 도무지...》

윤석규는 어줍게 웃더니 급작스레 말머리를 돌렸다.

《가만, 누가 벌써 나왔을가?》

어디선가 인기척이 났다. 윤석규를 따라 숲밖으로 나갔다. 멀지 않은 발머리에서 누군가가 삽질을 하고있었다. 등이 구부정한 체소한 모습이 눈

에 익었다. 겨우내 바람에 밀려 숲가장자리에 쌓인 눈무지를 쳐서 뿌리에 퍼놓는것은 7작업반장 박치권이였다.

윤석규는 부랴부랴 그에게로 다가갔다. 은섬은 그자리에서 작업반장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수첩과 원주필을 꺼냈다.

윤석규는 다짜고짜 삽자루를 붙잡았다.

《아저씨두 과연... 밝기두전에 나오셨구만요. 몸두 좀 돌보셔야겠어요.》

《걱정 말게. 제몸 건사야 어련히 하지 않으리.》

《아저씨두, 어제밤 회의때 기침을 자주 낚으시는데 이렇게 무리하시다가...》

윤석규의 근심스런 어조에 은섬은 원주필을 멈췄다. 두사람을 번갈아보느라니 눈언저리가 절로 후터워졌다. 관리위원장에게서 또 한가지 미덕을 발견한것이 기뻐다.

박치권은 윤석규가 원하는 담배를 붙여물고는 다시 삽자루를 가누어잡았다.

《그만하시라는데두요. 저 큰 나무들을 찍으면 제격 다 녹아버릴텐데 왜 이러십니까?》

《뭐? 뭐라구?》

박치권은 다급히 반문했다. 별에 그을은 주름진 얼굴이 더욱 컴컴해졌다. 선여섯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도록 정력이 넘치는 부리부리한 눈에 서글픈 빛이 비쳤다.

《그에... 그에 찍어버리자는젠가?》

《경영위원회에서도 지체 말구 채벌승인신청서를 내라는겁니다.》

《.....》

《너무 섬섬해 마십시오. 소출을 더 낼수 있는 예비를 찾아놓구야 그냥돌수 없지 않습니까? 이 건 관리위원회 결정입니다.》

박치권은 대답대신 머리를 뒹 젖고는 더 멀리 눈덩이를 뿌려던졌다.

《그만하시라구요. 아저씨.》

윤석규가 애원하대싶이 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씨불임을 열흘이나 앞당기자면 발갈이두 다그쳐야 할게 아니냐?》

《아니, 금년에두 이 바깥들부터 갈겠습니까?》

윤석규는 놀람과 의혹을 한꺼번에 드러냈다. 박치권이 삽자루를 세워짚으며 허리를 폈다.

《관리위원회에 낸 파종순차를 못봤냐? 바깥들부터 시작해서 다락밭, 안벌 차례루 쫓다.》

《아저씨, 금년부턴 철저히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농사를 짓자구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숲이 둘러싼 안벌부터 심어야지 그러다 마감서리 피해를 받으면 어쩔라구요?》

《잠풍하긴 해두 서린 해마다 안벌에 제일 늦두룩 내린다니까.》

《아저씨두 과연... 다락밭보다두 더 늦두룩 내

린단말입니까? 해발고 100미터당 기온이 0.6도씩 내려간다는건 과학입니다.》

《그래두...》

《그렇게 고집하니까 경험주의란 말을 듣지 않습니다니까?》

《뭐? 경험주의?》

박치권이 버럭 어성을 높였다. 위낙 부리부리한 두눈에서 불꽃같은것이 번쩍하였다.

《아저씨가 이러실 땐 제 립장이 과연 딱합니다. 사람들앞에서 반박할수도 없구 그렇다구...》

《그만하게, 이젠 책에 써여있진 않아두 내가 서른번 가까이 씨를 묻구 거둬들인 이 반달골땅이 해마다 제손으루 세월의 갈피속에 적어뵈여주군한거네.》

삽자루를 거머쥔 마디굵은 손가락들이 으드득 소리를 냈다.

《아저씨, 그래두 과학을 믿어야지 않겠습니까.》

윤석규는 눈길을 내리깔고 담배연기만 내뿜었다. 박치권은 불을 뿜는듯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은섬은 아무 말도 못하고 수첩이 꾸겨지도록 양손을 그러쥐었다.

상서롭지 못한 침묵은 작업반의 양수기운전공청년이 소리치며 달려오는바람에 깨졌다. 영양단지를 빛는 다락밭현장의 양수용원동기가 발동이 안 걸린다는것이였다.

윤석규가 말아나섰다.

《연유도관이 메지 않았소? 점화전은? 어제 새루 맞춘거라... 그래 보관은 어떻게 했소?》

《어제밤 남새온상에다 넣구...》

《뭐, 온상에? 동무 정신있소? 습기를 받을 생각두 못했는가말이요?》

청년은 대뜸 정통을 찌르는 관리위원장앞에 아주 주눅이 들었다. 박치권이 대답하였다.

《일은 내가 저질렀네. 봄내 여름내 물을 퍼야 할 기결 우물가에 그냥두구 왔다길래 내 되게 추궁했댔네. 당장 따뜻한 온상에 넣으라구 했는데 그제 되려...》

박치권은 못내 어쭙은 표정으로 삽자루를 만지작거렸다.

《보십시오. 아저씨, 과학농사를 짓는 오늘, 마음만으론 안됩니다.》

윤석규는 저으기 어성을 누그리었다. 그러나 눈에는 박치권을 숙여들게 한데 대한 호뭇함이 비껴있는것 같았다. 그는 청년에게 기계화작업반에 가 물땅크차를 끌어오라고 이르고 다락밭을 향했다.

묵묵히 따라가는 박치권의 걸음발은 무거웠다.

은섬은 여전히 수첩을 꾸겨진채 따라섰다. 보지 않고도 제격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수습대책을 세우는 윤석규의 숨씨는 응당 수첩 앞면에 적어

야 할것이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다.

× ×

《농업기상학》, 《농업사전》, 《우리 나라 소기후도》...

은섬은 교과서와 기술서적, 대학에서 강의받은 학습장들을 뒤적이며 서리현상에 대한 자료를 거듭 읽고 음미하였다. 그러나 지형지물이 서리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찾을수가 없었다.

은섬은 손땀이 풀려서 한숨을 쉬었다.

오늘새벽에 있는 일이 되살아올랐던것이다.

은섬은 모두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 아버지가 짠 파종순차가 정말 과학성이 없는것일까? 피와 땀으로 땅을 갈구며 오랜 세월 작업반농사를 주관해온 분의 주장이 왜 경험주의로만 비난받는담?

은섬은 저도 모르게 빨간 수첩을 꺼냈다. 오늘 기록한 책장을 펼쳤다.

《주관적의도와 과학기술적준비간의 격차...》

부정적인것을 기록하는 뒤면에 적기는 하였으나 원동기보관에서의 실책을 단순한 실책으로 간주하고싶지 않았다. 그 동기는 역시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풍작을 마련하려고 어둡새벽에 홀로 나가 눈무지를 뿌려 퍼놓던 그런 뜨거운 지향이 아닐가싶었다.

토지개혁때 농촌위원회 무장보초를 썼고 전쟁 3년을 화선에서 싸웠으며 시련에 찬 전후의 나날에 마을사람들을 묶어세워 협동조합을 조직한 아버지, 작업반장으로서 농사만 지은것이 아니라 윤석규같은 끝끝한 일군들을 키워낸 충실한 당원이 락오자가 되었다고 단정하는것은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었다.

은섬은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마음은 불같지만 박치권을 믿어주고 신심을 줄 도리가 없는 것이였다.

반장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피로와 모태기실까? 그런데 나는? 일군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할 3대혁명소조원인 나는?

금시 숨이 막힐듯이 답답하였다. 은섬은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을 열어젖히려던 그의 손이 굳어졌다. 검푸른 밤하늘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빨간 점을 지켜보았다. 기상관측소의 무전안테나 불빛이였다.

여직껏 저기에 찾아갈 생각을 못한것이 스스로도 놀라왔다. 은섬은 바빠 목도리를 휘감았다.

큰길에 나선 은섬은 잠시 주춤거렸다. 불빛은 손에 잡힐듯이 뻗히 바라보이지만 큰길로 가자면 읍을 거쳐서 50리가 넘는 길이였다. 저녁빼스시간이 지난지도 이미 오렸다.

그러나 은섬은 오래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큰 길을 버리고 논두렁에 내려섰다. 두렁에서 미끄러져내리고 버그루에 걸쳐여 휘청거리면서도 줄곧 불빛을 바라보면서 끈주 벌을 꿰질러달렸다.

불현듯 팔팔 울려오는 물소리에 은섬은 또 멈춰섰다. 눈석이에 물이 불은 개울이 마구 사뭇치며 흐르고있었다. 소연한 물소리는 분별없이 덤비지 말고 돌아서라고 경고하는것 같았다.

은섬은 초조함에 못이겨 발을 구르며 개울물과 안테나신호등을 번갈아보았다. 그 불빛속에 박치권의 주름진 얼굴이 어려보였다.

《새겨보구 농사지으라구. 우리 땅이 일깨워준 건데두 고집이구 경험주인가?》

하던 때 불을 뿜는것 같던 그의 눈이 자기를 지켜보는것 같았다.

은섬은 서둘러 신발을 벗었다. 얼음처럼 차거운 물속에 들어 섰다.

이웃 농장 뒤산에 접어들자 더욱 힘겨웠다. 길잡이처럼 반짝이던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은섬은 칠혹같은 어둠속을 손터듬으로 헤쳐올라갔다. 나무가지에 목도리자락이 걸채일 때마다 누군가가 목덜미를 쥐여당기는것 같았다. 삭정이가 밝혀 꺾어지는 소리에도 오싹 소름이 끼쳤다.

릉선이 가까와올수록 비탈이 더 가파로와졌다. 얼굴을 후려치는 관록가지를 휘여잡으며 뚫아오르던 은섬은 나무가지가 꺾어지는바람에 《앗!》 소리를 질렀다. 균형을 잃는 몸은 건잡을수없이 지쳐내렸다.

은섬은 랑손을 허우적거리 무엇인가를 붙잡았다.

간신히 멈춰선 그는 몸을 일으키려고 휘청이는 다래덩굴을 잡아당겼다. 전신의 기력을 다해 안간힘을 썼으며 신음소리가 앞서 튀어나왔다. 어느 돌부리에 짓찔렸는지 오른쪽 무릎을 굽힐수가 없었다.

지척에 보이던릉선이 까마득히 멀어진것 같았다. 끝내 마저 오르지 못하고 날 밝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불쑥 눈물이 솟았다. 뿌옇게 흐려지는 눈앞에 등이 구부정해서 관리위원장을 따라나서던 박치권의 모습이 또 어른거렸다.

순간 감전되기라도 한듯 온몸에 전율이 지나갔다. 박치권에게 신심을 부여주겠다고 떠난 주제에 요만한 일에도 주저앉아있는 자신에 대해 부아가 났다.

그는 황황히 무릎을 어루만져보았다. 어느새 통통 붓기는 했으나 아주 빠인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랑손으로 무릎을 부통켜잡고 조심조심 구부리었다. 터져오르는 신음소리를 눌러삼키며 두번, 세번 련이어 굽혔다 폈다 하였다.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도록 무릎을 놀리고난 은섬은 다시 다래덩굴을 휘여잡았다. 뽕드득 소리

가 나게 어금이를 사러물며 몸을 솟구었다.

은섬이가 기상관측소에 다달은것은 자정이 지나서였다. 그는 다리를 절룩거리지 않기 위해 윈다리에 체중을 실으며 천천히 들어섰다.

기상관측소 소장은 한동안 그를 훑어보기만 하였다. 성에 돋친 목도리며 옷자락에 들어붙은 분지가시와 노가주나무잎새, 여기저기 할퀴고 땀에 얼룩진 얼굴...

찾아온 사연을 들은 반백의 소장은 더욱 놀랐다. 그는 심중한 표정으로 관내의 기후도를 살펴보았다. 관측자료를 년도별로 정리한 대장들을 들추다못해 책장으로 갔다.

그는 금박장정의 사전과 기술서적들을 더듬다가 알파한 소책자를 뽑아 펼치였다. 뒤미처 얼굴빛이 환해졌다.

《이걸 보오, 소조원동무. 그 반장동무의 주장에 근거가 있소. 아주 귀중한 경험이요.》

《아이, 그제... 그제 정말이예요?》

은섬은 소책자를 빼앗다싶이 하였다. 그는 울렁이는 가슴을 다잡지 못하며 읽어내리였다.

《...해발고가 높아지는데 따라 매 100미터당 0.6도씩 기온이 내려간다.

그러나 바람없이 개인 날에 서리를 낳는 찬 대기는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기때문에 서리피해는 경사면의 포전들보다 산밑의 평지포전들이 더 크게 입는다. ... 찬 대기는 그 앞길에 제방이나 수림이 있으면 더 흐르지 못하므로 서리위험구역에는 나무를 심거나 돌을 쌓아 서리차단물을 형성해야 한다...》

신통히도 박치권의 주장을 론증하기 위해 씌여진것 같았다. 은섬을 더욱 흥분시킨것은 백양나무숲이 넓다란 바깥들포전들을 위한 서리차단물의 기능을 수행한것이라는 생각이였다.

은섬은 청높이 노래라도 부르고싶었다. 그는 사례의 인사말과 함께 목도리를 고쳐감았다. 소장은 필쩍 뛰며 제지하였다. 아침 빠스로 떠나도 오전중에 가닿는다면서 우격다짐으로 무전수처녀의 숙소에 데려다주었다.

은섬은 잠들수 없었다. 어서 박치권을 만나고싶었다. 그는 자체력을 깡그리 동원하여 조바심을 눌렀다. 무전수처녀가 다시 잠들기를 기다려서 조심히 빠져나갔다.

반달굴어구에 이른 은섬은 더욱 걸음을 다그쳤다. 어느덧 새별을 등지고 앉은 박치권의 집 창문의 불빛이 멀리 은은히 바라보였다. 부여오른 무릎의 동통도 가뭇없이 사그러진것 같았다.

백양나무숲이 가까와오자 은섬은 가슴자라는것 숨을 들이쉬였다. 파아란 달빛속에 잠긴 숲이 더없이 아름다와보이였다. 아지사이로 반짝이는 별들도 숲에 아름다움을 더해주기 위해 다투어 빛

을 뿌리는상싶었다.

키는 높고 낮아도 가벼이 우듬지를 저으며 설레이는 두세대의 나무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들게하였다. 터실터실 껍질이 터갈라지고 첫 아지들은 이미 삭정이가 되었지만 거연히 고개를 추켜들고 버티고선 아름다리나무들, 모진 비바람을 막아주고 피약별을 가려주어 다음 세대들이 거침없이 자라게 해준 첫세대의 나무들이 무뎡 미덥고 의젓해보였다.

《바람막이숲… 서리막이숲…》

은섬은 무심중 소리내어 불렀다. 이숲을 심어가꾼 사람들의 후더운 숨결이 끼쳐오는것만 같았다.

그 불같은 마음이 숲으로 하여금 전혀 예기치 않았던 서리막이숲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하는것이 아닐가? 그 마음이 키운것이 왜 나무뿐이라고? 오늘의 우리 농촌을 떠메고나가는 새세대들을 이끌어주고 떠밀어준것이 아니람! 귀밀에 서리가 내렸어도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불덩이가 이글거리는 우리 농촌의 골간일군을 경험주의자로 간주하다니? 다른 사람도 아닌 관리위원장동지가 저 아름다리나무들을 찍으려고 들다니? 그건… 아니, 내가 누구를 나무라? 관리위원장동지의 빈틈없는 타산과 수완에 현혹되어 공감한 내가…

가슴이 저려들었다. 은섬은 박치권을 만나면 자기비판부터 하리라 마음먹었다.

×

박치권의 집에 들어선 은섬은 물음을 앞세웠다.

《아이, 무슨 문건을 이렇게 꺼내놓으셨어요?》

낮추 드리워놓은 전등밑의 두리반이며 방바닥에 술한 문건이 널려있었다.

《농산일지》, 《포전특성표》, 《로력일계산장》… 박치권은 주름진 눈시울을 재게 습벽이며 얼굴을 들었다.

《뭐, 그저 좀…》

그는 서류들을 거두며 자리를 권했다.

《소조원동문 웬일이우? 이 밤중에? 자, 일루 내리앉우.》

은섬이 조심스레 오른쪽무릎을 세우고 앉으며 두리반에 퍼놓은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모서리가 꺾이고 보풀이 인 마분지투정에서 《사업수첩》이라고 쓴 붓글씨가 어슴푸레 드러나보이었다. 누렇게 퇴색한 도배지 뒤등에 격한 글줄들 역시 희미하였다.

《1954년 10월 7일

불타버린 술밭가장자리에 백양나무를 심었다. 2메 터간격으로 석줄에 1,553그루…》

첫장을 읽는 은섬의 눈이 커졌다. 비스듬히 앞으로 누운 큼직큼직한 글자들이 숨가진 무엇처럼

움실거리며 그 어떤 뜻깊은 사연을 하소하는듯 싶었다.

《백양나무숲에 대한 기록이군요. 그때부터 반장아바이가 써오시는거예요?》

《아니라우.》

어쭙은 몸가짐으로 박치권이 응대했다.

《관리위원장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거라우.》

《예? 관리위원장동지 아버지에게서요?》

박치권은 대답대신 담배를 꺼내물었다. 서너모금 빨아들이고야 입을 열었다.

《회준이 그사람 속이 깊었다우. 한낱한시에 마을에 돌아왔지만 난 나무심을 엄두두 못냈으니 참.》

날씨도 은산한 마가을 저녁이었다. 퇴색한 군용 배낭을 진 두 제대병사는 반달골어구에서 오래도록 말없이 서있었다. 안벌과 반달산 비탈밭의 정상이 하도 처참해서였다. 강냉이고 조고 할것없이 곡식이라 이름가진것은 모조리 쓰러지고 짓이겨져있었다. 썰렁한 해풍에 마른 잎사귀들이 서로 비벼대며 애처로운 소리를 지르고있었다.

그들은 바람을 맞받아 돌아섰다. 황량한 들을 지나 락조비긴 수평선까지 한눈에 안겨왔다. 반달골어구에서 바다가까지 아름다리로송이 들어찼던 숲이 지난해 가을 미제공중비적놈들의 소이탄에 재무지가 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은 그들이었지만 그 후과가 이다지도 모지리라고는 예상도 못했었다.

4년만에 들어서는 사립문안에서 윤희준을 맞아 들인것은 늙은 어머니의 너두리였다. 어머니는 배낭도 벗기전에 아들을 붙잡고 흔들어냈다. 소경리반장으로 보탑을 잡다가 원한의 그날 불타는 소나무밑으로 달려가 불을 끄던중 쓰러진 머느리와 어미 잃은 불쌍한 손자에 대하여, 태풍피해로 폐농이 된 농사에 대하여 흐느낌 절반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는 당장 마을을 뜨자고 하였다. 멀리는 못가도 바람격정 모르고 농사짓는 반달산넘에 마을로라도 옮겨앉자는것이였다.

윤희준은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 낮이 설어 품에서 빠져나가려는 아들 석규의 더벅머리를 쓰다듬어주던 그는 듣는 사람의 가슴이 저려드는 그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기둥허리에 꽂힌 녹슨 낫을 빼들고 울안의 백양나무에 올라갔다. 마구 낫을 후리여 아지들을 잘랐다.…

《회준이 그 사람이 자른 아지를 모아 단을 묶으면서 나는 속에서 치미는 뜨거운걸 삼키기만 했다우. 그날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두 눈에 선하우.》

박치권은 말을 멈추고 깊이 담배연기를 빨아들였다.

은섬은 묵묵히 누렇게 퇴색한 책장에 다시 눈길

을 보냈다.

조합의 첫째 농사차비와 파종정형, 키를 넘는 쭉뚝불이 불탄 나무그루를 삼켜버린 바깥틀개간에 대한 기록들을 경건한 표정으로 읽어내려갔다.

언뜻 은섬의 시선이 굳어졌다.

《1958년 4월 2일

백양나무숲에 일곱그루를 고쳐심었다…》

은섬에게는 새벽참 윤석규와 함께 숲에 가서 도끼자국을 보았을 때 품었던 의혹과 호기심이 되살아났다.

《반장아바이, 맨 바깥줄의 일곱그루를 왜 고쳐심으셨어요?》

은섬의 물음에 박치권은 긴 한숨을 앞세웠다.

《참말 불같은 사람이였다우.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제 살불이처럼 아꼈지요.》…

바깥틀개간현장에서 돌아오는 황혼길이었다. 나란히 걷던 박치권과 윤희준은 숲가에서 주춤하고 섰다. 가까이에서 도끼소리가 울리는 것이었다.

그들이 달려갔을 때 이미 애어린 백양나무 여러대가 쓰러져있었다. 다음 나무를 찍던 석규는 아버지의 불호령에 휘둘러올렸던 도끼를 내리우지도 못하고 굳어졌다. 윤희준은 다짜고짜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 겁에 질린 석규는 할머니가 당풍순을 찍으러 산에 갔다가 밭목을 빼었다고, 할머니를 도와주려는 것이라고 발명하였다. 그러나 윤희준은 따귀를 후려쳤다. 아예 반주검을 만들 기상이었다.

박치권이 우격다짐으로 아들을 떼내자 그는 텅텅 주저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박치권이 쉴새 없이 울며 버둥거리는 석규를 간신히 달래며 앞세우고 들어갔을 때 윤희준은 이미 울안의 백양나무에 올라가있었다…

박치권은 이야기를 이어대지 못하고 물기 머금은 눈을 습쩍거리었다. 은섬도 눈앞에 안개가 끼는 것 같았다. 그는 후더워오르는 가슴을 다잡느라 한참만에야 책장을 번지였다.

한장, 또 한장 책장을 넘기는 은섬의 표정이 차츰 아늑해졌다. 바깥틀개간지에 심은 고구마의 수확고며 백양나무숲의 성장, 특이하게 나타난 기상자료들과 해마다 들어나는 분배몫…

통합된 협동농장의 유족한 살림살이가 수첩의 재질에도 반영된 듯 퇴색한 도배지대신 새하얀 책장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흐뭇한 기분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1964년 9월 5일.

50년만에 들이닥쳤다는 모진 태풍이 불었지만 안골 강냉이가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백양나무숲이 제법 방풍림구실을 하였다.》

은섬은 하루의 기록을 마저 읽지 못하였다. 회

마다 모가 나고 또박또박 박아쓴 글씨가 눈에 선 것이었다. 그는 물음품은 시선을 박치권에게 보냈다. 박치권은 이번에도 신음소리같은 한숨을 앞세웠다.

《후유- 내가 쓴지라우.》

《아니, 그럼?》

《그 사람이… 전쟁때 부상자리가 도져서 여름내 신고하다가 끝내 이 세상을 하직했다우. 숨을 거둘 때 이 수첩을 넘겨주면서 그 사람이 하던 말이 지금두… 이 두손을 꼭 움켜쥐구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제제를 받들구 반달골땅이 꺼지게 농사지어보자구 버티기만 하다가 이렇게 먼저가는게 한이라지 않겠소? 자기가 못다한 일을 아들 석규가 맡아 해내두록 돌봐달라면서말이우.》

박치권은 글썽거리는 두눈을 한동안 습쩍이다가 계속하였다.

《그렇게… 그렇게 일찍 갈줄은 참말 몰랐다우.

그 사람 마지막당부를 내 깊이 새겨두기는 했지만 빈구석이 많다우. 농사일엔 물론 아들 뒤바라지두 너무나… 학교를 마친 석규 그 사람이 스스로 농장일을 하겠노라구 나설땐 눈물이 나오더라우. 어린 맘에두 아버지가 남긴 말을 새겨둔게 기록해서 단마디에 동의했지요. 그 사람이 일을 시작한 날 저녁엔 백양나무숲에 데리고 가서 어린 묘목을 심었다우. 석규 그 사람이 통신으루다 농산기수가 돼서 분조농사를 맡아안을 땐 제일보다 더 기쁘디다. 반장이 돼서 막힘없이 일할 때두 대견스럽긴하면서도 맘이 안놓여서 조용히 만나 잔소리를 하곤했다우. 하지만 관리위원장이 되구 첫째농사에서 성과를 올려 평가를 받으면서부터 어쩐지 사람이… 매사에 수자와 타산부터 앞세우면서 사람들 맘을 알아주지 않구 누구 말을 귀담아들으려구 하지 않으니 나두…》

박치권은 말을 마무리지 못하였다. 가슴속에서 끓어 소용도는 울기를 가셔내기라도 하는 듯 연거퍼 질은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은섬은 여전히 상대를 지켜보기만 하였다.

《그만합시다. 소조원동무, 이런 구차스런 소리가 무슨 소용에 달겠소? 희준이 구사람 당부대루 아들을 돌봐주구 떠밀어주지 못하구있는 주제에 무슨…》

박치권의 음성이 점점 석심하게 울리었다. 마디 굵은 량손이 부르르 떨렸다. 은섬은 더는 마주볼 수가 없어서 눈길을 떨어뜨렸다.

그 어떤 상서롭지 않은 예감에 멍치가 섬쩍하였다. 두리반에 쌓인 문건무지가 심상치 않은 사연을 암시해주는 것 같았다. 이제는 반장자리를 내놓을 때가 된 것 같다고 하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리었다.

《반장아바이, 문건은 왜 모조리 꺼내놓으셨어요?》

은섬의 불안한 물음에 박치권은 선뜻 응대를 하지 않았다. 애뜻한 기대와 위구가 뒤엎힌 표정으로 은섬을 응시하였다.

《소조원동무 날 어떻게 생각하우? 소조원동무 두 낚은걸 고집하는 경험주의자구 보수주의자라구 보우?》

《아이 무슨 말씀을?》

은섬이 황급히 밀막았으나 박치권은 흥분한 어조로 다우쳐말했다.

《내가 그런 소리 듣는건 참을수 있다우. 성 쌓구 낚은 돌이란 소릴 듣는것두말이우. 하지만... 하지만 농사를 그르치는걸 뵈히 보구 앉아있을수야 없지 않소? 관리위원장 말대루 과학적인 리치루 다 증명하지는 못해두 우리 반달골땅이 일깨워준걸 그 사람한테 똑똑히 알려주자는거라우. 이걸 보우. 서리가 어데 더 늦도록 내리는가 보란말이우.》

박치권은 수자들이 가득 적힌 종이를 내주었다.

은섬은 그것을 받기는 했으나 눈길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젖어드는 속눈섭을 습뻘이며 한동안 박치권을 여겨보았다.

박치권이 준것은 해마다 첫서리와 마감서리가 내린 날자를 포전별로 갈라적은 자료였다. 수자들은 안별포전에 그중 늦도록 서리가 내린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은섬은 점점 눈앞이 뿌어져서 마저 가려보지 못하였다. 사람들의 비난과 련민의 눈길에 주눅이 들어 고민할 대신 굽힘없이 주장을 세워 농사일을 바로잡으려고 밤새도록 오랜 문서들을 들추어 자료를 뽑고있는 박치권이 그지없이 미더웠다. 북받치는 희열과 감동을 누를수 없었다.

《반장아바이!》

은섬은 떨리는 음성으로 부르며 박치권의 두손을 거머쥐었다. 손등에 방울방울 뜨거운것이 떨어졌다.

《고마워요 아바이! 줄곧 앞장에서 싸워온신 아바이가 어떻게 경험주의자가 되고 보수주의자가 되겠어요? 아바이는 앞으로도 관리위원장동지랑 젊은 세대들을 이끌고 떠밀어주셔야 할 농장의 주인이구 우리 농촌친지의 역센 뿌리예요.》

《원, 소조원동무두...》

박치권이 자못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막았다.

《내가 뭘루 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준다구 그러우? 농사에서두 이제 과학기술이 기본인데 맘만 가지구야 되우?》

《아니예요. 무엇보다도 귀중한것은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가르침을 드립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가려는 불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달라붙으시면 과학기술로 무장하는것도 더 빠를수 있어요. 파종순차에 대한 아바이의 주장만해도 완전히 과학적인것이예요. 반장아바이랑 심어 키우신 백양나무숲이 태풍만이 아니라 서리도 막아준단말이에요.》

《뭘? 서리두 막아준다구?》

박치권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오랜 세월 반장아바이가 체득해쌓은 신것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의 결정체예요. 보셔요. 과학적인 리치가 여기에 밝혀져있어요.》

은섬은 얇은 소책자를 꺼내며 말깃을 달았다.

《기상관측소 소장아바이도 어찌나 탄복하시는지 몰라요.》

《아니, 그럼 이 밤중에 관측소엘?》

박치권은 글썽거리는 눈으로 은섬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은섬은 황급히 옷자락에서 분지가시며 노가주잎새를 뜯어냈다. 그리고는 접어서 표식한 책장을 펼쳐주었다.

《이제부터라도 학습을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그 아릅드리백양나무들을 찍지 않고도 소출을 늘일 방도를 함께 찾아보지요.》

박치권은 후들거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다. 그의 눈이 점점 쪼르려졌다. 글자들이 잘 가려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책 잡은 손을 멀찍이 뻗치다못해 고개를 젓히었다. 낮게 드리운 전등에 책을 바싹 갖다대었다. 뒤미처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은섬에게는 그 한숨소리가 자기의 가슴속을 마구 허비는것 같았다.

저렇게 드리워놓은 전등을 보고도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나이가 어려서 꺾어보지 못한탓일까? 아니, 아니야. 남의 피로움을 제 아름답침 여기지 않은탓이야. 이런 훌륭한분들에 대한 사랑이 뜨겁지 못한탓이야. 혁명소조원인 내가 아직... 우선 돌보기를 구해드려야겠어. 아침빠스로 읍에 가야겠어. 아니, 내가 사다드리는것보다는...

은섬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해죽이 웃음지었다. 얼굴빛은 저으기 밝아졌다.

은섬은 박치권에게서 책을 받아쥐고 읽어주기 시작하였다. 한마디 한마디 떼여가며 천천히...

×

이튿날아침.

은섬이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윤석규는 다림발이 선 옷차림으로 계산자를 놀리고있었다. 그는 은섬에게 자리를 권하고나서 책상우의 문건을 들여다보았다.

《채벌승인신청서》

첫마디의 글발을 띄여본 은섬은 하마트면 신읍

소리를 지를번하였다.

《놀라기는요? 오늘 관리위원장협의회에 가는 길에 아예 승인을 받아오자는겁니다.》

윤석규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번쩍거리는 소 도구들을 꺼냈다. 은섬은 그가 담배를 붙여문 다음에야 문건을 가리키며 말문을 열었다.

《관리위원장동지, 이 문제는 더 토론해보았으면 해요.》

《언제까지 토론만 하겠습니까? 당장 발걸이를 시작해야겠는데.》

《어쩐지 제 생각엔 그 아름답리나무들만을 찍는것 같지 않아요. 7작업반장아바이를 우리 농촌진지에서 아주 밀어내는것만 같군요.》

《아저씨를 밀어낸다구요? 어떻게 내가?》

윤석규가 다급히 말을 가로챘다.

《소조원동무가 그렇게 말하면 섭섭합니다. 이젠 가로수구실밖에 못하는 백양나무때문에 소출이 떨어지는걸 알면서야 어떻게 그냥 둔단말입니까?》

《그늘지는 이랑들에 필요한 미량원소비료를 친다든가 수확고를 떨어지지 않을 좋은 방도를 함께 찾아보지요.》

《방도가 있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양이 순탄치 않은 대답에 은섬의 표정이 심정해졌다.

《어쩌면 위원장동진 찍어버릴 생각뿐이예요? 이렇게 문건까지 작성해놓은 그 나무들이 바람만이 아니라 바깥을 넓은 포전의 서리피해도 막아준다말이예요.》

《서리피해료요?》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반장아바이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담보해주는거 예요.》

은섬은 기상관측소에서 가져온 소책자와 박치권이 종합한 자료를 내주었다. 윤석규가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드는데 전화종이 울렸다.

《예, 제 윤석규입니다. 아, 관측소장아바입니까? ... 예? 우리 소조원동무요? 바꾸랍니까? ...아니라고요? ... 뭐? 뭐라고요? ... 우리 소조원동무가 거길 찾았단말입니까?》

윤석규는 벌떡 일어섰다.

《새루 한시이십분예요? ...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꼭 쉬우도록 할테니 마음놓으십시오. ... 예, 제가 이거》

윤석규는 수화기를 놓고도 앉지 못하였다. 책표지에 찍힌 기상관측소 명판을 이윽도록 여겨보았다.

그는 은섬이 접어놓은 대목을 다 읽고도 시선을 들지 못하였다. 어느새 불이 꺼진 담배를 마구 비벼 부스러뜨렸다. 은섬은 그 정상을 보기가 민망스러워서 잠시 그의 기색을 살피고 말을 이어

대었다.

《생각해보श्य. 관리위원장동지가 늘 외우시는 과학과 기술, 빈틈없는 타산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것이겠어요?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더 잘 짓게하는 거기에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무그늘은 보시면서 그 나무들을 심어 가꾸신분들의 뜨거운 마음은 왜 헤아리지 못하셔요?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심으로 박동하는 그 심장의 열도가 태풍도 서리도 다 막아내는것이 아니겠나말이예요.》

《.....》

《저는 관리위원장동지가 애용하시는 이 계산자로 박치권아바이 같은 오랜 당원들의 심장의 뜨거움도 헤아려주셨으면 해요. 관리위원장동지의 첫로동일에 반장아바이가 나무모와 함께 가슴속에 심어주신 그 뜨거운것을 말이예요.》

《.....》

《이런분의 주장을 어떻게 경험주의로 일축해버리겠어요?》

《다른 사람이면 또 모르겠어요. 관리위원장동지가 이러실줄은 정말 몰랐어요.》

《소조원동무.》

윤석규가 침통한 어조로 말을 막았다. 그는 담배를 꺼내물었다. 라이타불을 면바로 담배끝에 갖다대지 못해서 세번만에야 불을 붙였다.

《아저씨한테 그런 말을 하는 제 맘은 편한줄 압니까? 어디 이 문제뿐인줄 압니까? 아저씨가 맘만 살아서 간혹 사람들 말밥에 오를 때마다 그걸 수습하느라구 내... 그런날밤엔 좀처럼 잠들수가 없습니다. 허전하구 괴롭구, 그리구...》

은섬은 자기가 지나치지 않았느냐 싶어서 한가닥목소리를 누그리었다.

《누구보다도 위해드리고 힘을 주셔야 할 관리위원장동지가 허전해하고 피로와하기만 해서야 되겠어요? 저는 반장아바이가 앞으로든 능히 자기 위치를 지켜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식과 기술이 딸리는건 사실이예요. 그러나 아바이의 마음의 뜨거움은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을거예요. 이제 새벽에 혼자서 눈무지를 뿌려서 퍼놓은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

《우리 함께 도와드리자요. 아바이가 과학농사의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말이예요.》

윤석규는 이번에도 묵묵히 듣기만 하였다. 은섬은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화제를 바꾸었다.

《어때요? 제 생각엔 파종순차도 아바이 의견대로 짜는것이 옳을것 같은데요.》

윤석규는 흐느끼듯이 모두숨을 내쉬었다.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저녁에 아저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구 이 신청서는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것이니 당분간 보류했다가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하지만 파종순차는…»

윤석규는 잠시 주춤거리다가 소책자를 가리켰다.

《소조원동무 수고해 대해선 이룰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것두 과학지식리론이구 여계 썩여있는것도 어디까지나 리론인데 우리 나라 기후야 팔짜기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후에 더 심중히 토론해봅시다.》

《좋아요. 저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보겠어요. 그런데… 관리위원장동지, 한가지 부탁이 있어요. 오늘 돋보기를 하나 사오셨으면 해요.》

《돋보기를요?》

《반장아바이가 기술학습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는데 눈이 잘 안보여서 힘겨우실것 같아요.》

《아저씨가요?》

윤석규는 자못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다. 혁명소조원앞에 당황한 기색을 보인것이 어색한지 그는 서둘러 가방을 추슬러끼면서 말짓을 달았다.

《사오겠습니다. 꼭 사오겠습니다.》

×

며칠후 휴식일이였다.

윤석규는 사무실에 일찍 들렀다가 박치권의 집으로 향하였다. 오래간만에 찾아가 회칠이라도 해줄 작정이였다. 긴장되었던 영양단지빛기를 군적으로 선찰 끝낸데 대한 만족감이 이런 여유있는 생각을 자아낸것이였다.

그러나 수도채등성을 넘어서자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사이 눈에 띄게 푸르무레해진 백양나무숲이 원망의 눈초리로 자기를 흘겨보는것 같았다. 며칠전에 들은 은섬의 이야기가 상기되였다.

《누구보다도 위해드리고 힘을 주셔야 할 관리위원장동지가…》

너무나 자극이 강한 말이였다. 관리위원장이 된후 어지간히 발길이 떠진것은 사실이지만 박치권의 사업과 생활에 자기만큼 관심돌리는 사람이

없다고 장담할수 있었다. 그날도 협의회 휴식시간에 두번이나 상점에 가서 돋보기를 사다가 주었다. 위해주고 어찌고 하는 말을 좀처럼 새길수 없었다. 그것은 곧 의리를 지킬줄 모른다는 질책이아닌가…?

윤석규가 뜰안에 들어서자 회가루물을 젓고있던 안주인이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맞바아나왔다.

《어머니, 록두묵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윤석규는 능청스런 눈빛으로 다가서며 작업복소매를 걷어올렸다.

《에그… 관리위원장한테 목값 받아낸다고 소문넬라. 어서 들어가라구. 목값은 옛저녁에 거피해서 불워쌌단니까 어서.》

윤석규를 떠밀다싶이 하며 수다를 늘어놓던 안주인은 목을 길게 빼들구 탈곡장쪽을 넘겨다보았

다.

《령감두 원… 조반전에 제깍 해치우자는데 해가 낮되두룩 뭘하누? 찌쯔쯔… 내 얼른 데려올테니 마루에라두 걸터앉으라구.》

금시 달려나가려는것을 만류하고 윤석규는 탈곡장으로 갔다, 그러나 농기구창고 모퉁이를 돌아서지 못하고 굳어졌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였다. 박치권이 양수용전동기를 정비하는 운전공청년을 거들어주고있었다. 그는 전동기를 조립하려는 청년을 제지하고 말을 건넸다.

《이 점화전이란게 틈새가 넓으면 불꽃이 잘안편단말이지? 깎슬음이 끼거나 누기가 차두 안되구…》

《시장하시겠는데 빨리 조립합시다. 어머니가 또 나오시겠습니까.》

《누가 마다나? 조립을랑 하면서 배워달라는게지.》

《아바이두. 기계야 우리가 어련히 말아 다루지 않을라구요.》

《허- 이 말본새보지? 기계속내를 모르구야 무슨 농사를 짓는다구 이러나? 항차 이겨야 영양단지를 제철에 찍게 해주구 가물을 이겨내게 해주구… 이를테면 한랭전선과 맞서 싸우기 위한 중요한 무기가 아닌가?》

《자 이겨… 반장아바이한텐 매번 손들구만다니까요.》

《그래 이 틈새가 령점몇미리됐던가? 한번만 더 튕겨주게.》

박치권은 끈끈스레도 캐고들었다. 윤석규는 한자리에 굳어진채 번거로운 상념에 잠겨들었다. 전동기를 고장낸 실책에 대한 은섬의 분석이 상기되였다. 사소한것도 다 놓치지 않고 모를 박고 배우려는 박치권의 잡도리에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반장아바이!》

챙챙한 부름소리에 놀라 윤석규는 자기로 돌아왔다. 은섬이 하늘빛목도리자락을 날리며 반달음쳐왔다. 며칠사이에 처녀가 펴 할끔해진것 같았다. 저으기 깊어진 눈확에도, 조갈이 들어 터갈라진 입술에도 피로가 실려있었다.

윤석규는 수인사를 나누기 바쁘게 슬며시 외면하였다. 농장일을 위해 아글타글 뛰는 소조원을 잘 돌봐주지 못한것이 가슴찢이였다.

그러나 박치권에게 다가서는 처녀의 눈에서 발랄하고 싱싱한 빛이 넘치고있었다.

《이걸 보셔요. 반장아바이.》

은섬은 촌촌히 줄칸을 치고 수자들을 빼곡이 채워넣은 종이장을 꺼냈다.

《포전별로 정해진 시간에 나흘밤을 관측했는데 반장아바이 주장과 거의나 맞아떨어져요. 바깥들이 1.5도 내지 2도 더 높아요.》



《아니 나홀밤이나 한지에서 새웠단말이요? 그러다...》 펄쩍 놀라는 박치권에게 은섬은 어린애처럼 천진스런 미소를 방긋 지어보이었다.

《괜찮아요. 바람없는 맑은 밤에 한두번 더 측정하면 확신을 가질수 있어요.》

대꾸를 못하고 종이장을 받은 박치권은 그것을 멀찌감치 내대었다. 뒤미처 몸을 돌려 해빛에 비쳐보았다. 어쭙은 자세로 서있던 윤석규는 그래서야 이야기에 끼여들었다.

《아저씨, 돋보기를 끼시지요.》

《글씨를 지내 잘게 썼나봐요. 어서 끼고 보세요.》

은섬도 미안쩍은 기색으로 권면하였다. 그러나 박치권은 돋보기를 꺼낼 대신 재게 눈을 슴뻑이었다. 어느새 눈물이 그렁해졌다. 눈자위가 벌겋게 충혈되어있었다.

《웬일이세요. 반장아바이?》

은섬이 근심스레 물으니 다가섰다.

《뭘, 간밤에 잠을 설쳤더니...》

어색한 변명에 은섬의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뒤미처 그는 말없이 돌아섰다.

은섬은 회칠을 마치고 점심상에 둘러앉았을 때에야 다시 나타났다. 그는 가쁜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목도리에 꾸러가지고 온것을 헤쳐놓았다. 색깔과 모양이 각이한 돋보기들이었다.

놀라 굳어진 시선들에는 아랑곳없이 은섬은 돋보기를 하나 박치권에게 내밀었다.

《어느것이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시력검사표를 가지고 함께 오려고 했는데 안과의사 선생이 계셔야지요. 기다리다 못해 동네 할아버지들을 찾아가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에그... 돋보기루 생긴건 몽땅 걸어왔구만, 피를 나는 딸이면 이렇게 지극할라구?》

부엌에 내려간 안주인의 말에 은섬의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아이, 무슨 말씀을... 어서 껴보세요.》

박치권은 은섬이 섬겨주는대로 돋보기를 껴보았다.

그의 눈에 맞는것이 확정되자 은섬은 자리를 일었다. 무뚝히 담은 목대접을 들고 올라온 안주인이 기겁을 하며 만류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아니, 가야겠어요. 뺨스시간이 됐어요.》

은섬은 목도리를 휘감았다. 주인내외가 대문밖까지 따라나갔다. 그러나 윤석규는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는 문설주를 잡고 서서 은섬의 뒤모습을 지켜보았다. 보위색작업복 어깨너머에서 펄럭이는 하늘빛 목도리자락이 탈곡장 울타리 뒤로 사라진후에도 그는 한자세로 서있었다.

×

윤석규는 또 담배갑을 끄당겼다. 답이 두뼘째 올랐으나 잠을 이룰수 없었다. 창문 가득 달빛이

비쳐드는 방안에 담배연기가 자욱하였다. 굵실 굵실 피어오르는 기묘한 연기무늬속에 하루의 표상들이 련이어 떠올랐다.

조반을 번져가며 전동기구조를 배우는 박치권과 은섬의 합금해진 얼굴, 술한 돋보기를 꾸러가지고 나라났던 처녀의 모습, 뺨스정류소로 달려가는 그의 등뒤에서 펄럭이던 하늘빛목도리자락...

그의 마음은 자책으로 옥죄여들었다.

그토록 소조원동무 애를 태운게 누군가? 내가 제대루 사왔다면...

보나마나 소조원동무 내 립장을 생각해서, 아저씨에게 힘을 주게 하려구 부탁했을텐데 도수두 알아보지 않았으니 과연... 도수 맞지 않는 돋보기때문에 아저씨 눈에 피진걸 볼 때 소조원동무가 나를 얼마나 나무랬겠는가? 이러구두 누구보다도 깊이 아저씨한테 관심돌린다구? 아니,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나는 정녕, 인정두 의리두 다 저버린놈으로 변했다...

윤석규는 무자비하게 자신을 규탄하였다. 규탄하고 타매해도 울기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때문에 궤도에서 벗어났는지 그원인을 알수가 없는것이였다.

더는 누워있을수 없었다. 자욱한 담배연기에 숨이 막힐것 같았다.

집을 나선 윤석규는 목적도 방향도 없이 걸었다.

어느결엔지 수도제에 올라섰다. 그는 자력선에 끌리더라도 하듯이 백양나무숲으로 내려갔다. 나무들을 향해 소리쳐 묻고싶었다. 무엇때문에 자기가 수자와 타산, 수확고만 내세우며 소조원처럼 박치권의 마음을 헤아려보지 못했는지를...

윤석규는 눈에 띄게 키낮은 사연 깊은 일곱그루의 나무들을 지나 걸음을 멈췄다. 자기의 도끼날에 찍힌 상처가 아물어 부른 험상스런 흔적을 한참이나 어루쓸었다.

다시 허둥지둥 걸음을 옮기던 그는 얼마 못가서 전류에 닿기라도 한듯이 굳어졌다. 달빛을 반사하여 번들거리는 영양단지모관결에 누군가가 쪼그리고앉아있었다. 여겨보나마나 은섬이였다.

또 나왔구나. 돋보기 사려 갔다가 어두워서야 돌아왔겠는데 또 기운을 측정하려구, 아니, 나를 궤도에 들여세워주려구 또 하루밤을 새우는게지, 심장이 얼마나 크고 뜨거우면 이렇게... 내가 왜 이러구 섰어? 어서 가서 소조원동무들 들여보내야지.

서둘러 발머리에 접어둔 윤석규는 그자리에 못박혔다. 불쑥 은섬이 일어서는것이였다. 은섬은 황급히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직 예정한 시간이 안되어서야 안도의 숨을 쉬는듯 량어깨가 눈에 띄게 오르내렸다.

처녀는 그제서야 땡기를 감각하는지 온몸을 떨었다. 목도리를 풀어서 다시 감더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지곳은 줄음을 쫓는것인지, 아니

면 추위를 이겨내려는것인지 모판끝까지 갔다가 돌아섰다. 세번, 네번 같은 구간을 밭을 구르며 반달음질로 오갔다.

윤석규에게는 들릴가말가 한 그 밭자국소리가 곧추 가슴속으로 뚫고들어와 광광 울려주는것 같았다.

얼마나 춥겠는가? 어제두, 그제두 그리구 그전 날에두 밤마다 저렇게 떨면서 지새웠을게 아닌가?

생각하고보니 모판기슭을 따라 오솔길처럼 다져진 자국이 뚜렷이 가려보이었다. 그만 멈춰서라고, 당장 들어가 쉬라고 소리치고싶었다.

그러나 윤석규는 입을 열지 못하였다.

차츰 은섬의 걸음발이 떠지는것이었다. 또 줄음의 안개에 휘감긴듯 굽벅 고개를 떨구며 멈춰섰다.

은섬은 도리머리를 짓고 다시 걸음을 떼었다. 그러나 모판끝까지 채워가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윤석규는 막 달려가 일구어 숙소로 들여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밭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숨만 크게 쉬어도 은섬이 깨날것 같았다. 이 추위속에서도 쪽잠이 든 소조원이...

그렇다고 바라보기만 할수도 없었다.

윤석규는 모지름을 쓰다못해 땡기를 막아주기라도 해야겠다고 작정하였다.

그는 걸음마다 은섬을 돌아보며 숲으로 갔다.

마른 삭정이를 한아름 모아안고 돌아선 그는 숨소리마저 죽이며 은섬에게 다가가 불을 지피었다.

불이 피어나자 저절로 모두숨이 나갔다. 어서 빨리 활활 타오르게 하고싶었다. 무릎을 꿇고 극성스레 불을 부쳐대던 윤석규는 그자리에 물러앉을번하였다.

《누구예요? 누가 불을 피우랬어요?》

어느새 깨어났는지 은섬이 소리치며 일어났다. 물소리도 눈빛도 서리발처럼 예리하였다.

《어쩌면...어쩌면 관리위원장동지가 불을 피우다니?》

은섬의 어조가 달라졌다. 놀람보다는 실망이 더 큰듯 마지막 말마디는 들릴듯말듯 잦아들었다.

바빠 시선을 돌리는 은섬의 말에서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자기의 호의가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윤석규의 심정에는 아랑곳없이 은섬은 불을 끄기 시작하였다. 불달린 삭정이들을 맨손으루 집어헤치고 밟아비볐다.

박치권이 아니었던들 윤석규는 망연히 바라보기만 했을것이었다. 헐떡거리며 달려온 박치권은 다짜고짜 불씨를 밟아몽개며 소리쳤다.

《사람두... 며칠째 밤을 새우면서 측정하는데 이게 원가?》

윤석규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것 같았다. 자기

가 저지른 일이 스스로도 놀라왔다. 박치권의 다 음말은 더욱 모진 타격이었다.

《우리 반달굴에 서리내리는 래력을 과학적으로 밝히자구 0.1도를 다루면서 측정하는데 임자가 불을 피우다니?》

윤석규는 아연한 표정으로 박치권을 여겨보았다. 철부지시절부터 눈에 익은 대바르고 듩직한 모습은 다시 눈앞에 확연히 안겨왔다. 단 며칠사이에 몰라보게 의젓하고 세련된 작업반장의 면모를...

작잡하던 머리속이 대번에 석연해졌다. 모대기고 몸부림칠수록 더 지긋게 갈마들던 의혹이 풀려나갔다. 자기는 극상 회칠이나 해주고 건강이나 넘려하는것이 의리를 지키는것으로 만족했지만 3대혁명소조원 서은섬은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시대의 앞장에 서서 영원히 씩씩하게 정치적생명을 계속 빛내어나가도록 박치권을 부축해주고 이끌어준것이었다.

윤석규는 참을수 없이 부끄러웠다. 말끝마다 과학농사의 시대요, 과학기술적리치요 하면서도 몇권의 과학서적에만 얽매여 과학농사의 시대가 어떻게 마련되고 그 터전을 누가 닦아놓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새 잊어버린것이었다. 해마다 만풍년드는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을 꽃피우게 위하여 피흘리고 땀을 부어온 억센 뿌리인 오랜 농촌혁명가들이 시대를 따라가도록 도와줄 대신 주체농법관철을 저애하는 경험주의자, 보수주의자로 간주하였으며 자그마한 성과에 머리가 뜨거워나 오늘의 풍성한 열매를 자신의 능력과 수완으로 이룩한것처럼 여겨 그릇된 주장만 앞세워온것이었다. 만약 나의 주장대로 되었었다면...?

모진 자책과 회오가 아프게 가슴을 저미었다.

은섬은 마지막 한점의 불씨까지 꺼버리고야 온도계를 땅에 내려놓았다. 숨가쁜 순간들이 흐른 끝에 은섬이 집어든 온도계에 윤석규와 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보세요. 5, 3도로 올라갔어요.》

은섬은 차갑게 반짝이는 수은주를 가리키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 걷기 시작하였다. 뒤미처 박치권이 따라섰다.

은섬은 모판 세계를 지나서 멈춰섰다. 그는 켄 걸음으로 다가가는 박치권에게 온도계를 내보이었다. 우등불에 가열된 공기가 거기에도 흘러갔다고 단정했는지 돌이는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뒤모습을 지켜보는 윤석규는 가슴속이 오작오작 타는것 같았다.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것이 고통스러웠다. 한걸음 또 한걸음 멀어지는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다가는 아주 락오자가 되어버릴것 같았다.

윤석규는 저도 모르게 소리쳐불렀다.

《소조원동무!》

숨가빠 달려가는 그에게로 은섬이 맞받아왔다.  
《됐어요. 관리위원장동지! 전혀… 전혀 내려가지 않았어요!》

어린애처럼 환성을 지르며 온도계를 내밀었다. 윤석규는 그것을 받아쥐기는 하였으나 눈금을 가려볼 경향이 없었다. 웃음이 함뿍 어린 은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목도리 가장자리와 흐트러진 앞머리, 기다란 속눈썹에 돋친 성애가 그 밝은 물음에 금시 녹아내릴것만 같았다.

《소조원동무!》

불러놓고도 가슴을 들먹이기만 하는 그에게 은섬이 온도계를 가리켰다.

《보세요. 한시간전 그대로예요. 하지만 안벌 기운은 썩 내려갔을거예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안벌쪽으로 돌아서는 은섬을 박치권이 만류하였다.

《거긴 안가두 되우. 내가 측정을 했다우.》

그는 서둘러 돋보기를 꺼내서 껴다. 아침에 은섬이 기온측정표를 찬찬히 살펴보고 넘겨주었다.

《반장아바이두…》

은섬은 기쁨과 감사의 시선으로 박치권을 쳐다보고나서 측정표를 보았다.

《됐어요. 찬 공기가 흘러내려온게 분명해요. 1.8도나 차이나요. 이제 다락발기온만 측정하면 되겠어요.》

《다락발엘 또?》

이번에는 윤석규가 막아나섰다.

《그래 그 수치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확정할수 있어요.》

《소조원동무, 내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빨리 돌아들갑시다. 날이 새겠습니다.》

윤석규는 자기 말이 더듬거리는것을 어찌지 못했다.

가슴속에서는 자신에 대한 울분이 끓어번지고있었다.

《래일… 래일 당장 이 바깥틀 모판부터 강냉이 씨를 박아넣겠습니다.》

《고마와요. 관리위원장동지.》

은섬은 랑손을 모아잡으며 한결음 다가섰다.

그들은 곧 다락발으로 향하였다. 밝은 달이 나란히 걷는 세사람의 앞길에 은가루같은 빛발을 아낌없이 부어주었다. 달빛속에 잠들었던 백양나무숲도 소리없이 깨어나 고마움과 믿음의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주는듯싶었다.

마지막 영양단지모가 포전에 뿌리내린 날 밤이었다.

긴장한 전투를 앞당겨 끝낸 기쁨과 만족감속에 깊이 잠들었던 마을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울리었다. 집집마다에 불이 켜졌다. 부르고 화답하며 사람들이 벌로 달려나갔다.

날씨도 어찌나 변덕스러운지 선참 움긴 강냉이 포기에서 새잎이 돌아나는데 서리가 내린다는것이였다.

미구에 안벌 한끝에서 불길이 일어났다. 련이어 세개, 네개… 그런데 반달산 다락발이며 바깥틀의 넓은 벌은 그대로 어둑속에 잠겨있었다.

무수한 우등불로 안벌은 불야경을 이루었다. 자욱한 연기가 온밤 서려올랐다. 그 술한 우등불 불광을 노을빛으로 착각했는지 백양나무숲의 새들이 밤중에 우짖기 시작하였다.

차츰 고조되는 새들의 노래소리의 재촉속에 동녘이 희분해졌다. 온밤 놀란 표정으로 대지를 굽어보던 벌들이 차츰 빛을 잃었다. 아침해도 뒤늦어 떠오르기가 죄스러운듯 불그스름한 얼굴을 살며시 내밀었다.

날이 밝자 은섬은 박치권, 윤석규와 함께 강냉이이랑들을 살펴보았다. 싱싱한 잎새끄트머리마다에 서리 대신 이슬이 맺혀 수은방울처럼 반짝이였다.

연기맛을 보지 못한 다락발 꼭대기의 강냉이들도, 바깥틀 마지막이랑의 강냉이불도 한결같이 싱싱하였다.

작업반포전들을 다 돌아보고난 은섬은 빨간 수첩을 꺼냈다. 무슨 이야긴지 주교받으며 나란히 백양나무숲으로 걸어가는 박치권과 윤석규를 눈주어보고나서 원주필을 뽑아쥐었다.

《한가락으로 고동치는 두 세대의 심장…》

어느덧 해가 솟아올랐다. 아지마다 새잎이 활짝핀 백양나무숲이 해빛을 반겨 설레이었다. 키는 어지간히 크고 작아도 하늘을 찌러 솟은 나무들에서는 윤기 흐르는 잎새들이 산호빛으로 물들여 살랑거리었다. 세대와 세대가 어깨걸고 버티여 서서 태풍도, 서리도, 자연의 그 어떤 횡포도 다 맞받아 이겨내리라 다짐하기라도 하는듯 잎새들을 맞비비며 가벼이 설레이었다.

재티 오른 귀밑머리를 쓰다듬어넘기며 숲을 바라보는 은섬의 얼굴에서 가지런한 이새가 눈부시게 반짝이였다.

## 월미도의 포성이 들려온다

박창민

봄이면 사과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가을엔 황금이삭 물결치는 곳  
아 내 고향 푸른 들 한줌의 흙이  
목숨보다 귀중한줄 나는 나는 알았네

해안포진지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훈련의 휴식참에 무전수인 너전사가 부르는 노래였다.

고향의 그윽한 정서를 실어오는 은은한 노래에  
이끌렸는가, 너울너울 포신우를 감도는 갈매기도,  
다박술우거진 기슭을 치며 밀려오는 파도도.

예술영화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이 부르던 고향의 노래, 조국의 노래!

그 노래를 해안포병들의 훈련모습을 취재하며  
에서 들으니 이름할수 없는 감흥이 밀물처럼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포진지에 이른 나는 전투적랑만이 흘러넘치는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조용히 병사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철갑모밑으로 흘러내린 단발머리를 싱그러운 해  
풍에 가벼이 날리며 애절한 너전사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나의 눈앞에는 월미도의 《영옥》이가 떠올랐다.  
노래는 합창으로 넘어갔다.

열두개의 오각별 빛나는 포신을 어루만지며, 노래를 부르는 포병지휘관, 종달새 우짖는 고향의 푸른 들, 푸른 하늘을 그리는가, 이따금 지그시 눈을 감으며 손뽕금의 건반우에 물결을 일으키는 상등병, 철갑모를 비스듬히 चे껴쓰고 저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따라부르는 지휘소대장과 조준수...

내 고향 푸른 들 한줌의 흙이 목숨보다 귀중한 줄을 알았다는 저 노래는 얼마나 하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가.

조국과 병사, 삶과 죽음을 두고.

나는 무전수를 만나보았다.

《전사동무의 노래를 들으니 월미도의 <영옥>이가 생각나누만요.》

《이 동문 월미도의 <영옥>이와 이름이 같답니다.》

지휘관이 귀뜸해주었다.

《이름은 같지만 전 아직 월미도의 <영옥>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영옥>이는 우리들에게 병사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을 어떻게 바쳐야 하며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전 《영옥》이처럼 살기 위해, 월미도의 <영옥>이가 되기 위해 남보다 더 애씁니다.》

가슴뜨거운 말이였다.

저 너전사의 가슴속에 얼마나 뜨거운것이 고여 있는가.

이 땅우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30년.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였다.

그러나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의 슬기로운 녀은 오늘도 우리 병사들의 가슴속에 살아숨쉬고있었다. 피로써 조국을 사수한 그들의 숭고한 애국의 정신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혁명의 계승자들에 의해 이어지고있었다.

잠시후 훈련이 시작되였다.

《저 바다 멀리가 월미도입니다.》

지휘관의 말이였다.

《월미도?!》 충격이 컸다.

짱-하니 걱정의 파도가 가슴을 쳤다.

아, 월미도! 언제부터였던가.

조국이라는 숭엄하고 거룩한 이름에 깃든 뜻을 가르쳐주며 내 가슴속에 위훈의 탑으로 높이 솟은것은... 병사는 조국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보여주며 영웅의 봉우리로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기 조국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나라없는 식민지노예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조국은 누구에게 있어서나 귀중하다. 하기에 사람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뒀던 땅, 나서자란 조국을 가리켜 어머니라고 부른다. 조국이라는 그 참 뜻을 심장에 받아안은 그 아들딸들이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그들은 4문의 포와 한개 중대로 월미도를 3일간 고수하라는 조국의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이

명령을 조국을 사수하라는 명령으로 여겼으며 월미도를 지켜내는것은 목숨보다 귀중한 어머니조국을 지켜내는것으로 생각하였다.

미제의 살인장군 맥아더놈은 인천에 상륙하여 일거에 중부조선일대를 장악함으로써 우리 인민군주력부대를 《포위섬멸》하며 전조선을 단숨에 강점하려는 음흉한 기도밑에 5만의 병력과 300여척의 군함, 1,000여대의 비행기로 이 작은 섬을 노리였다.

참으로 이 격전은 인민군 한개 해안포병중대와 미제의 대무력과의 전투였다.

고금의 전쟁력사에 없었던 이 대결에서 우리의 영웅전사들은 치열한 결사전을 벌려 조국의 명령을 빛나게 수행하는 전쟁사상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포탄에 바다물이 끓고 바위도 재가루되어 날리는 월미도는 지도에조차 표시되어있지 않는 작은 섬이여도 원수들에게 내어줄수 없는 귀중한 조국의 한부분이었다. 그들의 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안녕은 곧 조국의 안녕이었다.

그때문에 전사들은 그 작은 섬에 청춘을 바쳐 피로써 조국을 지켰다.

다박술 우겨진 이 섬에 싸우다 쓰러져 묻힐 땅은 있어도 살아서 물러설 땅은 한치도 없었다.

귀기울이면 지금도 리태운의 격조높은 목소리 들려오는것만 같다.

《...동무들! 조국은 위협에 처해있습니다....우리 뒤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가 있으며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파도사나운 바다를 바라보면 영웅전사들의 불멸의 모습 눈앞에 떠오른다.

증상을 입고 후송되었지만 다시 섬으로 달려와 최후의 시각에 결사대를 이끌고 적을 맞받아나간 당분조장 민국,

물으로 나가라는 명령도 마다하고 몸이 그대로 전선줄로 이어져 지휘통신을 보장하고 꽃다운 청춘을 바친 영웅,

최후의 길로 나가면서도 자기는 한이 없다고, 혹시 전할 길이 있으면 해군중사가 장군님의 안녕을 축원하면서 나갔다는것을 전해달라고 하며 한몸이 그대로 폭탄이 되어 적함으로 육박해나간 최석준,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김일성** 장군 만세! 조국이며! 변영하라!》고.

이 마지막 말을 세상에 남기고 결전으로 나간 월미도방위자들...

(저 바다 저 수평선너머 월미도와 더불어 영생할 불멸의 모습들이여! 이름없는 사랑스러운 영웅전사들이여!

그대들이야말로 조국을 가장 사랑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대들이야말로 병사는 조국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갔구나.

조국과 병사야말로 떨어질수 없는 하나의 이름으로 빛나야 함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갔구나.)

그들이 그토록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참된 삶을 보여주고 간 날은 불과 3일간이었다.

그러나 그 72시간의 가렬치열한 싸움의 날에 보여주고 간 고결한 조국에는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고있다. 비록 그들은 모두 장렬한 최후를 마쳐어도 그날에 높뛰던 심장의 고동소리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쿵쿵 울려주고있다

어느 한 과학잡지에서 본 세계장수자들이 세운 기록이 생각한다. 그들은 150살을 더 살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계장수기록보유자》로서 기자들의 상식수첩의 갈피에는 남아있을수 있어도 조국을 위해 참되게 산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의 삶처럼 만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수 없다.

아무런 신념과 리상이 없이,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바친것 없이 100년, 200년을 산들 그 삶이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하기에 영웅전사들은 꽃나이 청춘으로 한생을 마쳤지만 오늘도 그들은 그 청춘으로 우리와 함께있는것이다....

《목표, 적함, 거리... 조준점...쏘!》

포병지휘관의 힘찬 구령과 함께 나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쏘!》 《쏘!...》

그 구령소리 어찌면 그리도 멀적에로 부르던 리태운중대장의 목소리 같은가.

번개같이 움직이는 저 포병전사들의 모습이 어찌면 그리도 나에게는 월미도 영웅전사들처럼 보이는가.

광, 광! ... 월미도의 포성이 들려온다. 내 가슴속을 세차게 흔들며 《해안포병의 노래》의 장엄한 관현악이 울려온다.

전사들의 선혈로 물든 영웅의 섬 월미도는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고 우리를 부른다. 전사들은 언제나 월미도의 포성을 안고 산다.

아, 월미도의 포성이 들려온다!

## 맹세에 대한 생각

한원희

맹세는 사람의 한생에 간직하는 생활의 좌우명이며 마음의 억센 기둥이다.

한번 다진 맹세를 저버리는것은 참된 인간이기를 벌써 그만둔다. 더구나 혁명의 길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내지 못한다는것은 동지들앞에 조직앞에 그리고 시대와 력사 앞에 규탄의 대상으로 되는것이다.

사람들이란 누구나 하나의 신념, 굳은 맹세를 간직하고 자기의 한생을 값높게 살기를 바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입니다. 그러므로 혁명가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나는 어느날, 조국의 서북단에 자리잡고있는 천리마락원기계공장을 찾아가는 일이 었다. 여기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락원의 10명 당원들을 낳은곳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올리는 그 맹세를 기어이 지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적열정을 지펴준 잊지 못할 땅이다. 우리 인민들을 한없이 격동시키고있는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는 다 지난날 여기서 벌어진 투쟁을 담고있는것이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토록 감회깊게 추억하고계시는 세포총회장소인 옛 주철직장 민주선전실을 돌아본후에 오늘도 그날의 당원들의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있는 락원의 로동계급의 투쟁이야기를 취재하려고 마음먹었다.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그야말로 락원의 벽찬 숲결이 온몸에 흘러드는것 같았다. 여기저기에서 용접의 불보라가 쏟아져내리고 공기함마의 둔중한 음향이 메아리치는데 방금 조립을 끝낸 굴착기가 대형조기직장을 나오고있었다.

구내길 량쪽옆으로 주련이 세워놓은 대문짝같은 숙보관들에 나붙은 자력갱생직장, 청년직장, 주강직장, 가공직장 등 수많은 직장들에서 일어나

고있는 기적적인 소식들이 보는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그중에서도 천리마주철직장 주형작업반의 주형공처녀에 대한 속보와 유압식굴착기직장의 속보가 특별히 나의 시선을 끌게 했다.

《락원의 자랑 리영애동무, 드디어 유압분배기주물에서 성공!》,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고압호스를 생산한 유압식굴착기직장 전투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나는 이런 글발들을 읽으면서 속보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리라고 생각하였다. 주철직장 주형작업반은 지난날 10명 당원들이 일하던 작업반이다.

나를 재촉하듯 어데선가 기계의 동음이 울려오고 용선로의 화광이 언뜻언뜻 비껴왔다.

나는 주철직장의 크지 않은 휴게실에서 주형공 리영애동무와 마주앉았다. 수집은듯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묻는 말에 조용조용 대답하는 이 어린 처녀가 뜨거운 쇠물을 고분고분 길들여 주형속에 잠재울수 있으리라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처녀의 심장은 그 쇠물보다 뜨거웠다. 그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부어내지 못했던 그것을 끝내 부어냈던것이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주의깊게 들었다.

《물론 우리 작업반에서 만든 유압분배기주물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복잡하고 까다롭고 기술적요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만드는것이어서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자고 마음을 굳게 가진다면야 못할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가 기술적문제를 새롭게 탐구하여 분배기를 어떻게 만들어냈는가에 대하여서는 구태여 더 묻지 않았다. 중요한것은 처녀가 말한것처럼 《하자고 마음을 굳게 가진》 그 정신이었던것이다.

그렇다, 처녀는 10명 당원들처럼 특히는 10명 당원중에서도 녀당원인 신포향처럼 한생을 빛내고싶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주형을 빚고 한번 쇠물을 부어도 그날의 녀당원을 그르보군하였다. 이번 유압분배기주물에서도 그랬었다. 어떤

동무들은 우리 손으로 만들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생하느니 차라리 우에 제기하여 풀어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영애의 생각은 달랐다. 10명 당원들은 무엇이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 것처럼 크나큰 맹세를 올렸단말인가, 전쟁의 불길속에 모든것이 무너지고 마사진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들은 어버이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끝까지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냈던것이다. 그들은 곤난이 막아나설 때마다 우에 제기하여 풀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자체의 힘으로 해냈던것이다.

그런 정신과 기백을 가진다면 왜 우리가 자체의 기술과 로력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겠는가. 유압 굴착기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넘려하시는 문제이며 락원의 로동계급을 믿으시고 주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었다.

유압굴착기를 생산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이 굴착기의 심장과 같은 분배기를 어떻게 주물하느냐 하는데 귀착되었다.

영화에서는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자재와 설비가 부족되어 그것을 우에 제기하여 풀어보자고 제의서를 가지고 평양에 갔다가 그 제의서를 그대로 가지고 내려온 일이 있었다. 나라의 사정이 곤난하여 강제 한톤, 세멘트 한톤을 수령님께서 직접 배정하신다는 말을 듣고 차마 제의서를 제출할 용기가 나지 않았었다.

제의서를 낸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앞에 손을 내미는것으로 되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자그마한 곤난이 있다 하여 우에 제기하겠다면 그것이 어찌 락원사람들의 도리이겠는가. 영애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날밤 영애네 작업반동무들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전화의 날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10명 당원들이 세포총회를 가졌던 주철직장 민주선전실에 모여앉았다.

그들은 이 뜻깊은 장소에서 말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유압분배기를 만들어내겠다고 맹세를 다지었다. 바로 이런 충성심이 낳은 유압분배기! 이것은 깨끗한 마음의 결정체였다.

리영애동무와 헤어져 밖으로 나오니 공장구내에서 울려나오고있는 기계의 고르로운 음향은 이곳 로동계급들의 충성의 노래처럼 힘차게 퍼져갔다.

나의 가슴속에선 흥분이 설레었다. 머리속에서는 시행들이 번개처럼 떠올랐다가는 사라지고 또

다시 나타나군하였다.

여기 락원땅  
10명 당원들이 일하던 일터  
쇠내를 머금은 바람은  
그날의 맹세가 어려 뜨거웁고  
무쇠지붕에 비껴가는 붉은 노을도  
그날의 신념이 어려 저리도 불타는가

용선로에 사품치는 쇠물도  
그날의 당원들이 남겨놓은 마음인듯  
백광을 뿌리고  
송풍압의 거센 흐름도  
그날의 숨결인듯 가슴 흔든다!

그날의 맹세란 무엇이며 그날의 숨결과 신념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가지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해 나아가는 립장이며 자기희생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빛나는 열매를 거두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러나가는 락원의 자세이다. 락원사람들은 저마다 제 가슴에 이 신념의 불씨를 간직하고 시련의 차디찬 바람이 불어오면 이 불씨로 가슴을 덥히고 때로 넘기 어려운 고난의 언덕이 나타나면 이 불씨로 심장을 끓이면서 오늘에도 힘차게 걸어왔다.

《고압호스생산에서 성공한것은 그날의 당원들의 맹세를 이어가는 우리 동무들의 힘찬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것이지요.》

이 말은 내가 두번째로 찾아가 만나본 유압굴착 기직장동무가 한 말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고압호스도 자체로 만드는데서 적지않은 고충을 겪었다는것이다. 기계공장에서 고압호스를 만들 어본 일도 없고 따라서 기술도 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10명 당원들이라면 어떻게 해결 하였을가.》하고 생각하면서 그날의 당원들을 따라배워나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공장의 협동생산품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던 생각을 버렸다. 한번에 안되면 열번, 열번에 안되면 스무번... 이처럼 집체적 지혜를 모아 끝내 성공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양수기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 양수기를, 탑식기중기를 바라시면 탑식기중기를, 굴착기의 착정기를 넘려하시면 그 모든것을 만들어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려온 락원사람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락원로동계급의 성과를 높

이 치하해주시었다.

전후복구건설시기에나 사회주의기초건설을 할  
때나 그리고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울 때나  
락원사람들은 언제나 10명 당원들이 지녔던 그날  
의 신념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높이 받들어  
왔다. 락원의 로동계급들이 걸어온 길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을 따라 우리 인민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길의 축도이며 락원의 목소리는 그대  
로 우리 인민의 목소리인것이다.

굴착기직장을 떠나 나는 생각깊이 발걸음을 옮  
겨놓았다.

우리를 물고 줄달음치는  
천정기중기운전공의 마음도  
그날의 맹세를 못잊어 불이 되고  
쇠물을 부어가는 주형공의 눈빛에도  
그날의 신념이 불탄다

불구름 타래치던 준엄한 나날에  
10명 당원들이 다진 그 맹세  
행복한 나날에도 변함있으랴  
세대는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날의 맹세로  
흐르는 세월을 빛내이는 락원이여!

여기에 오면 누구나 락원땅에서 받는 벅찬 숨결  
로 하여 시인의 심장을 지니게 되리라고 나는 생  
각한다.

그렇다, 락원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것인가. 락원의 맹세는 세월이 흐르고, 하늘땅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화불과 같  
은것이다.

그들의 가슴속깊이 뿌리내린 그 신념, 우리 수  
령님앞에 다진 맹세는 가장 고귀한 삶으로 부르  
는 마음의 불길이며 심장의 봉화이다. 그때문에  
락원의 새세대들은 10명 당원들의 모습을 언제나  
자기들이 나가는 앞길에 내세우고 그들의 걸음  
걸이, 그들의 생각을 자기것으로 만들기 위해 힘  
찬 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이다. 그들처럼 한생을  
가장 값높은 삶을 빛내려는 이 마음은 락원의 구  
내길을 벗어나 밤모르는 철의 도시에서도, 바다  
를 밀어내고 새땅을 안아오는 간석지건설장에서  
도 그리고 오곡을 키우는 농장벌에서도 불타오르  
는것이다!

락원의 맹세는 온 나라의 맹세가 되었다. 우리  
인민은 이 맹세를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영  
광스러운 당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갈것이다.